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

-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총괄책임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책임연구원 : 정병호(한양대학교 · 교수)

공동연구원 : 김찬호(성공회대 · 초빙교수)

연구보조원 : 정은지(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안종수(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현상(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기민(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5
3. 주요 문제의식과 인터뷰의 틀	9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유형	10
2) 제3국에서의 경험	10
3) 남한에서 정착과정	10
4)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11
5) 교육	11
6) 지적인 발달 (학습의 경로)	11
7) 사회생활	12
8) 정체성과 자신감의 변화	12
9) 앞으로의 구상과 전망	12
4. 중복연구의 폐해와 제언	13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9
1.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19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의	19
2)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21
2. 선행연구 검토	24
1)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24
3. 국가 간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30
1) 낮은 언어장벽	31
2) 북한 미디어 문화와의 단절	32
3)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	33
4) 중간 기착지에서의 생활경험	33
4. 이주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4

III.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험과 진로기획	41
1. 이주배경과 그 과정	41
1) 북한사회와 이탈동기	41
2) 중간기착지에서의 경험	44
2. 남한사회에의 초기적응	46
1) 문화적 이질감과 한국인들의 인식	46
2) 가족관계의 변화	49
3) 북한이탈 청소년 연결망 및 남한 사람들과의 교류	51
3. 학교교육과 일 경험	56
1) 북한 및 중간기착지에서의 교육과 노동경험	56
2) 남한에서의 학교생활과 대학진학	59
3) 남한에서의 일 경험	62
4. 집단정체성과 ‘우리’의 범주	64
5.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기획	73
IV.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81
1. 왜 인문학인가?	81
1) 사람됨의 탐구와 자아의 성찰	81
2)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 증진	82
3) 세계에 대한 입체적인 안목 형성	83
2.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실행	85
1) 프로그램의 세팅	85
2) 프로그램의 운영	87
3) 피드백과 방향의 전환	89
3.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91
1) 인문학 공부를 통해 드러난 것	91
2) 관심과 참여를 북돋은 계기들	92
4.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93
1) 진로와 관련지어 동기부여하기	93
2) 정서가 교감되는 규모와 분위기 조성	94
3) 예술 프로젝트와의 연계	95
4) 목표 설정과 성취의 경험	96

5.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체크 리스트	98
1) 기획 단계의 점검 사항들	98
2) 목표 달성의 지표	98
V.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제안	103
1.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의 구축	103
2. 진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105
3. 맞춤형 학습의 다양한 경로 개발	106
4. 사회적 기업과 멘토링 시스템	107
VI. 결론	111
참 고 문 헌	117
부 록	123
1. 북한이탈 청소년 인터뷰 (사례)	123
2.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사례)	142

표 목 차

<표 I -1> 인터뷰 대상 북한이탈 청소년	8
<표 II-1> 학령기별·성별 인원현황	22
<표 II-2> 북한이탈 아동, 청소년 학령기 현황	23
<표 II-3> 교육기관별 현황	2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 주요 문제의식과 인터뷰의 틀
4. 중복연구의 폐해와 제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진로탐색의 실태를 밝히고, 그들의 지적역량과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인문학의 존재양식을 실험하고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는 별개인 것으로 보이지만, 라포 형성을 통한 심층 인터뷰라는 연구의 방법론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맞물려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이탈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생활실태와 무난한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그들이 남한사회에 어떻게 적응 또는 부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치중하면서, 그들을 위한 복지 또는 치유의 방안을 논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진 북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은 북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후진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논의할 때 주로 북한사회의 문제점들에 주목하게 만듦으로써 남한사회에 대한 자기비판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발적 비적응’(정진웅, 2004: 189)징후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부적응의 진단에 그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합되어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해나가야 할 주체이다. 따라서 남한사회에 이들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려는 관점과 정책 대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한국사회를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와 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미래를 개척해갈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착수하면서 진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인식과 그에 따른 목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로’가 가지는 압축된 언어에는 누군가가 미래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직업에 대한 계획과 꿈 - 특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서부터 추상적이고 때로는 비직업적인 꿈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대단히 폭넓다. 진로에 함의되어 있는 수많은 여러 경우의 수에서 정확히 어떤 길- 진로 혹은 삶에 대한 태도 - 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잡이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저마다 선호하는 직업에 따른 기능의 습득은 다른 여타의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습득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번의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제시될 것이다.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이에 토대한 향후의 진로탐색 인문학 개발 프로젝트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기 위한 연구이기보다는, 한국 현대사회에서 그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총괄적인 인식의 틀을 그들에게 심어 주거나 혹은 그들이 스스로 구축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3년 전쯤부터 한국에는 인문학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의 CEO, 일반 시민, 주부, 청소년, 노숙인, 가난한 이들, 채소자 등 다양한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인문학이 단순히 교양차원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와 의지를 새롭게 충전하는 계기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기 때문이다¹⁾.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행해지는 교육프로그램은 기초학력 증진,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그리고 직업을 위한 기능습득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만으로는 스스로 삶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어렵다. 북한

1) 예를 들어, 노숙인의 경우 아무리 직업교육을 실시해도 금방 노숙의 삶으로 되돌아 오는데,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했던 성프란시스대학 클레멘트코스를 수료한 노숙인들은 거의 대부분 새로운 삶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탈과 남한정착의 독특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교육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고 실험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초학력 증진과 인성교육, 기능적 직업교육의 범주를 넘어서서 자아의 생존력을 키워낼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구상,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대안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일반 공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개발에도 효과적인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인문학 커리큘럼 개발을 위하여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수강생들과, 학교 밖 새터민들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경험을 심층 면접을 통해 밝혀내는 이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채택한 배경은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연구 대상자 섭외의 어려움이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결되었다 해도 워낙 많은 조사에 시달려서 연구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품권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설문에 응한다 해도 매우 성의 없이 답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안학교들의 경우 그런 조사의 요청이 너무 많아 어떤 연구에도 학교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층 인터뷰를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진이 직접 수업을 실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서 앞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 방향위에서 연구진은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인터뷰 할 대상자들을 접촉할 기관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셋넷학교’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접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안학교 섭외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기에는 이미 한 학기의 교과과정이 모두 짜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셋넷학교는 4월 중순 검정고시가 끝나고 5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었다.

‘셋넷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기관으로 2004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공동체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많은 활동을 해 왔던 박상영 대표교사에 의해 문을 열었다. 사실 셋넷학교는 개원 이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오랜 역사를 유지해 온 학교이다. 1995~2000까지 따또학교(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남한 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 문화학교를 운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2002년~2003년에는 난나학교(난나 공연예술 청소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남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였다. 이와 함께 2001년~2003년까지 셋넷교실을 열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2003년~2004까지는 뜰배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4년 9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셋넷학교라는 이름으로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다.

셋넷학교는 ‘나와 다른 문화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합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문화통합 방식의 교육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나 주입식의 교육방법이 아닌 상호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문화와 예술에 의한 교육방식을 지향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교과교육과,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의 참여와 시행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셋넷학교가 지니는 특이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과 함께 연구진은 본격적인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과 심층면접 이전의 사전준비로 새터민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과 토론, 스터디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새터민들의 규모와 상황에 대해 윤곽을 잡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여기에는 셋넷학교, 무지개청소년센터 관계자 인터뷰 및 질의응답, 관련논문 전문가 조언 및 토

론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셋넷학교의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및 심층 인터뷰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08년 5월 13일 셋넷학교에서 처음으로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매주 화요일 오전에 2~3시간가량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11회로 7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강의방법은 매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와 그룹별 토의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매 시간 주제에 관련된 글을 미리 써오는 숙제를 내었다. 이러한 수업 진행방식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진이 연구하려는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집단 속에서 훨씬 입체적이고 때로 솔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기획되었다.

이 수업에는 연구보조원 4명이 조교로 참여하였는데, 세 명이 각각 한 조를 맡아 4-5명의 학생들과 긴밀하게 토론하고 친분도 쌓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켜보면서 앞으로 심층 인터뷰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파일을 만들어 그들이 수업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숙제로 제출하는 글,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끼리 나누는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해나갔다. 이는 추후의 심층 인터뷰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매 수업시간마다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약간씩 변동이 있었지만, 대략 14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강의에 참여하였다.

7월 22일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이 마무리 된 후 본격적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3명의 조교들이 평소 자신과 라포를 형성한 프로그램 수강 학생들을 따로 만나 실시했다. 보통 한 번에 한 명씩을 인터뷰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으나, 보다 원활한 인터뷰를 위하여 두 명 정도를 함께 인터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7월 23일부터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내용정리와 분석은 8월 30일까지 마무리되었다. 조교 1명당 5명씩, 총 15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이들 중 13명은 셋넷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로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들이었고,

외부에서 소개받아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 2명을 추가로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대략적인 정보는 <표 I-1>과 같다.

<표 I-1> 인터뷰 대상 북한이탈 청소년

인터뷰 대상 (총15명)	나이/ 성별	현재 소속	이주경로/ 체류기간	한국체류기간/ 한국에서의 경로	삶에 대한 계획	가족관계
A	24/여	무지개센터 에서 활동, 혼자서 공부	북한- 중국경유- 제3국 (캄보디아)- 한국	1년/ 복지관- 아르바이트- 무지개센터- 혼자서 대학준비	초등교육과에 진학하여 선생님이 되고자함.	엄마, 아빠, 본인 세 명. 모두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B	23/여	여명학교	북한- 중국에 1년간 거주- 한국	1년 정도/ 일반학교- 여명학교	대학에 진학하여 교사가 되고자 함	할머니,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는 중국으로 간 후 연락두절
C	26/남	셋넷학교	북한- 중국거주- 한국	4년/ 학원- 셋넷	전문대에 진학 후 기능직으로 취직 희망	아빠, 엄마, 본인 세 명으로 함께 거주
D	19/여	셋넷학교	북한- 중국거주- 한국	4년/ 일반학교중퇴- 아르바이트- 셋넷학교	대학진학하여 사회복지사 희망	가족과 함께 건너 왔으나, 현재 셋터에서 혼자 생활
E	18/여	셋넷학교	북한- 중국거주- 한국	2년/ 일반학교중퇴- 다시일반학교- 셋넷학교	고등학교 진학하여 대학진학 희망	가족과 함께 건너 왔으나, 현재 셋터에서 혼자 생활
F	20/여	셋넷학교	북한- 중국거주- 몽골- 한국	3년/ 아르바이트- 셋넷학교	검정고시 후 디자인 스텝 지망희망	엄마 여동생과 거주
G	20/여	셋넷학교	북한- 중국- 베트남- 한국	3년/ 한국중학교 졸업- 셋넷학교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 희망 / 수학생선생님	엄마 여동생과 거주
H	28/남	셋넷학교	북한- 중국- 한국	2년/ 가락시장에서 1년간 일함- 기술학교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 희망/ 중국 무역업에 관심	아버지와 거주 / 누나는 결혼하여 따로 삶

인터뷰 대상 (총15명)	나이/ 성별	현재 소속	이주경로/체 류기간	한국체류기간/ 한국에서의 경로	삶에 대한계획	가족관계
I	18/남	셋넷학교	북한- 중국- 한국	8년/ 한국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중퇴-여명학교- 셋넷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후/ 한식 요리사 자격증 준비	I와 J는 사촌지간 엄마와 단둘이 거주
J	16/남	셋넷학교	북한- 중국- 한국	5년/ 한국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여명학교- 셋넷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후 그 이상의 계획 없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남동생과 거주/ 현재 가출 상태
M	22/여	셋넷학교	북한- 중국- 한국	3년/ 현재 셋넷학교	대학교 진학 희망 / 중국어학과 지원	부모님과 거주
N	22/여	셋넷학교	북한- 중국- 한국	2년/ 현재 셋넷학교	대학교 진학 희망 / 중국어학과 지원	부모님과 거주
L	24/남	셋넷학교	북한- 중국- 한국	4년/ 현재 셋넷학교	카메라에 관심 많음 / 영상을 직접 현재 찍기도함	부모님과 거주
O	22/남	셋넷학교	북한- 중국- 한국	컴퓨터 학원 진기학원 중퇴 / 셋넷학교	기계에 관심이 많음 오토바이 / 정비사가 되고 싶어함	부모님과 거주
K	19/여	셋넷학교	북한- 중국- 한국	3년/ 현재 셋넷학교	전문대에 진학/ 뷰티에 관심	부모님과 거주

3. 주요 문제의식과 인터뷰의 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생애경험과 적응의 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하면서 연구진들은 ‘북한에서의 삶 / 탈북 경로와 중국 / 한국에서 정

착과정'이라는 세 시기로 나눠 틀을 짰다. 그러나 많은 요소들이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의 과정 속에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일단 주제중심으로 정리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와 현재의 삶에 아래와 같은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상반된 조건이나 경험들을 대비해가면서, 그것이 자아낸 결과들에 대해 추측해보면서 그러한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맞물리거나 상충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유형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하나의 범주에 포괄되면서도 그 안에 대단히 폭넓은 스펙트럼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그 변수 내지 기준으로서 남한에 들어오기 전에 상황에서 무엇을 짚어야 하는가?

- 남녀 / 연령 / 체격 및 건강 상태 /
- 북한 학력/탈북 시기 / 탈북 동기/중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방식
- 동반가족 여부 / 가족배경 : 부모의 성분, 학력 및 문화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경제적 수준

2) 제3국에서의 경험

무엇을 하고 지냈는가? 거기에서 받은 문화충격은? 거기에서 배운 것으로 남한 정착 이후 도움이 되는 것은? 설움을 겪은 것(예를 들어 조선족의 차별), 불안은 어떻게 체험되었는가?

3) 남한에서 정착과정

입국 후에 정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도식을 세울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전환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들에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가? 여기에서 부딪히는 좌절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하나원 출소, 거주지 배정 및 주민등록증 발급, 학교 입학, 노동, 학교 중퇴, 연애와 실연, 결혼....

4)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이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가족, 다른 새터민, 교회, 행정 기관, 한국인 친구 등).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의 형태가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들은 무엇인가? 새터민의 유형별로 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가) 가족 및 친척 관계

- 행복한 기억 ~ 끔찍한 폭력, 아버지의 부재, 가족의 단절과 해체
탈북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이후의 가족의 변화
- 특히 중국에 친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나) 사회적 관계 (네트웍)

- 북한에서
- 탈북 과정에서 (영사관)
- 하나원 생활 이후 - 학교, 또래, 연애 등

5) 교육

- 북한에서의 학력신장 어디에서 멈췄나?
-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
- 남한에서 학교 교육, 적응과 부적응
- 대학생 선배 새터민들의 탈락을 보면서 느끼는 것

6) 지적인 발달 (학습의 경로)

남한에 와서 뭔가 새로 배우는 것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학교에서는 주로 무엇을 배웠고, 학교 바깥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직업세계, 미디어, 또래집단, 교회 등) 지속적인 학습을 꾸준히 해나가는 경우와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 그 둘 사이의 갈림길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 예를 들어 북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학력을 신장시키고 왔는가?, 중국에서 의미 있는 학습을 했는가?,

- 누군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는 교사, 그 외의 다른 어른들의 존재 여부
- 또래집단/ 부모의 지지 /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
- 꼭 배우고 싶은데 (싶었는데)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왜 못 배웠는가? 가정 형편?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 검정고시 통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을 맛보았는가?

7) 사회생활

- 일상에서 언어적 이질감
- 직업 내지 아르바이트 체험
- 시간 관리의 어려움
- 경제관념의 차이 (더치페이, 경제적 대가의 요구 등)
- 차별의 경험, 자존심의 상처와 오해

8) 정체성과 자신감의 변화

그들은 새터민을 어떻게 인지하고 분류하는가? 예를 들어 ‘꽃제비’라는 존재를 자신과 비교하여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초기 새터민 가운데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신화적 인물이 있는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의 범주는 어떤 테두리로 형성되는가? 남북한이 추구할 때 어느 편을 응원하는가? 남한에 막상 와보니 자신이 매우 무능력한 존재임을 새삼 발견하고 당황했던 상황은 무엇인가? 남한 사람들과 자신이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남한사람들 가운데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벽은 무엇인가?

9) 앞으로의 구상과 전망

- 10년, 20년, 30년 후 자기 삶의 모습은 어떠하리라고 예상되는가?

- 중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다시 도전할 생각도 있는가? 지금 그런 나라로 가 있는 새터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목표는?
-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는?
-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4. 중복연구의 폐해와 제언

이번 연구과정을 통해 새삼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연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았다. 이는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비슷한데, 대학의 학부생들의 리포트, 석 박사 학위논문,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연구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 새터민들을 찾아다녔다. 게다가 이따금 마스크에서 취재하러 오기도 했다. 그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비슷한 질문이나 설문에 여러 번 노출되고, 자신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연구가 단순히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나 이치를 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20세기 과학철학의 상식이 되었다. 인간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서도 연구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 무척 어렵게 되었다. 인간이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를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견주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연구자의 사소한 말 한 마디나 표정 그리고 연구의 전후에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바로 이 점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사

회에 들어오자마자 집중적인 심문과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내던져진 이후에는 정착금과 생활비 지원 이외에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거나, 그와 깊은 유대를 맺어본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저기에서 연구 하겠다고 만남을 요청해올 때 처음에는 얼떨결에 응하게 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쉽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사례(謝禮)인데, 인터뷰나 설문에 응할 때마다 감사의 표시로 주는 선물이나 문화상품권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과도한 사례는 비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뿐 아니라, 연구에 대한 관념을 왜곡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연구자들의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운 대안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 착수하여 연구대상자들을 물색하면서도 그 점이 매우 어려웠다. 연구책임자와 평소에 친분이 있는 학교의 경우조차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동안 특히 국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들이 거의 비슷한 설문들을 가지고 계속 방문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짜증이 난 상태였던 것이다. 교사들은 그러한 설문 조사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왜냐하면 설문에 치인 아이들은 매우 성의 없이 답을 하기 때문이다. 대충 아무렇게나 답을 써서 내고, 문화상품권을 챙기는 모습을 보는 교사들에게 외부에서 잠깐 와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는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습성을 아이들에게 심어놓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연구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바탕 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그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다행히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연구의 대상을 그야말로 대상화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미를 만들거나 모색하는 파트너로서 인식한다. 라포의 형성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연구의 일부이고, 연구를 넘어서 인격적인 유대를 맺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한다. 실제로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들은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친구 또는 선배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인간적인 교류를 맺지 않으면 심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 그리고 인류학적 연구가 늘 그러하듯이 이번 연구는 이를 통해 생성되는 언어와 의미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 자신에게도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앞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마구잡이로 남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도출될 때에 한해서 현장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방면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하게 구축되어 선행연구들을 입체적으로 검색할 뿐 아니라, 연구자들이 보고서에 미처 담지 못한 '암묵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회로가 열려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연구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나 그들을 보살피는 학교 쪽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의 과정에서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하고, 연구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기획하는 데 신선한 도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 도출되는 정책들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2. 선행연구 검토
3. 국가 간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4. 이주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의

‘북한이탈 청소년’이란 개념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청소년이란 용어 자체가 학자나 구가, 법률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이라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길은배 외, 2003). 탈북청소년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을 통칭 ‘북한이탈주민’이란 법률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외 특별히 해당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따로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계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어 왔다. 1962년 4월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은 ‘월남귀순자’로, 1979년 1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서는 ‘월남귀순용사’로, 1993년 12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서는 ‘귀순북한동포’로 정의되어오다가 1997년 7월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등에 비해 비교적 탈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 객관적인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직이나 기관,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역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에 대한 용어는 다르게 정의되어 사

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과 탈출상황, 거주 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자유북한인, 자유이주민, 통일인, 그리고 국외 북한이탈주민 및 국내 북한이탈주민’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기존의 용어들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거하고, 이주민의 성격을 표현하여 민간의 정착지원을 끌어내자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자유북한인’이라는 용어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모임을 창립하면서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인’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하여 왔다(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 2000). 그리고 ‘자유이주민’이란 용어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발적 동아리 모임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서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존에 ‘탈북’이라는 명칭이 상징하는 좋지 않은 선입견과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국어연구원 전문가, 언론인, 북한이탈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 총 17,000여 명의 국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용어이다.

성인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탈북청소년이란 용어도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 탈북귀순청소년, 탈북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연령에 있어서도 13세에서 21세(이기영, 2001), 9세부터 24세(금명자 외, 2004 ; 장창호, 2000)까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들이 처해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적 연령 기준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학업적, 신체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연령규정을 보류하고 있기도 하다(길은배 외, 2003).

이처럼 탈북청소년의 명칭과 연령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통일된 개념이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정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14세부터 24세 이하(현재 셋넷학교에 재학 중인 28세 청년 1명 포함)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연령에 속해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본의 아니게 북한사회의 상황과 탈북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포기 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 간절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연령이 많아도 대부분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학교에 진학한 후 심각한 기초 학력부족이나 동료들과의 연령차이 등으로 정규학교를 그만 둔 북한이탈 청소년이라 해도 여전히 학업에 대한 열망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아예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학업공백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연령이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2)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남한에 입국한 기입국자가 재 북한, 재중국의 잔여가족들을 입국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 동반 입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은 1994년까지 전무하다가 이후 1998년까지 12가족이 입국했고, 1999년 36가족, 2000년 50가족, 2001년 90가족, 2002년 150가족, 2003년에는 234가족이 입국하여 가족단위 입국자가 전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약 40%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2004). 이처럼 가족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탈북아동·청소년의 입국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²⁾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해마다 3백여 명의 북한이

2) 교육인적자원부(2004)에 따르면 북한이탈 아동, 청소년은 1999년 40명, 2000년 90명, 2001년 196명, 2002년 361명, 2003년 375명, 2004년 414명으로 2002년 이후 매해 3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탈 청소년이 급증해 만 6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은 약 1,5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과 중국 및 제3국에서 지내는 동안 교육의 공백이 있어 입국연령을 통해 학령기 학생 수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표 II-1>는 학령기별, 성별 인원현황으로 남아보다 여아가 많고 만 6세에서 20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915명으로 나타났다.

<표 II-1> 학령기별·성별 인원현황

(단위: 명)

	0~6세	7~13세	14~20세	21~24세	계
남	36	145	314	307	802
여	46	135	321	311	813
계	82	280	635	618	1,615

*자료출처: 통일부(2006.9)

입국초기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가 파악하고, 정착지에서 ‘학생’은 교육과학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분리되어 입국현황에 따른 연령 대비 취학대상자와 학교 재학률을 포괄적으로 다룬 가용할 만한 통계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물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현황을 기초로 하여 학교적응과 관련한 취학대상자와 재학생, 중도탈락학생을 파악한 통계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시기와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표 II-1>, <표 II-2>와 <표 II-3>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실태를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령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현황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북한이탈 아동, 청소년 학령기 현황

(단위: 명)

연령	6		7		8		9		10		11		12		13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	7	18	14	18	13	19	12	11	15	17	28	35	43	35	25	25
	25		32		32		33		32		49		78		50	
연령	14		15		16		17		18		19		20		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	47	40	48	44	49	51	57	56	54	60	57	60	48	65	517	530
	87		92		100		103		104		117		113		1,047	

*자료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2007.1)

2007년 기준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만 6세에서 20세 이하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수는 1,047명이다. <표 II-2>가 작성될 당시보다 청소년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한국에 국적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 II-2>가 학령기 인구의 현황을 정리했다면 아래의 <표 II-3>는 학령기의 학생이 교육받는 교육기관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학교³⁾와 일반 제도권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현재 그 교육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겨레 중고등학교 85명, 일반학교 602명, 평생교육시설 및 민간단체 328명으로 전체 1,015명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시설 및 민간단체 인원은 일반학교와 지역 내 다른 기관들과 다소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의 민간단체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동일 지역에서 중복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더 줄어들게 된다. 즉 학령기에 속한 인원과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인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3) 사회통합의 디딤돌학교를 표방하며 2006년에 정부와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설립, 120명 정원의 학력인정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3> 교육기관별 현황

구분	한겨레중고	일반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민간단체	합계
		초1	중	고		
인원(명)	85	341	181	80	328	1.015
		602				
교육기관수 (개)	1	113	91	52	18	275
		256				

*자료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4)

<표 II-1>, <표 II-2>과 <표 II-3>을 통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취학률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표 II-2>에 나타나는 17세에서 20세 사이 학령기 인원과 <표 II-3>의 일반학교 재학생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2004년과 2005년 자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저조한 취학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학생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입국 청소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 취학상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2. 선행연구 검토

1)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부적응과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내용과 그 원인들을 설명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대부분 심리적, 문화적 적응/부적응의 양상과 그 원인을 표면적으로 서술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응의 구체적인 과정보다는 한국사회중심으로 적응 했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주목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

러한 연구경향이 나타난 까닭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사회 적응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행정적, 정책적 관점에서도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문화적 적응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이처럼 편향된 연구경향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들은 자주 거론되는 이론적 틀-예를 들어, 베리(Berry)의 문화적응 모델과 같은-이 제공하는 범주들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험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총론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그들의 경험을 내부자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1) 북한이탈주민 일반에 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남한사회에로의 적응(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초기에는 정책적인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점차 적응문제로 관심이 확대되었고, 현재는 각 분야(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교육문제, 여성문제 등)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독고순(2000, 2001)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집단주의적 성향보다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밝혔고, 전우택(2000)은 적응을 ‘자신이 지금 와 있어야 할 곳에 적절하게 잘 와 있다는 의식, 새로 정착한 사회에서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의 방식과 주도권으로 자신의 방식과 속도로서 해결해 가고 있다는 느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채정민·김종남(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을 개인적·사회적 정체감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자아 정체성, 남한사회 정체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북한 사회정체감과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이기적 박탈감보다는 우애적 박탈감⁴⁾의

4) ‘이기적 박탈감’은 개인적인 차원의 박탈감이며

형태를 보였다.

정태연·김영만(2004)은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와 자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남한사회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현실인식차원에서 남한사회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남한사람 및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특성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성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성 역할 고정관념도 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존재한다. 정진경(2002)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사람들의 성 역할 특성과 가치관을 조사한 바 있는데,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들에 비해 성 역할 측면에서 더 성 전형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의식에서는 남한사람에 비해서 더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을 보였다.

정태연·최영진·김영만(2002)은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북한의 세대 간의 의식구조와 현실인식을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서구문화의 특성을 더 많이 지닌 반면, 성인세대는 전통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세대 차이는 전반적으로 남북한 간에 상당히 유사했으나 세대차이의 크기는 남한사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북한사람들은 세대와 무관하게 북한사회를 현실인식차원과 정치적 통제감의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용관(2004)은 북한정치교육의 내면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북한교육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따라 중오의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고는 흑백이 명확하고 중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해 사회주의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대부분 이중의 도덕적 기준, 또는 제2의 사회의식, 이중적 사고, 분열된 인격 또는 이중적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조직생활에서 공적원칙을 따르지만 사적세계에서 개인주의를 지향한다. 다시 말하여 공적세계에서는

복종하지만 사적세계는 비판하는 ‘면중복배’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측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연구들(김영수, 2004; 길은배·문성호, 2003; 신율, 1998)도 상당수 진행되었다⁵⁾.

(2)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박선경(1988)은 북한이탈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교사와의 적응, 교우와의 적응, 학습활동 적응, 자기통제에 관련한 적응의 네 영역을 연구한 바 있는데 네 영역 모두에서 적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2000)은 정부의 사회적응 교육시설 안의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욕구를 밝히고자 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전부터 남한사회 청소년문화에 민감하며, 남한 청소년문화에 편입되려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장창호(2000)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연구하였는데, 심리적 적응부분에서는 외로움, 불안과 걱정, 소외감 및 소속감, 자신감 및 자부심, 자아존중감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학교에서의 적응(학습능력, 친구, 교사와의 관계), 일반적 대인관계, 가족과의 문제(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 내 가족과의 상호작용), 언어문제, 경제적 문제 등을 다루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측면에서 북한이

5)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이탈주민실태연구보고서’(통일연구원, 2003)에 따르면 99년부터 03년까지 전국 주요대학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수는 106편이었는데, 이 중에서 적응과 정책연구 관련 논문이 54편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문제(18편), 그 다음으로 북한 선교 및 북한이탈주민 선교방안에 대한 연구(16편)가 비슷한 편 수를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 선교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이 특이한데, 정병호(2005: 23)는 한국 교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 선교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탈 청소년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기영(2002)은 기존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학습을 위한 장에서의 적응경험(학업성취 영역, 교사와의 관계, 진학결정과정에서의 문제,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경험), 사회적 관계형성(친구 사귀, 가족관계)에 대한 경험(탈북자라는 사실과 친구인식관계, 연하의 청소년과 동급생이 되는 상황, 용돈의 액수와 친구 사귀의 용이성, 친구로 사귀 수 있는 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가온 탈북자 친구들과의 관계, 청소년 하위(놀이)문화와 적응경험), 심리 정서적 측면, 외모 및 외형적 측면에서의 적응, 종교 활동, 남한 성문화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행 등으로 적응경험을 세분화하여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길은배·문성호(2003)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사회적응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업적응의 문제, 청소년문화적응의 문제, 경제적 적응의 문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문제, 가정 내 갈등 문제를 겪고 있다. 베리(Berry)의 사회적응 유형으로 바라볼 때 대부분 문화분리 유형에 속하고 부분적으로 문화주변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명자·권해수·이희우(2004)는 베리(Berry)의 사회적응 유형을 이용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별, 연령, 입국연령,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 동거형태 그리고 입국 후 경과기간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통합과 동화유형을 보였다. 또한 남한 입국 후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서 문화 적응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4개월 미만의 기간에는 통합과 동화를, 보호기간 후 1년 동안은 분리를, 1-2년 사이에는 주변화 경향을 보였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통합’유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초, 중, 고등학교 등 공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문화적응 정체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은 남한문화 정체감과 북한문화 정체감 모두에서 낮은 정체감을 지니고 있었다.

정향진(2005)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감정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감정의 에너지가 풍부하고 극적이며 고저가 심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감정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 일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한사회로의 적응문제와 정책지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북한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려는 연구도 간혹 눈에 띄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연구초점이 적응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기존의 연구(이기영, 2001)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현대 한국사회의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감 혹은 떨어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번 연구 기간 동안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위에서 지적했던 측면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특히 동시대의 또래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와 이들의 관계 혹은 미디어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그러한 영향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특히 진로와 관련된- 어떤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들이 즐겨 입는 옷차림과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성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그들의 진로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유형을 분류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될 것이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놀이문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부모들과의 관계나 또래집단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부적응과 관련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언급하거나, 가족 안에서 그들이 처한 입장에 따른 압력 혹은 스트레스를 언급한 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능동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없었다. 예를 들어, 자식의 대학입학을 중용하는 부모님의 입장과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에 따른 해결방안 혹은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일종의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다.

3. 국가 간 이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베리(Berry, 1997)에 따르면, 문화접촉 집단은 이동성(mobility), 자발성(voluntariness), 영속성(permanence)에 따라서 분류된다. 먼저 ‘이동성’은 자신이 새로운 문화의 사회로 옮겨 갔는가, 아니면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이민자나 난민들은 새로운 문화로 옮겨간 사람들이고 토착민과 민족문화집단은 새로운 집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자발성’은 문화적 이동이 자발적이었는가의 여부로, 이민자나 유학생 등의 체류자들은 자발적인 사람들이고 난민은 비자발적인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영속성’의 차원은 얼마나 오래 새로운 문화 환경에 살게 될 것인지의 문제로, 이민을 간 경우라면 비교적 오랜 기간 새로운 환경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여행자, 해외 주재원 등의 체류자들은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활할 때 난민에 가깝지만, 일단 남한으로 이주한 후에는 이민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형적인 이민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문화, 언어, 관습 등이 비슷해서, 이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른 적응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정진경·양계민, 2004).

위와 같은 미묘한 차이점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기존의 국가 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과 차별적으로 다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관련 문헌연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북한이

탈주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낮은 언어장벽

이민자나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이 호스트 커뮤니티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서 ‘언어장벽’을 들고 있다(양승목, 1988; 김현주 등, 1997; Dorjee & Gile, 2005). 이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적 장벽을 경험한다.

정경일(2002)은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때 ‘언어적응’이란 상이한 언어 환경을 지닌 언어사회의 구성원이 다른 언어 사회의 언어체계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뜻한다. 조사는 2001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90명의 남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600여명의 탈북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말하기 적응도는 일상적인 대화에 68.5%, 전화를 이용한 대화에 71.6%가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대면 대화보다 전화를 이용한 상황의 적응도가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듣기에 대한 적응도는 ‘TV시청>라디오 청취>영화>전화 통화>일상대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및 외래어에 대한 이해부족, 한자 해독력의 부족 등도 남한에서의 언어적 장벽으로 작용한다(김영수, 2004).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언어체계를 사용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 집단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응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언어문제는 곧바로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유의 억양과 사투리로서 드러나는 지역색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언어생활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 말투는 곧바로 남한에서 특별취급을 받는 조선족이나 탈북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바로 이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처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응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곧 북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

내는 것으로 부정적 자원이 되기도 한다.

이는 그 동안 남한의 미디어들이 북한 사투리를 희화화시킨 결과로서 볼 수 있다. 홍석현·이창현(1999)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주민들을 웃음의 소재로 묘사하는 코미디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 미디어 문화와의 단절

이민자나 디아스포라(diasporas)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의 문화(native/ethnic culture)와 새로 이주한 곳의 문화(host culture)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고 본다(Kim & Kim, 2004; Bahk & Jandt, 2004; Hao & Zhu, 2004).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는 크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주 집단의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이티브 미디어(native media)와 주류문화(mainstream cultur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호스트 미디어(host media)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미디어 이용에 따라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은 달리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북한 미디어의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호스트 미디어인 남한의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한 미디어 이용이 곧바로 남한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나 적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 문화의 재학습과 실천은 가정이나 또래집단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남한사회 속에 존재하는 작은 섬으로 묘사할 수 있다. 즉, 가정단위에서는 북한문화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영화나 북한 음악 등을 찾아 듣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 가능한 네이티브 미디어의 종류, 뉴스의 절대적 분량, 뉴스의 업데이트 주기, 현지인(북한사람)과의 직·간접적 접촉 가능성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인 국가 간 이주민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문화단절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이다.

3)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이주민 집단 연구는 국가 간 이주를 통해서 발생하는 타 민족 혹은 인종 간의 문화접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민족적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측면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람과 남한사회에 대해서 인식하는 불만은 민족적 이질성 때문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그들의 확신만큼 남한사람과 남한사회가 자신들을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만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남한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을 비판할 때, ‘같은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라는 수사를 사용하는 한편, 남한 시민들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믿음에 감정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도 많다.

4) 중간 기착지에서의 생활경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중간 기착지에서의 생활경험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곧바로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후 남한으로 이주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의 생활경험이 북한과 남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정우(2006)는 중국에서의 생활경험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화 과정을 ‘북한에서의 이중적 사회화’, ‘중국에서의 예비사회화’, ‘남한에서의

재사회화'라는 세 가지 가설로 제시하고, 이 세 가지 가설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공식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와 동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는 '남한에서의 재사회화' 가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중국에서의 생활경험이 이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많은 북한이탈주민청소년들이 초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청소년기의 오랜 기간을 중국에서 보낸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중국에서의 생활경험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일종의 '중계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연관지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밝혀진 위와 같은 미묘한 차이점들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 국가 간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이 논문의 핵심 연구대상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정체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립된 성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북한에서 벗어나 중국 등지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남한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정체성 문제는 성인들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이주 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험과 비교문화 차원에서 이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주자 자녀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는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을 중심으로 추동되어 왔다(Zhou, 1997). 동화이론가들은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 양식의 고수 및 이주자 공동체 유지 등에 관해 회의적이다. 이는 민족적 특성(ethnic traits)을 보존하

는 것이 이주자의 적응에 방해되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Child, 1943, Warner & Srole, 1945). 동화이론에 따르면, ‘영구적 거주’를 전제로 할 때 출신국과 연결된 흔적을 지워내고 이주국의 행동양식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이 이론의 발상지인 미국 내 유럽계 백인 이주자들의 세대 간 적응양상을 이론화한 것으로,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류를 차지하는 연구흐름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비 유럽계 이주자의 미국 이민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전통적 동화이론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Zhou, 1997).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온 새로운 이주자들은 1900년대 초반에 온 구이주자들이 몇 세대를 거치면서 미국사회의 주류계층(White Anglo-Saxon Protestant)으로 동화되는 것과는 다른 사회통합방식을 보였다⁶⁾. 무엇보다 새로운 이주자들은 출신지역, 계층배경 등에 있어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이었으며 적응수준과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윤인진, 2004). 직선적 동화(straight-line assimilation)가 아닌 분절적 동화이론(segmented assimilation theory)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깊다. 이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계층배경, 이주자 집단의 문화적 특성, 민족성원들 간의 연대와 사회적 지원망에 따라서 동일한 구조적 여건 하에서도 이주자 집단 간에 상이한 방식의 동화방식을 형성하는 점이다. 즉 고전적 동화이론이 이주자들의 통합(incorporation)에 방점을 두었다면, 분절적 동화이론은 그 편입의 과정에서 교섭하는(negotiating) 사회적 행위자의 행위자성(agency)과 맥락 적 요인

6) 허쉬만과 펠콘(Hirschman & Falcon, 1985)은 25개의 상이한 종교-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주자 자녀의 교육 성취도는 부모의 학력 수준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고든이 제시한 미국 내 체류기간과 세대변수는 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미 출신 이주자들의 경우 특히 빈곤계층에 속하는 부모의 지위가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주목한 학자들은 이러한 양상을 ‘2세대의 쇠퇴(the second generation decline)’로(Gans 1992), 또는 ‘2세대 폭동(the second generation revolt)’으로 일컬으며(Permann & Waldinger, 1996)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시아계 이주자 자녀 가운데에서는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로 호명되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청소년 갱(youth gang)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착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Zhou, 1997), 고전적 동화이론의 효용성은 점차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의 영향을 강조한다(Levitt and Waters, 2002). 이 이론은 이주자의 적응을 동화 또는 분리로 이분화한 기존 이론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이주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구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절적 동화이론은 1960년대 이후의 새로운 이주자들과 그들의 2세 자녀들의 적응경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 동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⁷⁾. 또한 이 이론은 다양한 적응양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수집단의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내지 못했다는 맹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이주의 배경, 이주국의 수용 여건, 모국과의 관계 등과 같은 구조적, 상황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주자의 적응 양상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윤인진, 2004).

최근의 학자들은 ‘분절적 동화이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주자 자녀들이 일상의 생활영역에서 두 개 이상의 국민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유연한 정체성을 동시에 형성해나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Glick-Schiller, Basch and Blanc-Szanton, 1995).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제시된 ‘초국가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의 개념과 관련 맺고 있는 새로운 시각이다. 이주자가 자신의 고향사회를 떠나 일방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정착되고 동화되기 보다는 이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신국과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상호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주자 자녀들의 ‘초국가적 정체성(transnational identity)’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주자 자녀들이 모국 문화에 대한 학습, 민족적 자긍심의 고양, 공동체와의 교류활동 등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모국과 이주 국 사이의 중간자 혹은 초국가적 주체로서 자신을 위치시켜나간다는 점에 주목한다(Levitt and Waters, 2002). 새롭게 형성된 초국가적 사회영역(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모국과의 관계 단

7) 알바와 니(Alba and Nee, 1999), 겐스(Gans, 1999) 등은 새로운 이주자들의 3, 4대 후손으로 넘어가면 구이주자들이 겪었던 동화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절 및 한 국가에의 귀속을 전제해 온 기존의 시각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주자 자녀에 대한 초 국가주의적 관점을 동화이론과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경계될 필요가 있다(Kasinitz et al., 2002). 이들의 초국가적 정체성은 정착과 (재)이주, 동화(同化)와 이화(異化)의 이중적 작용(dual process)에 따른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Smith, 1998). 뉴욕에 거주하는 멕시코 이주자 자녀들에 대한 연구에서 스미스(1998)는 이들의 초국가적 삶이 1) 미국(혹은 멕시코)의 인종·젠더·계층에 따른 차별적 위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조직화되고 2) 사춘기의 자녀들이 초기 성인기로 접어드는, 즉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단계로 넘어서는 시기에서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3) 이주자로서 자녀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는 부모와의 약속에 부응하려는 시도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동화나 초국가적 연결성은 자신의 삶을 기획해 나가고자 하는 이주자 자녀의 선택에 따라 역동적인 상호작용(dynamic interaction) 속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주하는 개인들은 경계를 넘나들고(border crossing), 초국가적이며 혼성화된(hybridization)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주체로 형성된다(Nonini, 1997). 옹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언급한 ‘상상의 공동체’ 논의를 빌어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 정치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고전적인 국민국가 프로젝트의 목표가 통신수단의 발달과 노마디즘에 의하여 붕괴되었음을 제시한 바 있다(Ong, 1999:2-3). 이주자의 정체성은 장소에 기반 하여 고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닌, 끊임 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지닌 흐름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Appadurai, 2004).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험과 진로기획

1. 이주배경과 그 과정
2. 남한사회에의 초기적응
3. 학교교육과 일 경험
4. 집단정체성과 '우리'의 범주
5.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기획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험과 진로기획

1. 이주배경과 그 과정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 중간 기착지(주로 중국), 남한 세 사회 모두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사회에 대해서 각각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회가 자신들에게 더 적합한 사회인지에 대해서 비교 문화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남한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로 이주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즉, 남한은 당연한 최종기착지가 아니라, 몇 개의 선택지 중 하나인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북한, 중간 기착지, 남한사회의 이미지에 대해 인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험과 해석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1) 북한사회와 이탈동기

계층별·지역별로 다양한 이주의 추동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북한이탈의 가장 강력한 동기로 자리하는 것은 식량난과 경제적 고난이다. 정치적 망명, 자유의 추구가 주요 배경으로 손꼽혔던 과거와는 상이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중간기착지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온 이후 지속적으로 이주로 인한 고충을 겪어오는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배고픔만 아니었다면 북한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한국 입국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 하에 진행된 북한이탈보다, 기아를 면하기 위해 넘어간 중국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남한 입국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H, 28세, 남)

1994년, 1993년도 내가 12살, 13살 때 북의 식량사정이 안 좋아져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어. 먹지 못하니깐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꽃제비들이 굶다가 먹을것을 구하려고 중국으로 넘어오는 거지. 북에서는 먹을 것이 그 당시에 없었고 그리고 있다. 해도 중국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편이지. 중국에서 있다 보니깐 음식도 해결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넘어오게 되지

(B, 22세, 여)

처음에는 저는 여기 올 생각 자체를 못했었거든요. 아예 그냥 내 목표는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한 1년 반을 살다보니까... 일하다가 만난 언니들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언니들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었다라고요... 여기(한국)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중략)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많이 멀어요. 평양에서 무슨 일이 나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막막해질 때 더 이상 앞이 안보일 때 중국을 생각해서 나왔다가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구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팔려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저희는 못사는 사람들 대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B 여성은 집을 나간 어머니가 중국으로 간 후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를 찾기 위해 이주를 결심하게 됐다. 처음부터 남한입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찾으러 간 중국에서 생활하며 주변인들로부터 정보를 접하게 되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가족해체나 부모의 선(先)이주에 의해 자녀의 후속이주를 실행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계층, 지리적 위치 등의 변수에 따라 생활경험과 이주배경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부친이 무역업에 종사했던 사례A 여성과 사례F 여성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사회를 접했다고 말했다. 부친이 직업상 국경을 자주 오가며 영상을 구할 수 있었고, 부유한 가정환경으로 비디오 플레이어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집에서 한국 드라마 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했다. 처음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어느 지역의 드라마라고 생각했던 사례A 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청하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남한에 대한 호기심을 품게 되었다고 말한다.

(A, 23세, 여)

대학교 가서 한국문화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드라마 처음보고..저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저기가 처음에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중국인가? 그냥 아시아..어디라고만 생각하고 처음에는 한국말도 잘못 알아들어어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은 잘못 알아들어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알아듣는 말도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중국 조선족들 그런 영화인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간판들,,어디 나가고 그런 게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저희는 남조선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줄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어디지? 그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 저기 천국 같은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런 환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F, 20세, 여)

저는 북한에 있을 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8개월 있었을 때에도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비 나오고 송혜교 나오는 폴하우스 중국에서 봤는데 그 때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 줄 알았어요.

북한사회의 체제 해이와 경제난 심화가 사람들의 이주를 추동하는 주요한 계기로서 추동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자명하다. 그러나 북한 이주민이 발생하는 이유를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자유를 향한 탈출’로서만 규정하면 이주를 둘러싼 맥락들을 상당부분 놓칠 수 있다. 또한 현재 북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간과하면서 북한을 늘 ‘불변하는 사회주의 사회’로 재현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즉 북한의 변화는 일국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라,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의 종식,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에 따른 중국 경제의 발전, 남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화, 2000년 이후 미국 및 유엔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봉쇄 등이 모두 총체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맥락을 무시한 채 ‘가난’과 ‘통제’사회로서 고정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은 남한의 ‘타자’로서 북한을 규정하는 과정일 수 있다(박서연, 2008).

2) 중간기착지에서의 경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입국 전에 거치게 되는 중간 기착지는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 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한 청소년들에게 중국은 북한 다음으로 친숙한 사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중간기착지로서의 중국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재 생활 및 진로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 도착한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중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감탄한다. 이들은 조선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브로커와 결탁하기도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하여 중국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친척이 중국에 머물고 있을 경우 이 과정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랜 기간 중국에서 생활한 청소년들은 중국을 마치 고향처럼 느끼기도 한다.

(D, 19세, 여)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이나, 여기 남한보다도 오히려 저한테는 중국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제가 9살 때 북한에서 나와서 계속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참 좋은 기억이 많아요. 한참 거기 살 때는 중국어도 꽤 잘했어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사람들은 정말 좋아서 한국에 와서도 잊지 못하고... 잘해주고 그런 게 고마워서.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거기서 신세지면서 살던 중국 사람이 여기 한국 올 때도 많이 도와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같이 지내던 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 아직도 참 고맙고 그래요.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영구적 정착을 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적 체류지위가 야기하는 일상적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계기로서 ‘신분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경찰 검문과 사이렌 소리에 대한 두려움, 강제 복송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처우에 대한 공포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입국결정의 주요 배경이

다. 면접에 참여했던 북한이탈 청소년 중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잡혀 복송된 후, 감옥에서 지낸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또 다른 정보와 소문이 증폭되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 공유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이탈주민들은 더욱 공포와 불안으로 단속을 두려워하게 된다.

(B, 22세, 여)

일단은 항상 편안한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거기서 지내도 내가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게 되게 싫었어요, 일단 한국에 오면 정식 국적을 준다. 공부를 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차피 제가 나와서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거였어요. 그렇다고 또 중국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국적이 없으니까 불법이니까 잡아갈 수 있거든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북한에 데려오라고 이런 거를 뺏어서 잡히면 무조건 북한으로 가야 되요.

그러나 신분지위상의 불안이 이들의 한국행을 유도하는 유일한 요인인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중국과 남한사회에 대해 인식하게 된 이후부터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와 중국에서 미디어를 통해 접한 남한사회의 현재를 보며 다른 체제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남한 관련 뉴스와 드라마, 영화 등의 미디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서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어, 이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 대한 환상과 동경심을 오랜 동안 품게 하였다. 2002년의 한일 월드컵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한류열풍이 한국에 불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경구(?)도 있었다.

(H, 28세, 남)

중국에서 한국을 본 느낌은 정말 환상적이었지. 일단 잘 살고 경제가 발전되었고 88올림픽으로 인해서 급성장했잖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자본주의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정말 5000년 역사에 한국만큼 잘 산적도 없잖아. 환상적이었지. 그래도 우리 동포들이 살던 땅이고 갈라졌지만 말이 통하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N, 22세, 여)

이 삶을 끝까지 모르고 북한에서 살았으면 모르는데, 이게 아편 같은 것(시장체제 속에서의 삶의 경험), 중독되는 그런 거예요. 북한도 지금은 나아져서 막 굶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국에 와도 딱히 북한보다 배불리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여기서 분개 많으니까. (북한으로) 갔다가 백이면 백, 죽을 거 같아도 다 와요. 길을 힘만 있으면 다 와요. 그렇게 많이 일하고 그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서) 내 보내면 또 와요. 사람은 원래 꿈을 꾸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추동되었던 이들의 이주는, 그들이 최종정착지로 상정한 남한사회가 그들의 기대와 부합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면서 또 다른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2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남한사회에의 초기적응

1) 문화적 이질감과 한국인들의 인식

중간기착지에서 이방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안정적인 체류지위, 풍요로움, 따뜻함을 기대하며 한국행을 결심한다. 언어와 생김새가 닮은 한민족이 사는 곳, 경제가 발전된 나라,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선남선녀들이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으로서의 남한사회에 대한 환상은 입국하는 과정 동안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입국을 위해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한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만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과 성취가 중요하고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남한사회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다. 초기 정착기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이 그려왔던 것과는 다른 한국사회, 한국인들

을 접하면서 환상이 깨어지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N, 22세, 여)

저는 한국을 나쁜 것부터 알았어요.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 때 내가 하나원에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가방을 하나 메고 하나원 선생님이랑 병원에 딱 갔는데, 제가 그 때 한국에 침이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따지면서, 참 내가 알고 있는 천당?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느꼈어요.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남한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날 어머니의 교통사고를 겪었던 사례N 여성은 ‘돈’이 안전과 행복의 척도가 되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면모를 극단적으로 엿보게 되었다. 어머니의 사고와 관련된 상대방측은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사례N 여성 측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자 병원은 수술은 물론 제대로 된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쫓아내어 아픈 어머니와 가족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례N 여성은 사고를 당한 개인에게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 정부의 체계에 의아함을 느꼈고, 한국사회가 결코 자신이 기대한 ‘천국’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주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는 현실에서 좌절하기도 한다.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자신은 성공보다는 실패하리라는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무기력감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에 대한 환상이 깨져가는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증폭된다.

(A, 23세, 여)

남한에 왔을 때 딱 나왔더니, 내가 너무 허황된 생각을 했었구나... 처음에 석 달 동안은 밖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구도 없고, 전화기를 구입했는데 전화 할 데도 없고. 북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전화 많이 했거든요,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

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이상해졌었어요. 예민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우울증 같은 거...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눈이 아플 정도로 TV만 봤는데, 밖에 한번 나왔어도 길을 모르니까 알려고도 안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건가?

한편, 북한사회 및 북한사람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현재 한국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피해자화하거나 주변화 하는 담론이 만연해 있다. 다시 말하면, ‘가난’과 ‘질병’의 나라라는 인식, 북한의 사회주의적 정치체계에 대한 불신 등이 그 주요배경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굶주린 자 또는 불쌍한 자로 여기는 한국인들의 시선 즉 동정과 비하의 시선으로 불편함이나 모욕감을 느낀다.

(H, 28세, 남)

여기 와서 느낀 게 좀 많이 언어적인 소통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모욕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나랑 여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옥수수를 가리키면서 “너 저거 먹어 봤지” 라고 물어봤는데 충격적인거지. 사탕을 가리키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나를 완전히 뭐라고 보는 건지 화도 나기도 하고. 북한이 못 먹고 못 살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말이지.

남한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의사표현방식 가운데에는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더욱 많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사회의 그것과 다른 남한사회의 방식을 엿보며 그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나름의 해석을 해보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낯선 사회의 새로운 규칙(new rule)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문화 환경에서 옮겨온 이주자들은 일상적 적응은 물론 자신의 안정적 지위확보 및 발전을 위해 기민한 태도로서 이주국의 방식을 관찰하고 실천한다.

(B, 22세, 여)

더치페이라는 그런 게 참 생소해요. 교육을 다 받고 나왔어요. 그때 친분을 맺은 애들이 다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아 여기는 이렇구나. 그리고 제가 서 서울 거기 다닐 때 영어공부를 하려고 같은 반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영어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얼마 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힘든 게 시간 관리예요. 저희는 시간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돼요. 계획표를 써 놓고 저녁에 들어와서 체크해보면 50프로도 못한 것 같아요.

시간, 돈 등을 꼼꼼히 관리하여 낭비하거나 흘려보내는 부분이 없도록 생활하는 것은 이들이 보는 남한사람들의 대표적인 생활태도인 동시에 자신들이 습득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금전에 엄격한 남한사람들의 태도에 불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생활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도 그와 같이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규율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꾸준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생활양식을 완전히 습득하기 어렵고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드는 시점부터는 회의감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본격적인 진로 모색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2) 가족관계의 변화

난민, 이주노동자 사례를 불문하고, 이주는 가족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Sluzki, 1979; Falicov, 1998). 모든 사회를 통틀어 부모는 자녀의 안내자로서 역할 하도록 기대 받는다. 이주는 부모가 자녀를 유능하게 호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부모의 “경험의 지도(map of experience)”를 뿌리부터 침식해버림으로써, 새로운 문화(new culture)에서 부모의 역할을 빼앗아 가버린다(Hoffman, 1989). 부모가 갖고 있던 숙달된 지식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효용성 없는 노하우로 전락하게 되고, 역동적인 새 사회의 질서와 교섭해나가야 하는 자녀들을 돕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A, 23세, 여)

여기 와서 처음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엄마랑 맨 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9월 달에 왔는데 아빠는 11월 달에 거기서 뜨셨거든요. 그래서 4월에 한국에 오셨는데... 엄마랑 그 동안에 맨 날 싸웠어요. 엄마가 너 이상해졌다, 한국 와서... 우리가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잘 살려고 왔는데, 너 성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H, 28세, 남)

지금 나랑 영감(아버지)이랑 살아. 우리 영감이랑. 이제 밖으로 나가 살아야지. 남자 둘이 살아봐. 별로 안 좋아. 나한테 그렇다고 잔소리 하거나 별 말하는 편은 아는데 부딪히는 게 많아. 중국에서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잖아.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사니깐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같이 산지 1년 밖에 안됐거든. 지금 많이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했어. 내 의견이랑 영감 의견이랑 다르니깐.

한쪽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변화를 염려하는 동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새로운 문화가 선사하는 매혹에 쉽게 이끌리며 스스로 변화하고자 한다.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빠른 ‘적응’으로, 조속히 새 사회의 청소년과 유사한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여 자신도 또래집단의 일원이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주민인 또래집단(native-born peers)의 관습이나 열망뿐만 아니라, TV와 영화매체가 선사하는 매혹은 “현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상의 강력한 모델로서 작용한다.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초기 적응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난 후에도 TV시청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남한사회에 지인이 많지 않고 갈 곳이나 할 일이 급박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집에서 TV시청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TV를 통해 남한사회의 대중문화를 비롯한 최신 트렌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I, 18세, 남)

아침에는 밥 안 먹고 그냥 나와요. 거의 TV 보면서 밤새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밥맛이 없어서 그냥 나와요. 만날 밤 세고 TV 보고 그래서 저녁도

거의 다 안 먹어요.

I는 집에서 주로 TV를 시청하다 저녁이면 허락 없이 어머니 차를 운전해 친구들을 만나러 가곤 한다. I는 그것을 ‘그냥 재미있는 일’이라고 지칭하지만 이로 인해 I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다. 한국 법상 미성년자인 I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다, 또래와 어울려 차를 타고 나간 후 사고를 내 경찰서에 잡혀가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과 학교생활에 이렇다 할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I는 저녁에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 내 갈등을 낳고 있다.

(F, 20세, 여)

지금 엄마는 새아버지랑 살아요. 저는 동생이랑 화곡동 근처에서 살아요. 엄마랑은 가끔은 연락 하는데 별로 만나지는 못해요. 가끔 와서 용돈 주기는 하는데 그 때만 모여서 얼굴 보지 명절 때에는 오지도 않고 그냥 놀러 다녀요. 특별히 별로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엄마는 연락해서 뭐 하라고만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북한이탈을 전후로 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은 북한이탈 청소년 가정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나타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별, 이주 등으로 헤어진 후 중국에서 머무는 동안 중국인 이성이나 조선족을 만나 재혼하는 사례는 많이 발견되고 있고, 한국에 입국한 후 재한 조선족과 재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족해체와 재구성의 반복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북한이탈 청소년 연결망 및 남한 사람들과의 교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중간기착지에서의 지인⁸⁾, 하나원 동기, 일반학교/대안

8) 특히 영사관에서 만나거나 탈북과정에서 함께 한 이들에게 가족에게 느끼는 애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친구,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한국생활을 이어나간다. 그 관계의 폭과 깊이는 개인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꾸준히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가급적 북한이탈주민들은 멀리하고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도 있다. 그러나 남한사람들과의 친교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친분과 인맥이 쉽사리 형성되지는 않는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그 요인으로서 자신들에 대한 남한 또래들의 편견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등을 지적한다.

(O, 22세, 남)

셋넷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애들도 몇 있고, 그냥 말 하는 애들도 있고, 아예 말 안하는 애들도 있고. 밖에 친구들은 아예 없어요. 한국 애들 친구는 못 사귀었어요. 한국 애들은 만날 기회가 없어요. 가끔 학교 프로그램에서 학교교류 같은데서 만날 일이 있는데, 근데 안 친해요. 한국 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이 먹은 애들은 안 그러는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다가 올 생각을 안 해요. 대학생들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고등학교 애들은 탈북자라고 하면 개네들한테 쪽팔리잖아요. 너는 이런 거 해 봤냐 물어보고 그러면 열 받아서 싸움질 하고.

의욕적으로 한국 또래들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례O 남성은,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불편함⁹⁾을 경험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편견어린 발언들의 반복은 당사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러나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다 편안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다.

북한이탈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지속하고 있

9) 남성의 경우 또래의 남한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자신들의 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박탈감은 고스란히 갈등과 불편함으로 치환된다.

다. 왜냐하면, 어렵고 절박한 상황의 공유는 더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했던 이 사람들과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 못 하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소통하며, 한국에서도 관계를 이어나아가게 된다.

(G, 20세, 여)

2004년 베트남 영사관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 때 영사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내요. 특별히 만나는 거 아니지만 뭐 아는 언니 생일 있다거나 그러면 나가서 만나고 그래요. 이번에 서울대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아는 언니가 있는데 오면서 친해졌어요. 뭘 일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그래요.

한국 입국시기가 비슷하고 남한사회 초기 적응과정을 같이 했던 하나원 동기들 또한 이들에게는 가장 친밀한 존재들이다. 사례H 남성은 하나원 동기들 사이에는 ‘믿음 같은 게 있다’고 말한다.

(H, 28세, 남)

정보를 제일 많이 주고받는 게 우리 사람들(하나원 동기)인 것 같아. 대입정보든 여러 이야기들. (셋넷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정보를 받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믿음 같은 게 있으니까. 물론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다 만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원 기수라는 게 있어. 내 같은 경우는 94기 거든 나이랑 상관없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끼리 같이 묶어서 조사받고 그리고 나오거든. 아무래도 같은 기수니까 자주 얼굴 보고 그 중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거고 그렇지 뭐. 생일이면 만나기도 하고 다 같이 모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따로 따로 라도 만나고.

일반학교에서 만난 남한학생들과 교사에 대한 경험 역시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편이다. 자신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었다는 것이다. 불량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학교에 얼마간 적을 둘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의 보살핌과 지지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북한이탈 청소년

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같은 반의 다른 청소년들과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라며, 눈에 띄는 주목받는 학생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F, 20세, 여)

애들이 나 북한 출신인거 다 알았어요. 나는 별로 신경 안 썼지만 잘 해줬어요. 몇몇 날라리 애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말로 욕하고 막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참았죠. 그래서 싸움은 안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 이랑 친구들이 도와줘서 많이 참았어요. 또 학교 친구 엄마들이 많이 집에 와서 우리 고모랑 친하게 지내고 그랬어요. 그 학교에서 내가 처음으로 북한 애로 학교 다닌 거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예뻐해 줬어요. 따로 불러서 밥 사주고 연락하고 그리고 선물 사주고 영화랑 뮤지컬 보여줬어요. 지금은 연락을 제가 안 하는데 내가 아는 애들 두 명이 인제는 학교 다니거든요. 그런데 개네들은 애들이랑 막 싸우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내 이야기 하면서 참으라고 언니는 참았다고 한대요.

(G, 20세, 여)

나는 보통 한국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잘 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날라리 애들한테 괴롭힐 당할 때 느꼈어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만나자고 해서 부담돼요.

셋넷학교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 다닐 때에 겪었던 시선주목이나, 자신을 신기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 측면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셋넷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셋넷학교와 학교 외 단체가 주최하는 다양한 캠프와 행사에 참가하며, 남한 학생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게 된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남한사람들과의 교류에 집중하는 청소년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남한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북한말투, 북한식 생활양식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거리를 두며 생활한다. 특히 북한에서 자신의 계층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상층에 속했던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위치를 남한에서도 이어가

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남한사회에서 이렇다 할 성취를 이루지 못한 채 방황하는 다른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게 된다.

(A, 23세, 여)

저는 북한 친구들과 만날 기회는 있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면서 겪은 일도 있고 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북한사람을 알고 지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한국인이다. 나는 집안에서 이제 말도 사투리도 다 고쳐서 밖에 나가면 완전 한국사람 되고 다 고쳐서 누구도 티 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말도 엄청 빨리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복지관 같은데 다니면서도 제가 자격증을 두 개를 땀거든요, 워드랑 엑셀을 땀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삐뚜루(비뚤어지게)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거기서는 한명도 안 친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자존심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 있을 때도 잘 살았고 대학도 나왔는데, 솔직히 내가 거기 있었으면 평생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 이니까... 왜냐면 저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저의 급이 툭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북에서 온 애들 중에서 여자애들 중에서 길을 잘못 든 애들이 있어요. 좀 질이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랑은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 중에는 북한사람, 남한사람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도 있다. 두 집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상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가 접촉과 이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원을 거쳐 사회에 나온 지 2년차에 접어든 사례B 여성은 M센터에서 이뤄진 계획단 멤버로 활동하며 ‘핸드폰 매뉴얼 만들기’ 프로젝트를 등을 진행하는 등 이러한 중간 매개역할에 열심이다.

(B, 22세, 여)

저희가 지금 계획단 3기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에 온지가 좀 되니까. 남한 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을 잘 모르고 북한 학생들은 남한 학생들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그 가운데 역할을 하려고 만든 단체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우리 활동이 새로 오는 친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현재는 핸드폰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금방 왔을 때 핸드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떤 걸 사야하는지 그런 거.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미도 있고 저도 사실 많이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센터에 현재 계획단이 열 명 정도 있어요. 하나원을 거쳐서 사회에 나온 게 작년이었던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미 계획단 2기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나와서 공부하다가 추천을 받았어요.

3. 학교교육과 일 경험

1) 북한 및 중간기착지에서의 교육과 노동경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학업의 어려움은 먼저 북한이탈을 전후로 한 오랜 학업단절에서 비롯된다. 북한사회에서의 계층적 지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는데, 중상층 계층에 속하며 평양지역에 거주했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만, 북한 북부지역에 거주했던 청소년들은 지역 일대에 만연해 있는 경제난으로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북부 지역에 거주했던 사례N과 사례M 여성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N, 22세, 여): 맞아요, 맞아요. (자신이 학교에 다니던) 97년도, 98년도... 그 때는 전체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도 안 가르쳐요. 학교 가도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학교 안 나오고 돈 벌어 나가고. 그 때부터 시장이, 물건 팔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M, 22세, 여):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난 놀러 갔어

요, 완전. 학교 가면 애들이 서로 잘 먹는 거 신경 쓰고. 공부하면 너 뭐 하리 공부하냐 면서 왕따 시키고.

(N, 22세, 여): 먹고 살만한 집 애들이 공부도 잘 해.

(B, 22세, 여)

학교를 초등학교 4학년 다니고 중학교 1학년 중퇴했거든요. 상층과 하층은 북한에서도 완전히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요. 저는 거기서 완전 하층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사는 곳도 구분이 거의 되어 있어요. 지역도 구분이 나고, 같은 고장에 산다 해도 달라요. 먹을 것, 주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해요. 엄마랑 같이 살 때부터 별로 잘살지 못했고, 학교 안다니는 이유가 돈이 일단 없었고, 학교를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한 학기에 얼마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한다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마련해 보겠는데, 하룻밤 자고 학교만 가면 얼마 내라, 연구실 꾸미는데 얼마 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 못 내면 왕따예요. 그리고 옷을 교복을 입기는 하는데, 체육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 입고, 신발도 본인이 사 신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내면 애들한테 밀려요.

사례B 여성의 이야기에 따르면, 등록금 외에도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자신은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례G의 경우에도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사를 병행하며, 일찍 생계를 위해 뛰어야 했다.

(G, 20세, 여)

집이 어려워 인민학교 다니면서 바로 장사 했어요. 그런데 수학이랑 사회 국어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사회랑 국사는 여기서도 잘 하고 좋아하는데 영어는 정말 못해요.

초등교육과정에서 학교 밖을 나선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중국 등 중간기착지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학교 밖에 머물게 된다. 그 이유로서 불법적인 체류 지위 상 정식학교 입학이 어려우며, 낮 시간 동안 달리 할 일이 없고 생계로 인한 부담이 일상적으로 만연하여 어린 나이에도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수밖에 없다. 간혹 중국에 오래 머물렀거나 중국에서 어머니가 한족

남성과 재혼하여 호적이 변경된 경우, 중국 학교에 재학하며 정규 학교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으나, 전체 비율로 보았을 때는 한정된 사례이다.

(F, 20세, 여)

저는 중국에서 8개월 살고 그리고 몽골로 갔어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데 집에서 있기에 좀 그래서 용돈벌이 겸 근처 한 식당에서 일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막 나간 거 같았어요. 조금 있으면 한국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조용히 지내야 되고 그렇다고 중국어를 할지도 몰랐는데 그냥 식당가서 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빙하고 취한 사람 토한 거 치우고 그런 일 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관리 했어요. 일을 잘해서 그런지 주인이 다 맡기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제 밑으로 한족 애들도 있었고 조선족 애들도 있었는데 다 친해져가지고 일하고 나서 매일 술 먹고 그랬어요. 엄마가 처음에는 일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일하는 거 동생이랑 보러 오더니 믿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줬어요.

(O, 22세, 남)

그냥 공장에도 있다가 또 식당에서 7개월 정도 식당에서 일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만의 학습법을 익혀야 할 유년기,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 돌아와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몸은 이미 성인이지만 기초지식 면에서는 중학교 과정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과 공부를 함께 하는 어려움은 물론, ‘머리가 굳은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니 학습이 몸에 익지 않아 습득이 더디다.

(H, 28세, 남)

12살 때부터 공부 안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여기 와서 28살 먹고 공부하려니 잘 안되지 10년이나 넘게 공부를 냈는데 될 일 있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에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먹을 것도 없고 공부할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를 안 한 게 후회가 돼. 그래도 거기서 공부 한 게 도움이 될 때 가 있는 것 같거든. 우리는 인민학교

가 있는데 인민학교는 4년이고 중고등학교를 6년 다녀.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를 2년만 다니고 말았지. 아버지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그만 두었지. 아버지가 공장 다닐 때 까지만 해도 학교는 다녔는데 그 때가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니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동안의 학업단절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은 북한이탈 청소년 거의 모두 경험한다.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은 비단 학교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 내용 이해수준 뿐만 아니라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과정이나 진로준비에 관련된 직업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2) 남한에서의 학교생활과 대학진학

남한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바로 ‘언어장벽’이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와 역사의 뿌리를 지니고 있지만, 반세기 동안 단절되어 생활하는 동안 각각 언어체계와 표준어 기준이 많이 변화되어 서로에게 없는 단어와 표현은 물론,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맥락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북한사투리’로 통용되는 북한말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배경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남한학교 친구들과의 소통 및 교육내용 이해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E, 18세, 여)

저는 일반학교 다닌 적이 있어요. 아주 엉망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말을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많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했고, 억양이나 단어, 여기서 쓰는 거랑 틀려요. 그런데 틀려가지고 대화를 되게 안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들겠어요. 이제 (다시) 학교가기 시작하면은 고생이 시작이에요.

사례E 여성은 결국 일반학교를 나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로 옮겨왔다. ‘북한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이곳은 그녀에게 안락한 울타리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는 다소 힘이 들더라도 일반학교에서 꾸준히 생활하는 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이로울 것

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녀는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고입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B, 22세, 여)

안 그래도 한국 사회를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끼어들려고 하면 되게 부담한 거예요. 기초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붕 뜨는 것 같고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항상 막 공부할 나이에 다른 애들이 책가방 매고 노래 부르면서 학교 가는데 저는 지게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고 그랬으니까 그걸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나이 있고 오랜 동안 공부를 손에서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남한에서 일반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지속하는 데는 기초지식 부족과 공부에 대한 흥미부족, 학습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크다.

(O, 22세, 남)

제일 싫어하는 게 좀 골 아픈 국어, 수학. 수학은 좀 나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이해가 되요. 그런데 그 다음날 혼자 풀려면 이해가 안 돼. 국어는 워낙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야 하잖아요. 글하고도 친해야 하고. 그런데 그걸 다 하나하나 이해해야하니까 힘들어요. 시험 볼 때 싫어요. 왜냐면 문장이 많잖아요. 그걸 다 읽어야 하고, 지루하고. 수업이 재미가 있어야 잘 할 텐데 흥미도 없고, 얘기를 해도 모르고. 공부가 안되죠. 책 일단 안 봐요. 원래 책을 봐야 하는데, 책을 봐도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인터넷에서 있는 글은 일단 간단하잖아요. 책 같은 것은 글이 길잖아요. 그것은 내가 수준이 안 따라줘요. 힘들어요. 암기과목은 잘 해요. 국사나 영어 같은 거. 검정고시 볼 때 암기과목 해가지고. 일단 뭐가 술술 풀려야죠. 문제가 안 풀리면 짜증나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남한 또래들과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입시 서류를 착실히 준비하면 소위 한국에서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대학입시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한번쯤은 대학에 입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다. 주변에서 대학에 입학한 후 도중에 공부를 쉬거나,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며 나오는 모습을 어렵잖게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방대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대학공부는 중, 고등학교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습량을 요구한다. 문제는, 그 학습량이 기초지식이 없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F, 20세, 여)

내년에 고검 보고 대학 갈 생각은 아직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주위 언니 오빠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울대 경희대 한양대 들어가는 데 가서 다 휴학하거나 힘들어해요. 그래도 그 언니 오빠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적응 못하는 거 보면, 내 주위에 한명도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되게 시간낭비 인거 같아요.

(B, 22세, 여)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에 제가 갈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될지는 한 번도 생각도 못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겠다. 정말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공부만 했어요. 영어도 처음 a,b,c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사실 제가 북한에서 원래 학력대로라면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는데 검정고시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검, 고검1년 새에 다보고 지금은 대학입시 준비하고 있어요. E대 특수교육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아이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 망설임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결국 많은 이들이 대학진

학을 선택한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남한에 온 사례A 여성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남한에서 다시 대학에 지원했다. 학업을 꾸준히 이어왔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그녀는, 한국에서 직업인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대학공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입학에 포기하는 후배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고난을 겪더라도 반드시 대학을 졸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A, 23세, 여)

저는 종종 금방 온 애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무조건 대학을 가라. 우리는 정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잡아라. 근데 안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거의 안가요... 물론 저쪽 하고 문화나 분위기가 많이 틀려서 대학 다니기가 힘들겠죠. 적응도 안 되고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가 참 무서운 게요,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가는 대학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니까 좀 부담감도 있고.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정말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해야 하는데 일단 기초가 없으니까.

3) 남한에서의 일 경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또는 학교에 나가지 않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들은 대체로 중간 기착지 등에서 일찍이 일을 해 본 경험을 갖고 있어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 남한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기존의 일 경험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범위 대부분 공장이나 시장에서의 3D업이나, 술집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서비스업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F, 20세, 여)

나는 중국에서 그렇게 일해 봐서 지금도 여기 와서 술집에서 일해요.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고 시비 걸 때도 있는데 별 신경 안 쓰고 일해요. 사람들 하

고 만나는 거 재미있고 또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깐.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요.
술 많이 먹어도 끄떡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습하는 것은 비단 아르바이트 수당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이주자인 동시에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연령대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관념을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나 사고 방식을 성찰하게 된다.

(B, 20세, 여)

남한에 사는 북한 남자애들 가장 큰 문제가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세요. 제가 고기 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한번은 아는 친구를 저희 식당에 소개를 시켜 줬어요. 근데 애가 하루 일하고는 다음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고... 왜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고기 먹고 자기는 그 사람들 심부름 해줘야 하냐고. 저는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 같아요. 아니 저희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왜 그런 것 까지 생각하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H, 28세, 남)

한국에 처음 와서 일자리를 구한 곳이 가락시장이야 가락 시장일이 힘들거든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했어.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한 적이 많지. 일을 힘들고 처음에는 돈도 생각보다 많이 안줘. 근데 거기 조합회장님이 나를 좋게 봐서 자기 밑에서 1년만 일하면 자기 자리 점차 물려준다고 했거든. 거기서 더 일할 생각은 있었지만, 어차피 나는 배울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었으니깐 1년 일하고 그만 두었지. 하지만 그 때 정말 열심히 일 했고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많은 물리적, 정신적 고충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나 상처를 지니고 있다. 남한사회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가난과 불법체류로 힘들었던 시간은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 북한이탈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경험 때문에 당분간은 ‘고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대체로 자존심도 세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사례B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불필요한 자존심의 날을 내려놓는 것을 배웠다고 하고, 사례H 남성은 남한에서의 고된 일 경험을 통해 이곳에서도 어떤 일이라도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4. 집단정체성과 ‘우리’의 범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선과 위치를 경험하게 된다. 동일한 혈통을 지닌 한민족으로 여타 이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남한사회에 포섭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대학입학 특례 등으로 인해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 자신 역시 북한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에 대한 거리두기를 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이내 자신의 국가정체성이나 소속감이 남한주민의 그것으로 쉽게 전환되지 않는다.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자신의 위치나 집단정체성이 변화하고, 새로이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남한주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복잡하고 비고정적인 형태를 역동적으로 띠게 된다.

(D, 19세, 여)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도 아,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그런 생각 처음에는 안했어요. 솔직히 북에 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도 교육을 심하게 받으니까 그런 생각 전혀 해 본적이 없거든요. 거기서는 아예 한국이란 건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얘기는 하는데 남조선 못산다,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재하고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서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전에 학교수업에서 역사를 배우는데 원래는 우리가 진짜 한민족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O, 22세, 남)

저는, 한국인인가라는 질문에는 “한국인이죠”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워낙 살던 생활이… 여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본주의의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약간, 어느 정도 틀린 면이 있잖아요. 개네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막 쓰잖아요. 한글 영어… 좀 어려운 말들… 알아듣지도 못하죠. 오래 살면 알아들어도 처음 오면, 그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다가도 못 알아 들어서, “이게 뭐니까?” 하면 “아 당신 그것도 모르냐” 고… 그럼 그 사람을 쓰겠어요? 찢라 버리지… 회사 들어가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 해” 했는데 이걸 못하면…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사람이 잘 못하고 그러면 짜르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뭘 시켜…

사례D 여성의 이야기처럼,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에 남한사회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나, 접한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처음 남한에 입국한 후 여러 혼란과 거리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입국했다고 해서 바로 ‘한민족이다’라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한편, 사례O 남성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인식할지라도, 주변의 ‘한국인’들이 구사하는 용어나 생활양식을 잘 몰라 남한생활이 어느 정도 누적된 지금에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 말로만 한국인일 뿐, 보통의 한국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데, 특히 직원선발 과정에서 자신과 같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지원자가 보통의 한국인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직업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징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배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 20세, 여)

나는 보통 한국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잘 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날라리 애들한테 괴롭힐 당할 때 느꼈어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만나자고 해서 부담되요. 가끔 중학교 애들이 연락 와도 그냥 얼굴 보자고 하고 더 이상은 안 만나요. 내가 너무 소심한 거 같아요.

‘다름’에서 비롯되는 고민, 보통의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고민은 다른 인터뷰어들과의 면담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부분들이다. 사례G 여성의 이야기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이 남한사회에서 대단한 뭔가를 이루거나 성취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남한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다시 말하여 평범하고 튀지 않는 사람이기를 기대한다. 남한에 온 이후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을 특별히 신경 쓰는 교사들과 자신을 놀리는 동년배들과의 관계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나는 보통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이러한 이주 초기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남한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염려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A. 23세, 여)

짜증날 때가요. 꼭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축구경기 할 때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냐..그건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중립이잖아요. 저희는..그래서 저는 아예 안 봐요. 근데 저희 엄마는 완전히 한국 응원하고..근데 그것도 또 듣기 싫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0년도 더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불쌍한데, 그래도 응원해라. 그러시죠..북한이 잘하면 저희도 솔직히 자랑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질문과 사소한 몇 마디 말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파장을 남기곤 한다. ‘너는 어느 나라가 더 좋으냐?’, ‘축구경기를 한다면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이냐?’ 등과 같은 질문은, 비록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인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거리를 좁혀보기 위한 이야기 소재 중 하나에 그칠지라도, 질문 받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는 많은 여운의 파장을 남긴다. 이러한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일상적으로 자신을 북한사회에 연결 지어 인식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태도에서 자신이 ‘이방인’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더 많은 감정이입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사람 티를 안 내는 것’은 이들 북한이탈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언명령처럼 자리 잡고 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소한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의 말투나 분위기가 한국인과 다르게 보여질까봐 긴장하고, 새로운 집단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될 때도 혹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자신을 멀리하게 될까봐 가급적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애나 결혼에 관해서도 이들은 한국 청년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고민을 일찍이 안고 있기도 하다.

(A, 23세, 여)

...만약 남자 부모님 고향이 저쪽이면 저를 반가워는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자기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가족이 다 그쪽에 있고 좀 어차피 전혀 안 보고 그 사람만을 딱 보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가정환경, 어떻게 자랐나 같은걸 보니까.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공통적으로 품고 있다. 그 이유로서 정부에서 매달 지원되는 생활비와 대학입학시의 특례제공 등이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점에서 남한주민들에게 빚을 진 듯한 기분을 지닌 채로 살아가고 있다. 남한에서 생활하며 한국인들이 경제, 교육, 취업 등의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목격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주변의 한국인들 가운데에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쉽게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느냐?, 왜 우리의 세금으로 정부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느냐?”라는 불만 어린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항의성 발언은 북한이탈 청소년 선배나 친구를 통해 모두의 귀에 들어가게 마련이어서 누구랄 것 없이 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A, 23세, 여)

제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요, 한번은 그 오빠가 대학에서 돌 맞을 뻔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한 학기에 500 꼬박내면서 공부하는데 왜 저딴 애들

우리학교에서 공부시키냐고 왜 북한 애들 우리학교에서 공짜로 공부하냐고 그러면서 학교에 막 항의들이대고 그래서..대학 특례입학도요.. 들어갈 때는 저희가 특례를 받아서 가지만, 들어가서 상황은 똑같잖아요. 근데 대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도 재네는 공부도 안하고 다닌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일단 특례를 받아 들어간 거는 미안해요. 하지만 들어가서 졸업하는 애들은 그만큼 노력이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한 애들은 특례로 들어가서 애는 공부안하고 들어간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들어가서 공부 안하면 예프 맞아서 떨어지는 거는 다 똑같고, 저희가 교수님한테 특별히 점수 받는 것도 아니고..솔직히..탈북자들이 그런 거 많아요..일하기 싫어하고, 집이 없으면서 차사고 그런 거 많아요..나부터라도 내가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열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대준 사람이 다 잘 살고 잘 정착하고 잘 살면 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도 열 받을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요.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A, 23세, 여)

근데 솔직히 저는 남한사람들이 왜 우리가 북한 사람한테 돈 대줘야 하나? 불평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힘들게 살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좀 미안한 게, 저희가 대학을 좀 특례를 받아서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 가서도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더 티를 안내려고. 새터민이라는 티를 안내려고..아무리 친구라도 그런 특례를 받았다는 게, 한국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저희가 아니까요. 미안해서 말을 더 못하겠어요. 특례받아서 들어왔다는 말도 못하고. 새터민이라면 다 알잖아요? 특례를 받아서 들어왔다는 거를. 그러면 친구 사귀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친구사이에 벽이 생기기도 할 것 같고. 그 애들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 저희는 다 명문대가잖아요.

북한과 남한을 구별 지어 사고하는 방식을 많이 접하면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관한 생각이 궁금해져 직접 물어보았다는 사례B 여성은 대체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경

제적으로 낙후된 북한과 남한이 한 국가로 통일될 경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비용과 북한주민들의 사회복지 등을 남한주민인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후에 통일하는 것에는 찬성한다’와 같은 중도적 발언은 오늘날 남한 청년들이 내재하는 실용주의적 사고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B, 22세, 여)

보편적으로 볼 때 통일을 원하는 애들보다 그냥 이대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한 애들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솔직히 통일됐으면 좋겠냐? 8명 정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세 명은 되면 좋지 북한에도 가보고..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통일을 진짜 아파서 원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에 그런 애들이 있고. 통일되면 우리나라 못 살 것 같아, 왜냐면 북한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 중에 좀 깐 애들은 통일이 되기 전에 북한이 어느 정도 잘살게 돼서 그 상황에서 통합하면 되겠다. 그런 애들은 되게 앞서서 생각하는 거죠.

사례A 여성은 자신들이야말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통일은 실리에 따라 통일의 가치를 판단하는 남한 청년들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A, 23세, 여)

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론 두려운 것도 있어요. 남한, 북한에서 저희는 가운데거든요. 둘 다에서 살아보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남한도 결국은 북한이랑 통일을 하면 우리 입장이 제일 곤란해 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통일이 되어 친척들 다 만나고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더 이상 우리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를 한국 사람처럼 받아들여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넓게... 제 친구랑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통일되면 북한에서 받아들일까? 한국도 입장이 난처해 질 것 같고... 외국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냐? 저는 북한에 가서 땅 살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서도 안살구요 외국 나가서 살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 살고 있는 현재에도 여러 곤란한 순간들이 산적해 있지만, 통일이 된 후에는 더욱 그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판단이다. 북한사회의 체제를 거부하고 ‘이탈’해 온 사람으로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으로서, 이들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로부터 자신에게 날아 올 비난이나 원망을 두려워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자신은 영원한 이방인 같은 소외된 느낌을 어깨에 지고 생활하지만,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은 북한보다 남한에 가까운 인물로서 간주되어 그 어느 쪽도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사례A 여성의 생각이다.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 3국, 외국으로 떠나 생활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기인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제3국으로의 이주를 자주 꿈꾸기도 하고, 자신은 이미 여러 국가를 거치며 생활해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되든지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끝없이 방랑해야 한다는 처절한 현실을 잘 간파하고, 계속되는 이주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B, 22세, 여)

추억이 저희는 남한에 대한 것이 없고, 추억이 있다면 진짜 고생스럽게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봤다. 저는 한국에 와서 시험밖에 본 게 없어요. 어릴 때 뛰놀고 그러던 추억이 생각나서... 북한에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솔직히 남한에 정 같은 게 없어요. 특히 저는 가족이 없어서..남한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저희의 어린 시절이 여기에 없잖아요. 추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좀 낯설어요. 진짜 내 나라다 뭐 이런 느낌은 없어요. 나중에 여기서 생활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 친구는 여기 온지 6년 됐거든요. 고향 같대요. 우리는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 4월, 9월에 왔으니까...

‘추억이 없는 낯선 나라’로 남한을 설명하는 사례B 여성의 말은 모든 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뿌리 뽑힌 자(uprooted)’로서의 애환을 잘 드러

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자신에게 익숙한 풍경과 사람들이 스며있지 않은 이곳은 아직은 외국처럼 낯선 타향일 뿐이다. 남한사회에 온 지 6년 된 친구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그녀는 자신에게도 언젠가 남한사회가 자신의 고향처럼 느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 남한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제 3국으로 이주는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이야기도 이들 사이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다. 사례A 여성은 그와 같이 또 다시 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결함이나 노력부족으로 한국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남한사회 정착에 실패한 ‘낙오자’들이 실행하는 것이 제3국으로의 재이주이며, 정착금이 다 떨어지면 다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생계비를 타 쓰고 있기 때문에 긍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23세, 여)

요즘에 외국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어학연수 식으로나 가면 가지... 어차피 저는 여기서도 정착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는 애들은 다 정착을 못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간다고 해서 더 정착이 잘될 건 없어요. 여기서 가져간 돈을 정착금이 다 떨어지면 거기에서 난민으로 가장해서 돈을 또 받아먹고 그러다 돈이 또 떨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정착을 못하고, 떠돌이죠. 한곳에서 일단은 정착을 잘 해 봐야 해요 그래서 기반을 잡고. 저는 여행이나 가고 싶지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사례B 여성의 생각은 그와 좀 다르다. 재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낙오자로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 그 자체를 분명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상 아무리 본인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평생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고, 언어의 유사성이나 동일한 피부색과 같은 요인들은 역으로 미묘한 차별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언어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타국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으로 일컬어지는 재중동포보다 더 못한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그녀의

지적은 많은 상징을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족은 남한주민보다 지위나 능력이 낮은 차원에서 대접받지만,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보다는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B, 22세, 여)

요즘 외국으로 가는 북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는 딱히 정착을 못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남한에서 살면 항상 탈북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살자.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여기서 정착을 못해서 가는 사람들이겠지만, 저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항상 뉴스에서 새터민 어찌고저찌고. 잡지 같은 데 봐서도 그렇고. 항상 새터민이라는 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진짜 싫어요. 나는 여기서 평생을 그냥 탈북자 새터민으로 늙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게 싫으면 저도 나갈 수도 있겠죠.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나가기 싫어요, 솔직히 한국은 웬지 친근감이 많이 느껴져요. 말도 통하고 어딘가 모르게 타향이다 이런 감은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나마 조선족 있어서 말은 많이 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하고 조선이란 민족이 많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그랬고요. 솔직히 영국 나가는 친구들 보면 왜 여기서 정착 못해서 가나, 거기 가서도 잘 살겠어?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항상 따라다니는 신분차이... 어찌 보면 탈북자들을 중국 동포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교포들은 한국에 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들은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고 이런걸 알기 때문에 재네 뭐냐. 중국 애들은 오히려 세금 비싸게 내고 와서 돈 벌러 온 건데, 재네는 뭐냐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열 받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례D 여성은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또 다른 외국으로 이주해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국가를 거치며 힘겨운 이주를 실행해왔기 때문에, 또 다시 짐을 꾸려 다른 나라로 거점을 옮기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부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D, 19세, 여)

요즘은 해외로도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영국으로 가는 게 유행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가요. 어차피 거기 가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여기서는 좀 생활했고 말도 통하는데 그냥 지내지 왜 가나?..제가 보기에는 남한이 차라리 외국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일단 말도 통하고 하나까..외국가면 말도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하나까 힘들잖아요..여기는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5.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기획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다양한 꿈과 장래희망을 품고 있다. 예를 들면, 엔지니어, 디자이너, 교사, 사회복지사, 스타일리스트 등 그 직업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민 주변에 구체적인 역할모델을 갖고 있거나, 그 직업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은 추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차원에서 해당 직업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F, 20세, 여)

학교 들어와서 고검을 보려고 하는 데 특별히 가고 싶은 대학은 없어요. 대학가서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옷에 관심이 있으니까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디자이너 학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학교 들어온 거예요. 영어는 정말 못했는데 정말 필요하니까 지금은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자이너 하려면 영어는 잘 해야 된다고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런 말해서요. 우선 고등학교 시험 보고 나서 생각하려고요.

(K, 19세, 여)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평소에 꾸미는 거 옷 같은 거나 화장 좋아 하거든요.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인터넷 하면 그것만(옷이나 화장) 연예인들 입고 다니는 거나 그런 것만 맨날 봐요. 그래서 전문대에 뷰티 쪽 같은 데로 갈까 생각도 해 봤어요.

옷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꿈꾼다거나, 치장과 화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뷰티를 전공하고 싶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직업군을 성취하거나, 자신이 반드시 하고 싶은 커리어를 찾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남한사회의 기준과 잣대에서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오이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고 그로 인해 결국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대다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청소년들과 완전히 다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과 동일한 준거로서 이들의 진로계획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성인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보다 훨씬 많은 삶의 부분을 남한사회에서 보내게 될 것이며, 언제까지 자신의 성장배경을 이유로 진로설계를 회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기초적인 남한사회 적응지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직업교육 및 진로 가이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L, 24세, 남)

저는 카메라 감독이 되고 싶어요. 카메라는 제가 이 학교 와가지고 한 세 달 만엔가 영상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영상팀이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은 대학교 가고... 그렇게 카메라를 배웠어요. 카메라는 학교에서 그냥 배우고. 그리고 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수업도 듣고. 그런데, 카메라를 하려면 대학교는 꼭 나와야 한대요. 어느 대학교든, 어느 과든 상관없이 대학교는 나와야 한 대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어서요, 다큐멘터리면 공모전 같은 것도 작년에 하나 냈었어요. 대학가서 카메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요, 첫 번째는 한예종이구요. 그리고 서울예대, 동아방송대...현재는 테일비 같은 거는 학교에서 충당하고, 촬영이나 편집도 여기 있는 걸로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부해서 방송국이나 프로덕션 쪽으로 취직하고 싶어요. 지금 오라는 데도 있고. 나보고 대학교만 나오면 써 주겠다고. 아무런 대학교든 과도 그렇고, 대학만 졸업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방송 쪽은. 그래서 한예종 생각하니까, 한예종이 너무 빠세고... 학비는... 새터민들은 학비부담은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 학점이 안 되면 본인이 내야하고, 학점이 되면 국가에서 다 대주고.

사례L 남성은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한 케이스다. 그는 학교 영상팀에서 활동하면서 카메라 작동법과 기본적인 영상기술을 습득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적성이 맞는 측면을 생각하지 못했으나, 카메라팀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취향과 특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사례L 남성의 진로기획에 영향을 미쳐, 영상관련 일을 하기로 결정 내리게 되었다. 그는 일찍이 자신의 진로방향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와 지인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었다. 특별한 동기 없이 대학입학을 지원하는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달리,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정보를 들은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고, 취업제안을 받기도 하여 매우 고무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꿈의 실현화는 동기부여 및 주변의 지원환경의 중요성이 다각도로 잘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B, 22세, 여)

저는 초등교육과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아이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에 제가 갈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될지는 한 번도 생각도 못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겠다. 정말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공부만 했어요. 영어도 처음 a, b, c 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사실 제가 북한에서 원래 학력대로라면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는데, 검정고시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검, 고검 1년 새에 다보고 지금은 대학입시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요, 열심히 공부해서 무사히 졸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초등교육이니까... 선생님 돼서 학생들 무사히 졸업 시키는 게 목표구요. 북한에서는 중학교를 오래 다니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정말 중요 하거든요. 한 번 반이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그 반이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대로고.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졸업해서도 가장 많이 찾아가고, 많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어려서부터 생각해오던 직업군은 한국에서의 학업에 동기 부여되는 사례도 있다. 사례B 여성은 자신의 성장기를 돌이켜보건대,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경험이나 사건이 중요했음을 떠올려, 자신도 교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정식학력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했지만, 검정고시 제도를 통해 1년 만에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모두 성취하고 현재 대학입학 준비 중이다. 주변의 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사례O 남성은 미리 정해놓은 진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접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차근차근 가다듬어왔다.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공으로 바뀌 전문대학에 새로이 입학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줄여가고 있는 중이다.

(O, 22세, 남)

요새는 기술 없이는 대우를 못 받더라고요.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무시 받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그렇게 (무시)못 하죠. 지금 하는 공부는 내가 하려는 거에 별 상관없는 거 같아요. 저는 원래 디자인 쪽을 가려고 했는데, 자동차 디자인... 그쪽은 안 된대요. 하루에 수입도 많고 하니까 디자인은 주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시킨대요. 디자인은 어렵고, 엔지니어 있잖아요? 엔지니어를 하려고 했는데, 엔지니어는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엔진소리 듣고 다 알아야 하고... 아 그러면 정비부터 배우면 되겠다. 일단 정비자격증을 따가지고 엔진 쪽으로 해보려고요. 처음에는 항공정비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항공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비는 전문대를 다녀야 해요. 전문대 자동차 정비 과. 저 같은 경우는 뜯고 고치고... 부품 같은 거 고치고 그런 거 좋아해요. 전자 그런 거... 저는 맞추고 그런 거 재미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정비 같은 것은 워낙 기름 같은걸 많이 만지잖아요. 제가 워낙 속이 안 좋아서 기름 냄새를 맡으면 메스꺼워요. 뭐 근데 기름 냄새 맡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벌어야 하니까. 남들은 일반대학 간다는데 저는 일반대학 가도... 자격증을 따면... 그래도 기술자격증을 따

면 어디가든 인정하잖아요. 자격증 따는 게 최고라고. 그리고 일반대학… 뭐 서울대 나와도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격증이든 뭐든 간에, 어디가든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일단 대인관계가 좋아야 해요. 자격증을 따도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뭐든지 성실해야 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머물렀던 중간기착지에서의 경험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중어중문학과로 진학하여 통역사, 번역사의 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반드시 중국어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머무는 동안의 직업경험이나 계기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H 남성은 중국에서 공장에 취업하여 기계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 왔다. 하나의 직업을 장기간 경험하여 나름의 노하우를 쌓은 데다, 이른 사회생활로 일찍이 경제에 관한 시야를 열어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그는 축적된 경험에 기반 하여 분주히 앞날을 준비하고 있다.

(H, 28세, 남)

무역을 하고 싶기도 하고 기계 쪽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고 싶기도 한데 아직은 그 둘 중에서 확신이 서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기계일인 것 같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하게 되었지만, 내가 기계 쪽으로 가서 성공을 했어. 하지만 내가 다른 쪽에 부딪혔다면 어땠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거기서는 기계 한가지만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나는 회사에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처음에 맡았던 기계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다루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깐 회사에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하다보니깐 아무래도 회사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상황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내려오던 방식을 내가 바꿨었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깐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었지. 일단 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내가 처음에 한국에 온 목적은 ‘돈 벌어서 중국에 간다’가 목적이었어. 그런데 와서 내가 돈 벌다 얼마든지 벌수 있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목표가 바뀌었지. 어쨌든 내가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먹고 자는 그러한 일들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공부하려고 하는지도 몰

라. 물론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할 생각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잡고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번 1월에 들어와서 4월에 고시를 본 이유이기도 하지.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 아무래도 그러한 경험을 해본 터라 더 많이 보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거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보던 세계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세계는 굉장히 다르고 큰 거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대학문제야. 아무래도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가고 거기서 얼마만큼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지금은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생각했었던 기계과에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깐. 그게 원래 기계 공학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흔들려. 어떤 대학교를 갈지는 고민 중이야.

진로나 취업으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북한이탈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한의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기획의 계기를 만날 수 있었던 남한의 청소년들에 비한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그와 상이한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더 많은 지원과 자극의 독려가 요구된다. 학벌사회의 독특한 특성상 남한사회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질투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학업 동기나 기초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학재학 동안 이들이 경험하는 박탈감과 열등감은 오히려 대학에 입학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진로 찾기와 꿈 찾기는 중요하다. 막대한 분량의 지식과 상이한 생활양식을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하는 것은 고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과 미래, 삶이 있을 때 그 과정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진로계획은 자연스럽게 정보탐색, 동료탐색, 멘토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남한사회 적응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우 긍정적이다. 기초적인 학업지식과 초기 적응지원 체계를 뛰어넘는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V.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1. 왜 인문학인가?
2.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실행
3.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5.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체크 리스트

IV.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1. 왜 인문학인가?

이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된 인문학의 개발은 단지 인터뷰를 위한 라포 형성의 통로만은 아니었다. 인문학 공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었다. 새터민들은 통합되어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해나가야 할 주체이다. 그 근본적인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자기 나름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것이 무척 어렵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행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증진,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그리고 직업을 위한 기능 습득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만으로는 스스로 삶을 헤쳐갈 수 있는 내면적 능력을 키우기 어렵다. 북한이탈과 남한 정착의 독특한 체험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교육은 전혀 새롭게 구성되고 실험되어야 할 과제다. 인문학의 일반적 의의와 그것이 새터민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까닭을 다음의 세 차원에서 생각해보겠다.

1) 사람됨의 탐구와 자아의 성찰

인간은 스스로를 형성하는 동물이다. 인격은 타고난 유전자의 결과도 아니고 몸처럼 저절로 자라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빚어가는 마음이다. 또는 일정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숙성되는 자질이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또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도 천차만별이다.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인생을 불태우면서 거의 신적인 경지에 오르는 성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극악무도한 악마들도 있다. 인간은 그렇듯 비정형의 존재로 태어나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사람됨이 어떠해야 하

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하는 물음이다. 인생의 목적이 없거나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인문학은 자기의 삶을 한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해석하는 언어를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나 일상의 경험들을 스토리로 풀어내면서 냉정하면서도 따뜻하게 자아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우러나온다. 그리고 지금의 삶과 다른 삶에 대한 무한한 상상을 불러들일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이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다.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탈북 하는 과정에서 사선을 넘나들었으며 남한에 와서는 또 다른 고투의 연속을 치르고 있는 그들에게 자아와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은 지극히 비좁다. 슬픔이나 고통도 그것이 이야기될 수 있을 때 더욱 쉽게 극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은 그들이 자신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캐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슬한 난관들을 보다 명료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 증진

인문학은 오래된 인류 문화의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혁신을 거듭하는 과학이나 공학의 경우 몇 개월만 지나도 낡은 이론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최신의 지식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에 비해 인문학은 오래 될수록 오히려 깊어지고 발효되어 빛이 나는 경우가 많다.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성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철학, 문학 각 방면에서 인류는 동서양에서 방대한 텍스트를 축적해왔다. 오늘의 인문학 운동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있다.

그러한 텍스트는 그 자체로 즐거움의 원천이다. 몇 해 전부터 대학 바깥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대중 인문학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석될 수 있다. 그만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인문학의 저장고에 가

특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첨단 문화상품으로 재구성되고 각색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만큼 이야기를 좋아한다. 희극이든 비극이든, 전쟁이든 사랑이든 인간사의 우여곡절을 담은 드라마에 심취하면서 세상사의 이면을 파헤친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내면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또 다른 자기를 만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력의 심각한 공백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데다가 남한의 학력 경쟁이 워낙 극심해 그 격차를 좁힌다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의 지적인 능력에 대해 일찍이 포기하기 일쑤고, 머리를 쓰지 않는 쪽으로 진로를 잡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그들이 공부를 완전히 손 놓지 않고 약간 늦을지언정 꾸준하게 지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워줌으로써 학습의 동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인문학은 그 점에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이나 세상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승화하고 형상화한 언어를 접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조금 어려운 교과목들에 대한 도전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인문학에는 그러한 지적인 자극과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텍스트가 매우 풍부하게 담겨 있다.

3) 세계에 대한 입체적인 안목 형성

인문학은 근대 분과 학문들이 생겨나기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추구하기에 다양한 현상과 경험들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 겉으로는 복잡다기한 일을 단순하게 요약하고, 얼핏 전혀 다르게 보이는 상황들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고도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리더들에게 인문학이 새삼 요구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을 잡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측면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얽혀 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에 범지구적인 상호연관의 고리들이 맞물려 있다. 따라서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만 쫓다 보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열개를 잡아내기 어렵다. 고전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하는 것도 세상과 사물이 움직이는 이치를 꿰뚫어본 탁월한 사상가나 예술가의 안목에서 배우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익명적인 체제가 발휘하는 거대한 힘에 휩쓸리면서 맹목적인 투기 욕망에 시달리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인문학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확고히 서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야말로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 설정에서 거듭 실패하는 전형이다. 그 관계가 왜곡되어 있기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쉽다. 인문학 공부를 통해 자기를 옥죄어 오는 사회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생활 세계를 디자인해야 할지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없이 쇄도하는 정보들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지성을 건설해갈 수 있다. 인문학은 그렇듯 세계의 이해와 지식의 경영을 위한 리터러시를 제공해준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종합하자면 인문학은 인간의 경험 해석 및 의미 생성 능력을 키우면서 객관적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현재 주어진 삶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탐색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틀과 언어 그리고 그 밑에 뒷받침되는 감수성을 키워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과연 인문학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노숙인이나 재소자에게 인문학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기된다. 즉 당장 생계를 잇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거나 극도의 지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인문학이란 사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인문학은 일단 생존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운 잉여 위에서 가능하다는 통념에서 비롯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 점에 대해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의 의미를 논구한 고병권 씨의 논문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인문학에 필요한 ‘여유’가 생계로부터의 분리를 지칭한다면 일반 민중들은 인문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삶으로부터 여유’가 아니라 ‘삶 자체가 가진 여유’이다.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변화될 수 있

는 잠재성, 한 삶이 가진 변이의 폭이 바로 그것이다. 인문학을 백번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부유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삶의 여유, 삶의 잠재성이 없는 사람이다. 삶의 ‘절실함’도 마찬가지다. 그것 역시 생계에 대한 몰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생계에 몰입한다고 해서 사회적 조건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삶의 절실함이나 긴급함은 무엇보다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강렬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다른 삶에 대한 ‘무관심’이나 ‘시간 없음’이 아니라 다른 삶을 향한 강렬한 욕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¹⁰⁾

핵심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다. 인문학의 본령은 바로 그렇듯 삶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파고들면서 자기와 세계 안에 내재한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색출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삶에 매몰되어 다른 삶에 대한 갈망이 아직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인문학은 그 생각 없음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보는 충격을 주어야 한다. 처절한 지경에 내몰린 사람들일수록 치열한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능력을 갖지 않은 채 기존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내면화한다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그 욕심 내지 기대에 부응할 만큼 물질적인 성취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괴감과 패배감에 젖어 더욱 비참한 지경으로 자신의 삶을 밀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은 앞으로 계속 실험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2.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실행

1) 프로그램의 세팅

우리 연구진에서는 대안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내용을 검토하면서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그 각각의 세부 내용들은

10) 고병권 ‘교도소에서 인문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화인문학 운영위원회 주최 심포지엄 [평화인문학 발전을 위한 워크숍] (2008. 9. 5) 발제문

아래와 같다. 교과 내용을 짜면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것은 수강생들의 구성이었다. 수강 인원은 17명이었고, 나이의 편차도 크고 지적인 수준도 많이 달랐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인간관계 내지 권력 관계 등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차이들과 조건을 아우르면서 공통의 주제들로 관심을 수렴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교과 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2008 1학기 셋넷학교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마음의 탐구

인간은 그 어느 동물도 흉내 낼 수 없는 거대한 문명을 건설해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버겁기만 하다. 그 어느 동물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인간의 생애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전통과 신분제로 많은 것이 정해져 있던 옛날과 달리, 현대인들은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여러모로 살피면서 인생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이다.

이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은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다. 매 시간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나'에 대한 세밀한 탐구를 통해 역사와 자연, 경제와 문화의 열개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수강생 여러분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 온 라인으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교실에서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주제와 관련된 다른 글들을 읽으며 강의할 것이다.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살이의 힘을 키우는 이 자리에 지혜와 정성을 모으자.

1. 사람과 동물, 무엇이 다른가?
2.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3.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대에 살고 싶은가?
4.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가?
5. 50년 뒤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6.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7. 내게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8. 나의 친구는 어디에 있는가?
9. 누가 누구를 차별하는가?
10. 나는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가?
11.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12.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수업은 5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셋넷학교에서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제목은 '마음의 탐구'로 잡았는데, 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만들려 하였다. 매 시간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글을 미리 써오는 숙제를 내고, 수업 중에는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 내용은 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집단 속에서 훨씬 입체적이고 때로 솔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였다.

이 수업에는 연구보조원 4명이 조교로 참여하였는데, 세 명이 각각 한 조를 맡아 4-5명의 학생들과 긴밀하게 토론하고 친분도 쌓아갔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켜보면서 앞으로 심층 인터뷰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 파일을 만들어 그들이 수업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숙제로 제출하는 글,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끼리 나누는 이야기들 등을 계속 기록하였다. 이는 나중에 심층 인터뷰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2) 프로그램의 운영

실제로 강의를 실시하게 되면서 애당초 설계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업의 내용이 오히려 더 향상되고 충실해진 측면도 많다. 수강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었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관계에서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수월하게 주고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업을 몇 차례 진행하면서 처음 기획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 또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수업의 진행방식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설계했던 커리큘럼은 이 연구 과제의 핵심 내용인 생애사 인터뷰를 의식해서 수강생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온 이야기들이 인터뷰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 질적으로 탄탄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특히 일대일의 면담과 달리 여럿이

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질문도 더 예리해지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든 훨씬 편안하게 마치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듯이 자기 속을 털어놓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그룹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서도 종종 거론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수업이 시작해보니 그러한 주제들은 그 분위기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수업 분위기 이전에 아이들 가운데 1/3 정도는 그런 주제 자체를 소화하기에는 지적인 능력이나 성찰적인 사유능력이 너무 부족했다. 험난한 인생의 과정을 거쳐 왔기에 목격한 사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리라는 예상이 어긋난 것이다. 한국의 여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중 소비문화를 동경하면서 삶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게다가 학력의 공백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자기표현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등에 대해 질문은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다. 물론 그런 정도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업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미묘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단 역학이기에, 자칫 무리하게 어려운 이야기로 끌고 가려 했다가는 오히려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아이들도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주고 미리 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오도록 과제를 내주었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아이가 거의 없었다. 수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거기에 올리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공간 자체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검정고시 과목들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가시적이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강사나 수업의 분위기 자체가 무엇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아이들의 생활세계 자체가 학교가 끝나고 자기의 생각에 몰두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무튼 글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 피드백과 방향의 전환

수업은 생애사 인터뷰를 의식한 내용을 털어버리고 아이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넓히고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예를 들어 아시안 게임 예선 남북한 대표팀 축구대회를 다 함께 관람할 기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 주에 스포츠에 대해 수업을 하였다. 이는 수업 분위기에 매우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었다. 축구경기 하나만 텍스트로 해서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업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경기를 앞두고 이번엔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 것인지를 예상하면서 그에 걸맞은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감독이 어떤 점에서 잘 했고 잘못했는지를 되짚어보면서 리더의 능력이 무엇인지 배워볼 수 있었다. 축구 경기에서 포지션 별 역할, 포백과 스리백의 차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요소들, 감독의 자질과 임무 등에 대해 알려주고 보도록 하면 재미가 배가된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 같은 스타플레이어들의 탁월함이 무엇이고 그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기까지의 인생 드라마를 들려주면 자기의 삶을 거울삼아 돌아볼 수 있다. 스포츠에서 감독과 함께 중요한 것이 심판인데, 체육시간에 심판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심판이 되어 경기를 운영해보도록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 공정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 역시 기존의 경기 장면들 가운데 오심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되짚으면서 분석하는 방식을 곁들이면 효과적이라.

그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나 대상을 중심으로 통섭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한 시도 이미 외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예를 들어 보면, 물리 과목에서 빛의 성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인데, 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이는 사진작가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빛을 제대로 배제하거나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 기술로 요구된다. 사진사는 물리학자 못지않게 빛을 잘 알고 다루는 사람일 것이다. 물리 시간에 초대된 사진사는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빛이 어떻게 사진에 투영되는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조

별로 나뉘어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본다. 똑같은 대상인데 빛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관찰한다. 그를 통해 물리 책에 나오는 원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술에는 자연의 수많은 현상들이 숨어 있다. 소리의 속성에 대해 음악과 물리가 만날 수 있고, 나뭇가지와 잎의 모양을 통해 프랙탈 이론과 디자인을 함께 배울 수 있다. 생태학은 그 자체로 예술이기도 하다. 환경 교육은 예술과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 꽃과 새를 가까이 하면 미적인 감수성이 피어난다. 독일에는 숲 유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은 숲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고 관찰하며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등의 활동과 학습을 한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마음의 바탕은 플라스틱 장난감과 인터넷 게임으로 놀이 시간을 채우는 아이들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다.

사회 과목과 예술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넓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교향악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조직 이론과 리더십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민간단체나 기업들이 오케스트라 조직을 닮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 특성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 유능한 지휘자는 어떤 능력을 소유하였는가.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지휘자와 단원 사이에, 단원들 사이에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관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그리고 연습을 하는 동안 지휘자와 단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은 어떤 것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휘 자체를 배워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를 꾸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규모 합창단을 조직해 돌아가면서 지휘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어떤 그룹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아주 유용한 체험이 될 것이다.

3.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인문학 공부를 통해 드러난 것

이번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운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는 앞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인문학의 기획을 위한 탐색 내지 시행착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을 몇 가지로 추려보면 우선 인문학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성찰적인 물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자아 성찰적 입장, 그들의 인성적인 특성 및 구조,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처해있고 그리고 자라났던 이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수업의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성찰적인 물음이 개인에 따라 다른 수준에서 던져져야 한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함경도에서 건너온 아이들은 평양에서 온 아이들과 비교해볼 때 살아온 방식과 거쳐 온 경험, 그리고 문화의 자본과 인문학적 배경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그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장래의 비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물론 꼭 출신 지역만이 변수는 아니다. 가족 관계, 중국에서의 체류 기간 및 경험의 내용 등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에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무리인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한 가지 셋넷학교의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삼 확인되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각한 학력 공백뿐만 아니라 정서적 미숙과 사회성의 부진 등이다. 물론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여 몇몇 청소년들은 매우 성숙한 태도와 배움에 대한 진지한 열의를 보이지만, 상당수는 정신 연령이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될 만큼 삶과 공부 그리고 진로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듯하다. 물론 이것은 한 학기라는 짧은 접촉과 관찰에 근거한 것으로 매우 피상적인 인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 이전에 남한에 있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연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든 정반대로 일탈의 길을 걷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인문학적인 토양이 지극히 척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일상적으로 필요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히 또래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싸울 때는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한다. 그런데 수업이라는 일종의 공식적인 상황에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는 데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수업 가운데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주어 최대한 가깝게 그려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았는데, 이미지로 구성된 시각 정보를 추상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전달받은 친구가 그런 그림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그 설명을 들은 아이의 이해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아이들의 소통 능력은 어떤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기가 어려웠던 것도 바로 그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2) 관심과 참여를 복돋은 계기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주효했던 수업들을 떠올려볼 수 있다. 그 공통점들을 분석해보자면, 익숙한 경험을 중심으로 성찰하는 것이었다. 죽음, 음식, 노동, 연애, 중국 등을 소재로 하여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원리를 파헤치는 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관심을 쉽게 집중시킬 수 있었다. 스포츠를 다룰 때 탁구대를 펴놓고 직접 서브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의 회전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시적인 대상을 가지고 추상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특히 질병과 건강을 좌우하는 몸의 원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배우는 메타포로서도 유용할 뿐

아니라, 몸의 상태가 좋지 않고 앞으로 스스로 몸을 잘 돌보아야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매우 긴요한 지식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효했던 것은 역사적인 상상력을 북돋는 것인데, 짤막하지만 과거 인류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과거 어느 시대에 태어났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 지를 상상한다거나, 50년 뒤의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 때 자기는 어떤 삶을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식의 부피를 넓히는 데 유용했다.

그리고 보조 텍스트로 영상이나 음악, 물건 등을 많이 활용한 것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그날 주제와 연결하여 흥미를 끌만한 것을 짧게 보여주면서 관심을 환기시키면 수업에 집중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그 영상을 중심으로 설정된 주제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또한 강의 내용과 관련된 영어의 속담을 칠판에 적어놓고 따라 읽도록 하는 것도 참여의 기운을 높여주었는데,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쓰고 입으로 발음함으로써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을 갖는 듯했다.

4.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1) 진로와 관련지어 동기부여하기

이번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방식과 내용을 실험하였다. 처음에 세웠던 커리큘럼도 무시해야 했다. 어차피 이 연구는 어떤 인문학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수업 방식에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촉진되어야 하는가?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이미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수업들과 관련해서도 많이 논의되어 왔겠지만, 우리 연구팀은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보다 새로운 눈으로 파악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 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토대로 앞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세 가지 정도 추려보겠다. 물론 이는 새터민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인문학을 설계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방면에서 이뤄지는 인문학의 실험과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를 참고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분명한 목표 설정과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정고시처럼 자신의 향후 진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적인 기능 습득처럼 실용적인 쓰임새가 있는 것도 아닌 인문학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서 통과해야 할 면접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면접이라는 것이 단순한 신상 조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과 지적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소양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자기 안에 삶에 대한 의지와 세계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 직무 현장에서 어떤 일을 수행해갈 때에도 한결 성실함과 소신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2) 정서가 교감되는 규모와 분위기 조성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설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사항은 규모와 분위기다. 인문학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가슴으로 느끼면서 배우는 학문이다. 따라서 고요한 마음가짐으로 낮은 의미세계를 탐구하거나 자아를 낮설게 방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우여곡절들에 대해 상상력과 감수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능력과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인문학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강의 장면에서 그러한 정서적 역동이 살아 움직여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수강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너무 교실의 규모가 커도 좋지 않고, 그보다는 진지한 감정 이입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수강생이 너무 많이 섞여 있거나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면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언급

한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 이해와 동기부여와 맞물려 수업에 임할 때 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다소 높게 설정하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3) 예술 프로젝트와의 연계

또 한 가지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성 학습을 해볼 수도 있다. 또는 기존에 진행되는 다른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해서 기획하고 진행해볼 수도 있다. 특히 인문학은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창작이나 실행을 주로 하는 예능 관련 과목과 엮어서 진행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잘 드러날 것이다. 교육에서 예술의 힘에 대해서는 문화교육의 다양한 사례들에서 분명하게 입증되어 왔다.

2007년 5월에 EBS 텔레비전에 방영된 BBC 다큐멘터리로 <개러스 선생님의 고교합창단 프로젝트> (원제는 **The Choir**)가 있었다. 개러스 선생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 지휘자인데, 그는 청소년들을 클래식の世界로 인도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노스홀트 중등학교에서 합창단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다. 그 가운데서 3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합창단을 만들어 세계 최대의 합창대회인 ‘합창 올림피아드’에 도전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로울 리가 없다. 의욕을 갖고 입단했지만 실력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단원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불화와 갈등이 생겨나 합창단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치면서 마침내 본선대회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우여곡절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예술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사의 헌신과 애정이 돋보인다. 본선에 진출하였지만 아깝게도 2차전에 탈락했을 때 개러스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땀들이지 않고 말하겠다. 우리는 2차전에 떨어졌어. 하지만 2차전엔 단지 4팀만 출전하게 된다. 최고의 합창단만이 나가는 거지. 너희들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거야. 오늘밤, 많은 합창단이 우리들처럼 실망할거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잘 했어...’ ‘오늘 무

대에서 성악가처럼 잘 불렀어. 적어도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

아이들도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합창단 경험이 전혀 없던 우리가 이 중국까지 왔다는 것이 대단하지요.’, ‘내가 학교와 마을, 영국을 대표한다는 게 이제껏 상상해보지 못한 벅찬 경험이었어요’, ‘스물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의 목소리라도 없었으면 이런 멋진 노래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하고 싶은 걸 위해서라면 시험(오디션)도 보고 연습도 꾸준히 해야 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무대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 목표,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4) 목표 설정과 성취의 경험

어떤 목표를 스스로 정해 성취해보는 경험은 인간의 성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기계적인 학습과 획일적인 평가 시스템 속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에 비해 예술 영역에서 창조를 통해 인간은 자기와의 치열한 대결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고, 드높은 세계에 대한 온전한 몰입을 통해 육중한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 창작이나 연주까지는 아니라 해도 단지 뛰어난 예술 세계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인천의 어느 사회복지관 관장에게서 들은 말인데, 가정이 해체되어 황폐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뛰어난 공연물을 보여주면 그 반응이 사뭇 진지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저렇게 하려면 무척 연습을 많이 했겠구나’라고 한다.

예술 그 자체는 인간의 숭고한 상상계를 통해 아름다움의 체험을 유발한다. 일상의 진부한 경험세계를 넘어 탁월한 경지를 보여주면서 존재 가능성의 범위를 크게 확장해준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의 모습 자체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감동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삶에 엄청난 힘이 된다. 예술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자기에 대한 심오한 발견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 기업의 임원 교육에서 예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러한 효과 때문이다. 오십을 넘긴 중년의 아저씨들이 사진기를 들고 촬영을 하고 영화

의 어떤 장면을 연기한다. 도화지를 펼쳐놓고 물감으로 여러 가지 문양을 그리면서 뭔가를 표현하려 애쓴다. 취미나 교양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창의성을 연마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아직 눈에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포착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세계를 상상하는 힘이 리더들에게 점점 요구되는 가운데, 예술은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다. 학교와 입시에서 외면당하는 예술교육이 기업에서 중시되고 있다. 시대의 요구는 학교보다 기업이 더 민첩하게 파악하고 수용한다.

상상력은 감각이라는 회로를 풍부하게 열어주는데, 이는 그 자체로 행복감의 원천이 된다. 조앤 에릭슨은 <감각의 매혹(Wisdom and the Senses)>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각의 교육 (때로는 재교육)을 통해서 지각력이 예리하게 다듬어지고 그로 인한 기쁨이 솟구친다. 또한 일상생활의 만족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아찔한 미적 경험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 경험은 물질과 도구의 세계를 발견하는 자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놀라우면서도 노력을 요하는 예술행위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예술행위를 하면서 부산물로 얻게 되는 가장 기분 좋은 보상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지적으로 심오해지고, 보다 깊이 있게 물질을 음미할 수 있으면, 모든 물질의 존재 이유를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다."¹¹⁾

그는 이 책에서 '경이로움은 지식의 동기이자 인식의 근거'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경험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술철학자 수잔느 랭어의 다음과 같은 말을 빌려 예술이 교육에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를 설파한다. "(상상은) 가장 오래된, 추상적 이성보다 더 오래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며 꿈과 이성과 종교 이 모든 일반적 관찰 행위의 공통적 근원이다. (...) 자신에 관한 앎, 인생의 모든 장(場)과 마음에 대한 통찰은 예술적인 상상에서 나온다. 이것이 인식으로서 예술이 갖고 있는 가치이다. 생각하건대 예술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¹²⁾

11) 조앤 에릭슨 <감각의 매혹> (에코의서재, 2008) 28쪽

12) 윗책 39 - 41쪽

5.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체크 리스트

1) 기획 단계의 점검 사항들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 질문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감으로써 향후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에 체크 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수강생들의 분류 (또는 선발의 기준)

- 나이와 가족 상황
-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있는가? 학력 공백은 얼마나 큰가?: 문해 및 글쓰기
- 학습의 동기는? : 교양 ~ 삶의 전환
- 스스로 학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 부과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2) 수업 진행 방식

- 출석 및 과제물 제출의 원칙 수립 및 준수
- 수업 시간에 산만한 수강생들에 대한 대응
-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수강생 친교, 소그룹 결성
- 교실 이외의 프로그램 개발 : 식사, 친목회, 여행, 답사, 자원봉사 등
- 온라인 소통의 가능성
- 프로그램의 마무리 : 개별 포트폴리오, 공동의 작품, 학습 발표회

2) 목표 달성의 지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은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워낙 폭이 넓고, 수강생들의 입장에서선 검정고시나 대입 또는 취직에 뚜렷이 연관되는 것 같지도 않아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기 쉽지 않다. 인문학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것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잡아 보았다.

(1) 지적 능력

- 독해력 향상 : 등급별 텍스트 제시
- 개념 구사력 :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단어
- 관점 : 새로운 해석과 접근의 통로
- 호기심 : 관심 영역의 확대
- 향후 학습 계획서 작성 : 독서 리스트 포함

(2) 생활

- 텔레비전 : 시청 시간, 프로그램의 질 (다큐 등 교양 프로)
- 인터넷 : 서핑의 자제, 즐겨찾기의 구성 내용
- 책 : 서점 방문, 자기만의 서재
- 신문 스크랩
- 글쓰기 : 일기
- 가족 관계 : 함께 하는 시간, 갈등의 감소, 대화의 질
- 예술 접촉 : 음악회, 전람회, 연극 등의 관람

(3) 내면

- 자기 정체성의 정립
-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극복
-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
- 감정의 조절
- 마음의 힘

V.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제안

1.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의 구축
2. 진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3. 맞춤형 학습의 다양한 경로 개발
4. 사회적 기업과 멘토링 시스템

V.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제안

1.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의 구축

학교 밖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남한에서의 생활의 큰 틀을 잡아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에 있을 당시부터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이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온 아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체계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거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하는 일의 필요성이나, 그 방법 등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의 삶은 워낙 살기가 힘들고,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가족의 해체(부모의 죽음, 도망 등)로 인하여 이들이 제대로 된 삶의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도록 틀을 잡아주는 일이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이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이나 제 3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시기에 더더욱 이들의 생활 자체가 파편화되고, 3국에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오래 살다보니, 미래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기초학력 또한 아주 미비한 수준에 그쳐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들은 갑자기 많은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 생활비, 거주 문제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되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 제공은 표면적인 것이며, 실제로 이들이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붙잡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바꿀만한 진정한 기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원만을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기회들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불만을, 새터민

들에게는 무기력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물질적, 조건적 기회가 아니라, ‘어떻게’ 남한 사회에서 적응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일 것이다. 이들에게 비록 고등 교육에 대한 기회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조차 힘에 겨워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는 무기력감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체계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감을 느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은 갈 곳이나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칫 만날 친구조차 없는 환경에 내던져진다. 그래서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처럼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자아를 형성해갈 수 있는 자리 말이다. 현재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갈 곳은 대안학교 말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과 계획을 세우기까지, 가정과 학교 이외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공간에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것은 길잡이 교사의 존재다. 길잡이 교사는 마음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향후 진로에 대해 상담해주면서, 아이들의 관심과 적성에 맞춰 학습을 설계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상담사 이상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쉼터를 다양하게 설치해야 한다. 굳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서 기존의 청소년 수련관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시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인력이다.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어른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울청소년수련관의 ‘민들레 사랑방’이 그러한 기능을 특화하여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깊이 연구하여 확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2. 진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제공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학교를 중도 탈락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진로 모색에서 대단히 곤혹스러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부분 학교가 싫어서 그만 두는 것이지만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닌 만큼 막상 학교생활을 정리한 다음 무엇을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든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다가 자퇴를 시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다. 곤혹스러움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실제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몇몇 대안학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탈학교 십대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급속하게 전환되는 가운데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를 벗어나고 나서 취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터넷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학업 중단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창구에서도 기본적인 사실 정보를 설명하느라고 들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를 떠나려 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북한이탈 탈학교 청소년들의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길도 대단히 다양하다. 대안학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직업적인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개별 사례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여 정보들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 맞춤형 학습의 다양한 경로 개발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학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담의 기능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생활 세계에 대한 규명, 현재 지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장 단기적 학습의 목표치 설정 등에서 체계적인 분석의 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담과 학습과 진로 모색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개별 청소년들의 자기 길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과 매뉴얼이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를 떠난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상당히 낮은 지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반면에 기존의 학교 체제가 자기의 독특한 학습 욕구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후자의 청소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의 유형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은 ‘전혀 다른’ 학습을 원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기존의 학교교육의 틀을 바뀌가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학업 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의 안팎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편성 지원 및 연구 개발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새터민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구성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하나의 범주로 획일화해서 사회 적응의 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중심으로 범주를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시기 / 탈북 동기 / 남녀 / 연령 / 체격 및 건강 상태 / 북한에서의 학력 동반 가족 여부 / 가족 배경 (부모의 성분, 학력 및 문화 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경제적 수준) / 출신 지역 / 중국에서의 체류 기간 및 방식 (무엇을 하고 지냈는가)

이 가운데 특히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중국어도 능통하고 중국 사정에 익숙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장차 중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삶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검토가 요구된다.

4. 사회적 기업과 멘토링 시스템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만, 중도 탈락률이 엄청나게 높다. 더구나 간판을 중시하여 상위권 대학으로 입학하기에 학업을 따라가기가 더욱 어렵다. 등록금만 지원해줄 뿐 학업과 사회적 적응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다.

대학 진학 이외의 길은 곧바로 취직하는 것인데, 이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약한 체력 때문에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거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의 차이 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빚기 일쑤다. 따라서 이들이 곧장 직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로서 완충적인 영역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한국사회 일상의 작동원리도 체득하면서 경제관념과 일하는 자세 등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직업학교라기보다는 실제 직업 현장이면서 거기에서 인턴십을 장기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새터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어떨까 한다. 새터민끼리 공신력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과 판매의 루트를 창출하고, 여러 어른들이 멘토로 나서주면서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멘토는 새터민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직업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턴십의 목적은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배우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짧은 기간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

을뿐더러, 아이들이 정말로 그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성을 다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대신 직업 체험을 통해 얻는 것은 학교 교육이나 정보로는 알 수 없는 현실의 구체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들에서는 인턴십을 커리큘럼의 일부로 안착시켜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들이 직장에 1,2 개월 다니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생생하게 보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며 협동하는가, 한 사람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새삼 확인한다. 사실 귀가 닳도록 들어온 평범한 교훈들이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몸으로 겪으면서 체득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다.

VI. 결 론

VI. 결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어느 대안학교의 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을 몇 년간 떠돌다가 한국에 정착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살기 힘들었고, 중국에서는 공안에게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살기 힘들었다.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몰라서 못 살겠다고 한단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 너무 많고, 길거리의 간판 등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영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언어권에 온 듯한 이질감을 갖게 된다.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울 때 정말로 바보가 된 기분이라. 게다가 워낙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숨을 고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전개되는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무지(無知)의 고통을 가장 뼈저리게 절감하는 곳은 역시 교육 현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로 가파른 경쟁을 벌이는 또래 청소년들의 무서운 학력(學力) 앞에서 절망할 뿐이다. 부실한 기초교육과 몇 년간의 학습 공백은 치명적이다. 실제로 대학에 입학한 북한이탈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의 고통을 견디었고 삼엄한 감시를 뚫고 탈출했으며 낯선 땅에서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이들, 강인한 정신력으로 생존의 사선들을 넘어온 그들을 좌절시킬 만큼 한국사회의 서바이벌 게임은 살벌하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느 외국 학생이 “누구든 한국에서 고3 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서 못 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초인적인 집념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준거 집단’이다. 몸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안정된 만남의 장(場)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집단 속에서 그들의 삶은 사회적인 지지와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 안에서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지 않아도 된다. 갈등 속에 빠져 고민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가운데서 자아를 새롭게 만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내버려져 있지 않다는 느낌이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자신감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다.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계속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 상당수의 아이들은 워낙 심각한 학력 격차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 것에도 의욕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교육과 무의미한 텍스트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를 떠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기존의 학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지적인 자극이 제공되어야 한다.

‘준거 집단’과 ‘새로운 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과 인생을 배우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시켜 갈 수 있다.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기획하는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체적인 학습을 지속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경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인 짜임새 있는 생활과 자기 관리라는 것도 외적인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활력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그러한 자기 형성의 공간을 원한다. 그 공간에서는 무엇보다도 체험이 중요하다. 바깥에서 부과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의 깊은 욕구를 스스로 읽어내면서 거기에서 학습의 방향을 탐색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저마다의 느낌에 충실하게 귀 기울일 수 있고, 스스로 배움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성의 공간이란 결코 자족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뚜렷한 경계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세계와 체험을 포섭하고 편집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행하는 아르바이트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직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백댄서로서의 꿈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활동을 벌이지만, 일시적인 발산에 그칠 뿐 실제로 그 쪽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렇듯 어떤 필요나 욕망의 단편적인 충족으로 그치는 체험들이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 보다 넓은 사회적인 지평 속에서 자아의 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관계, 체험을 통해 시민적 소양과 직업적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학습, 바로 그것이 자기 형성의 시공간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일반통계』.
- 금명자·권해수·이희우(2004),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 해”,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호, pp.295-308.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권 4호, pp.163-187.
- 김영수(2004),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재사회화 문제 사회과학연구 12권 1호.
- 김현주·김성준·이민구,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수용 특성과 지원 방향”,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6-72.
- 독고순(2000),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2001), “탈북 주민의 가치 정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5집 1호, pp.149-174.
-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1998),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pp.83-106.
- 양승목(1988), “북가주 한국이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사회화”, 『언론정보연구』 25권, pp.26-63.
- 윤인진(2004),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기영(2000),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통일부.
- _____(200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 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영(2002), “북한출신 남한주민의 사회적응 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신보건학회 발표 자료.
- 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이정우(2006),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사

회교육과 박사학위논문.

장창호(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 교 석사학
위논문.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오름.

정경일(200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 『사회언어학』 10권 1호, pp.253-274.

정병호, 정진경, 이종태(2001), 『탈북 학생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
로그램 개발연구』, 교육인적연구 2001-1-05, 교육인적자원부(연구보고서: 책
임연구).

_____, 정진웅, 전효관, 이부미(2003),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
구』, 교육정책연구 2003-공모-7, 교육인적자원부(연구보고서: 책임연구).

_____, 정진경, 이향규(200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체제 수립방안에 관한 연
구』, 교육인적연구 2004-특-26, 교육인적자원부(연구보고서: 책임연구).

_____,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2006),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경기도교육청(연구보고서: 책임연구).

_____. 전우택·정진경(공편)(2006),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
양대학교출판부.

정우창(2005),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남한 자원 교사들의 갈등과 적응,” 한양대학
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정진경(2002), “북한사람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 pp.163-178.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 문제연구』,
16(2): pp.209-239.

_____.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권 1호,
pp.101-137.

정태연·김영만(2004),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에게 미치는 영향: 남한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권 3호, pp.61-82.

_____. 최영진·김영만(2002), “탈북자가 본 북한의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
노년학』 23권 3호, pp.29-48.

정향진(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
구』 11권 1호, pp.81-112.

조용관(2004),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
국정치외교사논총』 25권 2호, pp.155-185.

- 채정민·김종남(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권 1호, pp.41-64.
- 통일부(2000), 『통일백서』 .
- 통일부(2006), 『통일백서』 .
- 통일부(2007), 『새터민(북한이탈주민) 통계』 .
- 홍석현·이창현(19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에 관한 이해: 북한 소재 코미디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후기 한국언론정보학회 발표문』 , pp.79-98.
- Alba, R. & Nee, V.(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pp.826-851.
- Appadurai, Arjun(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 Bahk, C. & Jandt, F.(2004), "Being White in America: Development of a Scal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15(1), pp.57-68.
- Berry, J.W.(1987),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anada: Copp Clark Pitman.
- Child, I.L.(1943), *Italian or American? The Second Generation in Conflict*,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 Dorjee & Gile(2005), "Cultural Identity in Tibetan Diaspora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6(2), pp.138-157.
- Gans, H.(1999), "Filling some hole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9), pp.1302-1313.
- _____(1992), "Second-generation decline: scenarios for the economic and ethnic futures of the post-1965 American immigra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15(2), pp.173-92.
- Glick-Schiller, N., Basch, L., Blanc-Szanton, C.(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pp.48-62.
- Hao X. Zhao J.(2004), "Parent-Child Co-Viewing of TV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the Chines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12(1), pp.63-77.

- Hirschmann, C. & Falcon, L.(1985),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religious-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 *Res. Sociol. Educ. Socialization*, 5, pp.83-120.
- Kasinitz, P., Mollenkopf, J., Waters, MC.(2002), "Becoming American, Becoming New Yorkers: Immigrant Incorporation in a Majority Minority C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6(4), pp.1020-1036.
- Kim, G. & Kim, MH.(2004),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their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75(3), pp.152-176.
- Levitt, P. & Waters, MC.(2002), *The changing face of home: the transnational lives of the second generatio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Nonini, D.(1997), "Shifting Identities, Positioned Imaginaries: Transnational Traversals and Reversals", *Ungrounded Empir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 Ong, A.(1999), *Flexible Citizenship*, Durham & London:Duke University press.
- Parrenas, Rhacel Salazar(2005), *Children Of Global Migr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rlmann, J. & Waldinger, R.(1996), "Second generation decline? Children of immigrants, past and present-a reconsiderat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pp.893 -922.
- Smith, R.(1998), "Community, Technology and the Politics of Membership within the Context of Mexico and US Migration", *Transnationalism from below*, Transaction Publishers.
- Warner W.L. & Srole, L.(1945), *The Social Systems of American Ethic Groups*,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 Zhou, Min(1997), "Growing Up American: The Challenge Confronting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of Immigra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pp.63-95.

부 록

1. 북한이탈 청소년 인터뷰 (사례)
2.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사례)

부 록

1. 북한이탈 청소년 인터뷰 (사례)

1) 은향 (가명, 24, 여, 학원 다니며 대입준비, 작년에 한국에 음)

(1) 남한에서 정착 과정

저는 여기 와서 참 많이 철이 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 손으로 돈도 벌 어보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저기 있을 때는 마냥 환상에 너무 환상을 가지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이 못살아서 온 사람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한 달 조사받을 것 저는 두 달 받았고..만약에 우리 부모님 중 누가 사고를 쳤다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그런 거도 없으니까 더 의심스러워하고..잘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오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진짜 돈 많이 뜯어먹고 감옥가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김정일이 돈을 먹었다면 죽으니까, 외국 갔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한국으로 가져와서 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여기서 잘사는데 한국이 조금 더 잘사니까 더 잘살아보자 해서 오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국에 오는 게 기회죠. 중국에 있어도 마음 졸이면서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국적이 있으니까 집도 있고 편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국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에 왔을 때 딱 나왔더니, 내가 너무 허황된 생각을 했었구나..처음에 석 달 동안은 밖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구도 없고,, 전화기를 구입을 했는데 전화를 할 데도 없고..북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전화 많이 했거든요,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저 때문에 ..정말 아빠가 일 때문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통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옆집에 전화를 해서 끊게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여기 온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도 학교 다니고 하니깐 하루 종일 저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성격이 이상해 졌었어요. 예민해

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기피하고 우울증 같은 거..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티비만 봤는데요.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티비만 봤는데, 밖에 한번 나왔어도 길을 모르니까 알려고도 안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건가? 엄마 랑도 싸우고 엄마가 너 한국 와서 이상해 졌다고.. 친척은 보고 싶은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친구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저는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름 안 잊어 먹으려고 출석부 순서대로 매일 외우고.. 친구가 너무 그리웠어요. 제 친구 정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친구소개해 줘.. 한국친구도 싫고 북한친구도 싫고.. 오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데 한국 오는데 두세 달을 기다리는데 진짜 북한에 별별 사람들 하고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진짜 맘은 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성격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싸움 나고 선입견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많이 적응 된 편이에요..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나서 많이 적응도 되고 성격이 밝아졌어요. 신라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되게 재미있어요. 엄마가 일하라고 말했거든요.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9월 달에 왔는데 아빠는 11월 달에 거기서 떠셨거든요. 그래서 4월에 한국에 오셨는데..엄마랑 그 동안에 맨날 싸웠어요. 엄마가 너 이상해 졌다. 한국 와서..우리가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잘살려고 왔는데, 너 성격이 이렇게 되면 어떻하냐. 원래 저희 엄마가 성격이 진짜 좋거든요, 저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저는 북한 친구들 만날 기회는 있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제가 오면서 겪은 일도 있고 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북한사람을 알고 지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한국인이다. 나는 집안에서 이제 말도 사투리도 다 고쳐서 밖에 나가면 완전 한국사람 되고.. 다 고쳐서 누구도 티 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말도 엄청 빨리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복지관 같은데 다니면서도 제가 자격증을 두 개를 땀거든요, 워드랑 엑셀을 땀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삐뚜루 나가고 그러니까..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거기서는 한명도 안 친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자존심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 있을 때도 잘 살았고 대학도 나왔는데, 솔직히 내가 거기 있었으면 평생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 이니까..왜냐면 자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한국에 오니까 저의 급

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틀리고 그래서 나는 항상 꿈만 꾸고 있었구나. 허황된 꿈만 꾸고 있었구나..엄마가 또 너무 아르바이트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천국을 샀어요. 저는 한국 시간당 시급이 얼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시간당 제일 시급이 높은 거를 클릭 해보니까 무슨 바예요.. 그냥 거기다가 쓰면 나이는 일단 내가 합격인데..근데 바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근데 시급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력서 쓰는 난에 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다 했죠. 그래서 거기 전화를 했어요..그래서 제가 사실은 북한에서 왔다고..그랬더니 좀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와보래요. 그래서 갔어요. 거기가 목동에 높은 건물 있는데 거기였거든요..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인 마시고 참 수준 있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데도 있구나 하면서 구경하고..근데 일하는 아가씨들이 다 완전히 딱 달라붙는 옷에 옆이 많이 찢어진 치마입고..저 면접하시던 분이 밤에 늦게까지 일할 수 있냐고..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랬죠.. 그러고는 술 잘하냐고..만약에 손님이 술 한 잔 하자고 하면 어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술을 잘 못 마신다 그랬죠..저보고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연락 안준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 또 아르바이트를 판매를 알아봤어요..저는 신라호텔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일단 한번 넣어봤더니 저보고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저보고 무슨 대학 나왔냐고 그래서 저 북한출신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는 탈북자 처음 봤다고..어찌해서 이야기가 잘 되서 다니게 됐는데..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북한 출신인 걸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그게 뭐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혹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말 안하는데, 가끔 곤란할 때가요..제 억양이 좀 특이한지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그럴 땐 좀 곤란하고,.., 침에 일하기 시작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릇도 엄청 무겁고 많은데 그걸 한손으로 다 날라야 하고..그래도 잘 선택 한 것 같아요. 솔직히 호텔이니까..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애들한테도 자랑스러운 게, 앙드레 김도 보고 조수미도 보고 연예인들 되게 많이 보고..유재석 결혼식도 제가 하고 그랬으니까..뭐 그사람들이 저를 밥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 나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물에서 노는구나 많이 알게되고..이명박도 와서

많이 하고..거기가 삼성 계열이어서..거기서 되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서빙을 하는데, 교수님들이 아가씨 여기 우리 성균관대 학생이냐고 물어보고..저는 아니네요..그러면 아 나는 여기 다니면 다 성균관대 학생인줄 알았다고..그 정도로 성균관대 하고 관계도 깊고..고려대 교수님들도 많이 오고..그리고 평상시 먹는 문화 어쩌다가 내가 그런 식당에 가서 고기 썰일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셋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뭘부터 써야 하고 칼 잡는 법, 밥먹은 것은 어떻게 놔야 하고 그런것을 하나하나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서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제 친구들은 몰라요. 스테이크 썰는 것도 어디서부터 썰어야 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 손님은 팔 김스를 한 나이가 드신 분인데, 고기를 썰지 못하더라구요. 제 테이블에 앉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한테 썰어달란 애긴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썰어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땀 뻘뻘흘리고 썰어드렸거든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맛있겠다고 처녀가 썰어주니까 정말 맛있겠다고 우리도 썰지말고 김스한것처럼 있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서 참 보람을 느끼고, 손님들이 제가 서빙을 해드린 손님들이 좋아할 때 그때 기분이 최고예요. 근데 여자손님들이 까탈스런 손님들이 많아요. 남자분들 회장님들은 진짜 친절하세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 여기 찌푸리구요. 뭘 갖다주세요. 한번만에 안갖다주면 막 그러구..다 우리는 항상 스마일 웃으면서 얘기를 해줘야 하고.. 성격도 많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구요..

그러다가 4월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지금은 아는 분 회사에서 운전해주는 거 하고 계시요. 참 많이 미안하죠. 제가 여기 오자고 해서 괜히 고생만 시키고..

(2) 학습의 경로

저는 원래 여기 올 때 처음부터 목표가 대학 가는 거였거든요. 여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가 있는데 그걸 꼭 잡아야죠. 그래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지원 했고요, 오늘 원서 접수 날이라 오늘 가서 접수하고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어차피 한 번 대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더 배운다는 것의 중요성이랄까..그런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학 가셔도 열심히 해야죠.

(3) 정체성과 자신감의 변화

저는 솔직히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북한 애들은 아직도 남자는 완전 하늘이고 여자는 완전 복종해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저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결혼은 아직 멀었죠.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애 낳기도 싫어요. 저는 구속당하기가 싫어요. 그럴 것 같아요. 결혼해서 계속 쟁겨줘야지..애 낳으면 애한테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결혼은 제가 남한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나이가 들었다면 한 서른 살이면 남자하나 잡아서 정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은 할 일이 많고 나름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별이는 내가 할 수 있고, 만약 선을 봐서 남자를 만난다 해도 그 남자한테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계속 그러기는 싫으니까..책잡힐 수 있으니까..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 남자 부모님 고향이 저쪽이면 저를 반가워는 할 수 있죠. 근데 정착 자기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가족이 다 그쪽에 있고 좀 어차피 전혀 안보고 그 사람만을 딱 보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가정환경, 어떻게 자랐나 같은걸 보니까..저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호의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애인이면 좋아하니까..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론 두려운 것도 있어요. 남한, 북한에서 저희는 가운데거든요. 둘 다에서 살아보고..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남한도 결국은 북한이랑 통일을 하면 우리 입장이 제일 곤란해 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통일이 돼서 친척들 다 만나고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더 이상 우리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를 한국 사람처럼 받아들여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넓게..제 친구랑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통일되면 북한에서 받아들일까? 한국도 입장이 난처해 질 것 같고..외국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냐? 저는 북한에 가서 땅 살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서도 안살구요 외국 나가서 살 것 같아요. 요즘에 외국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저는 어학연수 식으로나 가면 가지..어차피 저는 여기서도 정착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는 애들은 다 정착을 못해서 가는 거거든요..근데 거기 간다고 해서 더 정착이 잘될 건 없고요. 여기서 가져간 돈을 정착금이 다 떨어지면 거기에서 난민으로 가장해서 돈을 또 받아먹고..그러다 돈이 또 떨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정착을 못하고..떠돌이죠..한곳에서 일단은 정착을 잘 해놔야 해요 그래서 기반을 잡고..저는 여행이나 가고 싶지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남한사람들이 왜 우리가 북한 사람한테 돈 대줘야 하

나 불평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힘들게 살잖아요 다..근데 우리가 거기서 왔다는 이유만으로..저는 좀 미안한 게, 저희가 대학을 좀 특례를 받아서 들어간다는 게..그래서 앞으로는 대학 가서도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더 티를 안내려고.. 새터민이라는 티를 안내려고..아무리 친구라도 그런 특례를 받았다는 게..한국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저희가 아니까요..미안해서 말을 더 못하겠어요.. 특례 받아서 들어왔다는 말도 못하고..새터민이라면 다 알잖아요 특례를 받아서 들어왔다는 거를..그러면 친구 사귀기도 좀 그럴 것 같고..친구 사이에 벽이 생기기도 할 것 같고..그 애들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저희는 다 명문대가잖아요..

저희의 어린 시절이 여기에 없잖아요. 추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좀 낯 설어요. 진짜 내 나라다 뭐 이런 느낌은 없어요. 나중에 여기서 생활한 시간이 많이 지나면..제 친구는 여기 온지 6년 됐거든요. 고향 같대요. 우리는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되서..작년 4월, 9월에 왔으니까..

짜증날 때가요. 꼭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축구경기 할 때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냐..그건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중립이잖아요 저희는..그래서 저는 아예 안 봐요. 근데 저희 엄마는 완전히 한국 응원하고..근데 그것도 또 듣기 싫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0년도 더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불쌍한데, 그래도 응원해라. 그러시죠..북한이 잘하면 저희도 솔직히 자랑스러워요..

(4) 앞으로의 구상과 전망

저는 종종 금방 온 애들한테 일일교사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무조건 대학을 가라. 우리는 정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잡아라. 근데 안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거의 안가요..

물론 저쪽 하고 문화나 분위기가 많이 틀려서 대학 다니기가 힘들겠죠. 적응도 안 되고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고..그래도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알아요.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가 참 무서운 게요,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가는 대학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니까..좀 부담감도 있고,우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게 정말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해야 하는데..일단 기초가 없으니까..

2) 영화 (가명, 23, 여, 여명학교 학생, 대입준비, 작년에 한국에 옴)

(1) 남한에서 정착 과정

대체로 잘 살다가 온 사람들은 잘 살아보자 했는데 와서 현실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괜히 왔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서 살아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만족하는 상황은 그나마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요. 근데 저기서는 대가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면 그 많이 번만큼 다시 들여놔야 해요.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내야 되요. 그렇다고 놀면 좋은 게 아니라 놀면 찢려서 감옥 가야 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많이 멀어요. 평양에서 무슨 일이 나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막막해질 때 더 이상 일이 안보일 때 중국을 생각해서 나왔다가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구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 찾아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팔려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저희는 못사는 사람들 대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단지 제가 중국에는 엄마를 찾아서 왔다면 한국에 온 이유는 진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그것 하나였어요. 그걸 제일 갈망했어요. 솔직히 중국에 있을 때 앉아서 티비보고 있으면요 밖에 싸이렌 소리 들리면 제 인상부터가 틀려진대요. 사람이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정말 더 큰 것 같아요.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해 지고 짜증 많이 내고..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 갈망한 게 제발 마음 편하게 살자. 솔직히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길이 이렇게 넓을지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공부할 나이도 지났고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한국을 온다 해도 기술 같은 거 배워서 일을 할 거다.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거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르니까 안 그래도 한국 사회를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끼어들려고 하면 되게 암담한거예요. 기초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봉 뜨는 것 같고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항상 막 공부할 나이에 다른 애들이 책가방 매고 노래 부르면서 학교 가는데 저는 지게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고 그랬으니까 그걸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요번에 진짜 힘들었던 게 저는 선택이란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솔직히 외동딸이라서 선택이란 게 없었어요. 무조건 다 내거. 그리고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선택을 해

야 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진로를 일단 선택하는 게, 내가 솔직히 대학을 4년을 그냥 즐기는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그게 4년 후의 나의 진로와 연결이 되니까 참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남한상황중 제일 어려웠던 게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어디서 왔어요..이야기 하고 억양이 그나마 따라 하기도 하는데 사투리가 많이 섞이고..그쪽 사람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겠는 거예요. 용어도 다르고 외래어가 많이 섞여서..그게 켈 어려웠고요. 인식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원에 있을 때 서울 고등학교에 잠깐 나갔었는데, 애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서 담배 피우고..근데 저는 설마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피울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만해도 학교에서 그런 게 없었네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밥 먹으러 가지하면 그 말 한사람이 밥값을 내는 거예요. 더치페이라는 그런 게 참 생소해요. 교육을 다 받고 나왔어요. 그때 친분을 맺은 애들이 다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구나. 만약에 언니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밥 먹으러 가지하면 저는 살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언니 오늘 밥 먹어요 해서 먹었는데 이차까지 가서 계산을 한 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거기 다닐 때 영어공부를 하려고 같은 반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영어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얼마 줄 거냐고..과외비 얼마 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저는 정말 그때 참 충격을 받고..남한사회가 이런 데구나..뭐든 다 돈으로 돈 위주더라고요..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친구 끼리면 같이 어려운거 도와주고 당연히 그러거든요. 친구니까..근데 여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든 하나를 해도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따지고..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힘든 게 시간 관리예요. 저희는 시간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돼요. 계획표를 써 놓고 저녁에 들어와서 체크해보면 50프로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그렇게 살다보니까 저 자신을 틀에 딱 맞춰 놓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계획표 세우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한다면 하는데 너무 딱딱하게 해 노니까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공간을 좀 넣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계획표가 없이 제 방식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능률도 오르고 편해요. 그게 더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가 예민 할대로 예민한 상황이 북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위한 투쟁을 해야 하니까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는데, 중국에 가면 난 북한에서 왔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면 너 이거해 하면 해야만 안 잡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다보면 제가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신분차이 같은 그런 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고..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들도 오는 과정에서 미쳐버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요, 몇 달 동안 한 배에 200명 있어요,

(2) 학습의 경로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에 제가 갈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될지는 한번 도 생각도 못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겠다. 정말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공부만 했어요. 영어도 처음 a,b,c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사실 제가 북한에서 원래 학력대로라면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는데..검정고시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중검. 고검. 1년 새에 다 보고 지금은 대학입시 준비하고 있어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아이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3) 정체성과 자신감의 변화

저는 생각이 어찌면 지금 자라는 20대 애들은 분단의 고통을 겪어 못 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50대 이상 분들은 겪어봤잖아요..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올지도 모른다 생각해요. 고향이 평안남돈데, 우리 북한에 친척 있어..이런 식으로 50-60대 분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젊은 애들은 오히려 안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귀어야 한다. 이성친구로 볼 때는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편적인 북한 인식을 볼 때는 솔직히 대학생들은 통일얘기 하긴 하는데 그건 어찌면 젊음의 그런 거..저번에 지하철을 탔는데, 이명박이 광복절 어찌고 하면서 싸인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런 애들도 있구나..근데..제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요, 한번은 그 오빠가 대학에서 돌 맞을 뻔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한 학기에 500꼬박내면서 공부하는데 왜 저만 애들 우리학교에서 공부 시키냐고 왜 북

한 애들 우리학교에서 공짜로 공부 하냐고 그러면서 학교에 막 항의들이대고 그래서..보편적으로 볼 때 통일을 원하는 애들보다 그냥 이대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한 애들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솔직히 통일 됐으면 좋겠냐 8명 정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세명은 되면 좋지 북한에도 가보고..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통일을 진짜 아파서 원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에 그런 애들이 있고..통일되면 우리나라 못 살 것 같아..왜냐면 북한이 너무 떨어졌으니까..그 중에 좀 깐 애들은 통일이 되기 전에 북한이 어느 정도 잘살게 돼서 그 상황에서 통합하면 되겠다.. 그런 애들은 되게 앞서서 생각하는 거죠.

요즘 외국으로 가는 북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는 딱히 정착을 못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남한에서 살면 항상 탈북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살자.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여기서 정착을 못해서 가는 사람들이겠지만..저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항상 뉴스에서 새터민 어찌고 저찌고.. 잡지 같은데 봐서도 그렇고..항상 새터민이라는 게 따라다니잖아요..그럼 진짜 싫어요. 나는 여기서 평생을 그냥 탈북자 새터민으로 늙어 죽겠구나..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게 싫으면 저도 나갈 수도 있겠죠..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나가기 싫어요, 솔직히 한국은 왠지 친근감이 많이 느껴져요. 말도 통하고 어딘가 모르게 타향이다 이런 감은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나마 조선족 있어서 말은 많이 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하고 조선이란 민족이 많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많이 그랬고요.. 솔직히 영국 나가는 친구들 보면 왜 여기서 정착 못해서 가나..거기 가서도 잘 살겠어?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항상 따라다니는 신분차이.. 어찌 보면 탈북자들을 중국 동포만도 못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교포들은 한국에 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들은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고 이런걸 알기 때문에 재네 뭐냐. 중국 애들은 오히려 세금 비싸게 내고 와서 돈 벌러 온 건데..재네는 뭐냐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냐..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열 받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학 특례입학도요.. 들어 갈 때는 저희가 특례를 받아서 가지만, 들어가서 상황은 똑같잖아요. 근데 대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도 재네는 공부도 안하고 다닌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일단 특례를 받아 들어간 거는 미안해요. 하지만 들어가서 졸업하는 애들은 그만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한 애들은 특례로 들어가서 애는 공부안 하고 들어간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어차피 들어가서 공부 안하면 예프 맞아서 떨어지는 거는 다 똑같고, 저희가 교수님한테 특별히 점수 받는 것도 아니고..솔직히..탈북자들이 그런 거 많아요..일하기 싫어하고, 집이 없으면서 차 사고 그런 거 많아요..나부터라도 내가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열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대준 사람이 다 잘 살고 잘 정착하고 잘 살면 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도 열 받을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요.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설이 되면 떠오르는 추억이 저희는 남한에 대한 것이 없고..추억이 있다면 진짜 고생스럽게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김정고시 봤다. 저는 한국에 와서 시험밖에 본 게 없어요. 어릴 때 뛰놀고 그러던 추억이 생각나서..북한에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죠 아무래도..아직까지 솔직히 남한에 정 같은 게 없어요. 특히 저는 가족이 없어서.. 남한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남 북한 축구 할 때는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냐. 저는 그냥 비겼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약물 때문에 퇴장당한 북한선수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많이 났어요. 일단 참가했으면 좀 잘하지..왜 그렇게 돼서 퇴장 당하냐..이왕 나왔으면 잘하지.. 북한이 좀 악독해요. 진짜 누구를 밟고 올라서는 그런게 강해서..어찌 보면 김정일 그런 거 때문에 더 잘하려다가 그렇게 된 걸지도 모르는데..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해서 떨어졌는지..

근데 진짜 화 나는 게, 약물을 복용했으면 들키지나 않게 하지..저는 차라리 다른 나라랑 경기해서 올라가던가, 들이 붙으면 비기거나..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이겨라 응원 못하겠어요. 한국하고 북한이 경기하면 그래도 북한이 이기기를 바라는데..아예 맞붙지를 앞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둘 중에서 탈락 돼야 된다면 차라리 안보구요, 그냥 비겼으면 좋겠어요..솔직히 마음은 북한에 더 가요..솔직히 북한이 남한보다 잘산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많이 못살잖아요. 그러니까 금메달이라도 좀 따면..돈은 못가지지만 이겼다는 자부심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어릴 때 추억도 있지만, 되게 아픈 기억도 많구요. 남한하면 허망한 기억이에요. 추억이 없기 때문에 아직..앞으로 만들어 가겠지만..

(4) 앞으로의 구상과 전망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요 열심히 공부해서 무사히 졸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초등교육이니까..선생님 돼서 학생들 무사히 졸업 시키는 게 목표구요..북한에서는 중학교를 오래 다니니까..중학교 때 선생님이 정말 중요 하거든요. 한 번 반이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그 반이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대로고..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졸업해서도 가장 많이 찾아가고, 많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저는 제가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결혼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결혼을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나오는 애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로 대학을 추천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대학을 추천하지만 내가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그 4년 동안 나한테 제일 관심이 있는 일을 하면 오히려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으라고..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처음에는 대학을 많이 권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길은 많이 열려 있거든요..

3) 철민 (가명, 26, 남, 셋넷학교 학생, 대입준비)

(1) 남한에서 정착 과정

저는 앰피쓰리 자주 듣는 편이에요. 어디 나갈 때는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음악 다운 받는 것도 예전에는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이것도 우리 아빠가요 컴퓨터에 깔아 준거예요. 아빠가 컴퓨터를 잘 하세요. 저희 아빠는 혼자서 공부 해가지구요, 타지는 잘 못치는데 인터넷은 잘해요. 조금 유식하세요...요즘은 이런 거 신세대가 더 잘하잖아요. 보통 자식들이 다 해드리는데..

저는 컴퓨터 그냥 할 줄은 알아요. 컴퓨터 뭐..많이 하지는 않고..예전에는 싸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저는 여기 와서 일반학교는 안다녔고 학원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전기쪽 다녔는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요즘에 아예 해외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저도 그래서 갈라고 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 갔어요. 저는 호주로 가고 싶었거든요..일단 호주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살 데가 많을 것 같기도 하구요. 일단 거기 가면 영어는 잘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지금 셋넷학교 다닌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학교도 예전만 못해요..학교도 예전에는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저의 부모님은 젊으세요. 46살이세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예요. 형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혼자여서 좀 외로웠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별로 그런 건 없어요..지금은 자기 앞날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데, 모든 게 귀찮아요. 시간 나면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고 노가리 까고..학기 중에는 학교 가니까 딱 거 할 거 없고, 방학 중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좋아하는 연예인 예전에는 전지현이 좋았는데..지금은..다 비슷비슷해서..그냥 좀 좋아하는 거지 남들처럼 뭐 팬이고 그런 건 없어요.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여요. 노래는 주로 발라드를 많이 들어요.

저는 알바 딱 세 번 해 봤어요. 오래는 아니고 삼일, 사일 해보고..썬빙 토요일 마다 하는 것 해보고..용산 보조 한 사일동안..어디 와이티엔인가 거기 다큐멘터리 찍는 거 보조 사일 해보고..썬빙이 엄청 힘들었고요..새벽 네 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아홉시 까지..어깨 다 빠지고 엄청 힘들더라고요..일단 피곤한건 없는데, 뭘 들고 왔다 갔다 하고..손님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고..썰매가 없어요. 오후 네 시 되니까 그때야 손님이 좀 비고..그때 점심을 먹어요. 일당 6만원..일당 받고 그걸 모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술 먹고 그걸로 다 쓰고..일하고 나니까 힘들니까 술 먹고 좀 그러면은 몸이 좀 풀릴까 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저도 저기 중국에서 한 2년 동안 일 했는데요, 여기가 엄청 더 힘들더라고요. 중국에서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11시까지..식당..거기는 별로 힘들지가 않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친척집 식당에서 서빙 했거든요. 호텔이 하나 있고 큰 게..나머지는 그냥 밥, 반찬..부페식이예요. 원래 조선족인데, 진짜 못살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식당을 하나 꾸려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그렇게 돈 많이 벌고..

여기 넘어올 때 대련인가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까워요. 북경에서는 기차타고 한 하루는 가야 되요. 버스가 침대 버스예요. 아침에 타면 저녁 밤 돼야 나오고..

(2) 학습의 경로

학교에 하루 종일 있어도 애들이랑 놀면 별로 지루하진 않고, 공부는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한두 시간은 자유 시간 있으니까 나가서 놀기도 하고..지금 공식적으로 선생님은 4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예요..

작년 10월에 네팔에 갔었어요. 일단 갔는데, 먹는 거 자체가 틀리더라고

요, 산에 하이킹 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8박9일 동안 올라갔는데, 고기를 전혀 못 먹으니까..내려와서 삼겹살 그렇게 먹었는데도 살이 엄청 빠져가지고..가파른 길로 갔는데, 저는 가파른 길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완만한 길은 코스가 더 길어요. 이쪽은 열 명 정도..올라가면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저녁에 숙소 잡아서 애들이랑 게임하고 놀고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살이 너무 빠져서 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엄마가 고기 엄청 먹고, 결국 다음 주에 다시 쪼여요. 저는 2004년도부터 여기 다니게 된 것 같은데..학교에 저보다 오래된 사람들 많아요.

학교 수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면 중간에 애들이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 수업만 하면 애들이 듣기 싫어하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검정고시 세 번이나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저도 아마 내년 2월 달 쯤에 대학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만 빠지면..보통 학교를 3년 다니는데요..저도 3년..뭐든지 하려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중간에 나가는 애들 빼고 보통 3년이에요. 저랑 한 세명은 열심히 다녔어요.

(3) 앞으로의 구상과 전망

앞으로의 계획... 한 달에 몇 번씩 바뀌요. 이거 하려다가, 저거 하려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고...그거 때문에 집에서 구박해요. 나이는 먹어 가는데..일단 네가 하는 거니까 뭐든 하기는 하는데..일단은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라 해요..

저는요 먼 미래에 제가 바라는게요, 기술 자격증을 따면요, 급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일 밑에 거 따고 그러다가 그 위로 올라가고 20~30년 후에는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고..그래서 대학교 거기로 갈려고 하고..

4) 송이 (가명, 19, 여, 셋넷학교 학생, 대입준비)

(1) 남한에서 정착 과정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제 생각하고 많이 달라서 좀 실망했던 점들도 있었어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그런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생각이 잘 안나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여기서 제가 적응이

때서 그런지.. 물론 아직도 제 뜻대로 안 되는 점은 많죠. 가령 혼자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집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알바하고 싶은데 그것도 공부 땀에 잘 못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점이 많죠.

제가 여기 와서 일반학교를 좀 다녔었어요. 거기 일반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랑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해요. 근데 일반학교 지금은 안 다녀요. 제가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결석처리가 많이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다니게 됐어요. 학교 가서 애들이랑 노는 거는 참 재미있는데 공부하기는 정말 싫었어요. 그냥 저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벌고.. 학교 그만두고 3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일하기도 했었어요... 학교를 딱 그만두고 한 6개월 정도는 놀았죠. 근데 그게 계속 노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했죠. 3개월 정도.. 그러다가 알바 그만두게 돼서 또 좀 놀았어요.. 근데 또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해볼까 해서 여러 학교 알아봤는데, 처음엔 셋넷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다른 학교에 갔는데 안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학교들이 공부위주로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금방 북한에서 나온 사람 위주로 받더라고요. 한겨레를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한에 온지 너무 오래 되어서 다른 애들 물들일까봐 안된다고.. 어이없었죠. 거기는 다 금방 온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셋넷에 다니게 됐어요. 근데 와보니까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노는 걸 좋아하는데, 셋넷은 캠프도 많이 가고, 해외도 가고 재미있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남한 와서 하나원에서 교육 받고 나오면 가족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끼리 알아서 일반학교 등으로 가고, 가족 없는 애들은 주로 한겨레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숙식도 제공하고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요. 간혹 가족하고 같이 온 애들도 들어가고요.

요즘에 방학이라서 여기저기에서 캠프 같은 거를 많이 가요. 그래서 요즘에 재미있어요. 어제도 셋넷에서 캠프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오늘은 그거 사진 올리고.. 내일부터 또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캠프를 가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랑 거기 가서 입을 수영복이랑 이것저것 사려고 나왔어요. 저는 여기 남한 와서 남한구경은 많이 다녀 본 것 같아요. 주로 학교에서 캠프 많이 가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많이 가요. 외국은 저번에 학교에서 네팔 간 것.. 그때 엄청 좋았어요. 재미있고.. 8박9일 동안 갔었는데, 히말라야 등반 했었거든요. 올라 갈 때는 내가 이걸 왜하나 싶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해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좋았어요.

저는 셋넷와서 제 적성에 맞고 재미있는데 왔다가 그만두는 애들도 종종 있어요. 공부는 해야겠고, 자격증 때문에 왔다가 안 맞아서 애기 없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주로 자격증 때문에 많이들 오거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졸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졸업자격 얻어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려고 오죠.

학교 말고 북한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북한 사람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모임 하는 거는 있어요. 송년회 식으로. 나이는 상관없고 북에서 온 사람이면 되거든요. 여름에는 다 같이 여행 가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저는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기 가면 연락이 안 되던 같은 기수(하나원)사람들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끼리 그렇게 많이 친하거나, 자주 연락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2) 학습의 경로

저는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인문학이라는 걸 그때 처음 접해봤는데, 좋았고요, 선생님이 강의도 너무 재미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주제가 저는 ‘죽음’이었거든요. 평소에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그 수업 듣는데 정말 신기 했어요. 그리고 ‘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 하신 것도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 전에도 셋넷학교에서 인문학 프로그램 같은 거 미래준비반에 있기는 했었는데요, 검시(검정고시 준비반)랑 전체 같이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도움이 많이 됐나 하면...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느낌은 참 좋아요. 인문학 이란 게 어떤 거구나, 생각도 해 보게 되고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요.

이번에 저는 검정고시 봤는데요, 떨어졌어요. 내년엔 또 볼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려고요.

(3) 정체성과 자신감의 변화

요즘은 해외로도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영국으로 가는 게 유행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가요. 어차피 거기 가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여기서는 좀 생활했고 말도 통하는데 그냥 자네지 왜 가나. 제가 보기에는 남한이 차라리 외국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일단 말도 통하고 하나까..외

국가면 말도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하나까 힘들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도 아, 우리가 한 민족 이구나 그런 생각 처음에는 안했어요. 솔직히 북에 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도 교육을 심하게 받으니까. 그런 생각 전혀 해 본적이 없거든요. 거기서는 이에 한국이란 건.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하거나 얘기는 하는데 남조선 못산다.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재하고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전에 학교 수업에서 역사를 배우는데 원래는 우리가 진짜 한민족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4) 앞으로의 구상과 전망

앞으로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원래 유치원 선생님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 두 개 중에서 고민하다가.. 뭐 사회복지사 되도록 주로 아이들, 청소년들 관련된 일 하고 싶어요. 제가 애들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직은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재미있고 좋아요. 10년 후, 20년 후 정도 생각은 해 봤죠. 그 때쯤이면, 결혼도 했을 것 같고, 애도 한 세 명 정도?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5) 명희 (18, 여, 셋넷학교 재학, 고검반)

(1) 남한에서 정착 과정

저는 일반학교 다닌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때도 노원구에서 다녔거든요. 아주 엉망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왔으니까 말을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많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했고.. 억양이나 단어.. 여기서 쓰는 거랑 틀려요. 안 틀리는 것 같은데 되게 틀린 게 많아요. 그런 게 틀려가지고 대화를 되게 안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충주 가서 지방 내려가서 다녔는데 그때는 훨 낫더라고요. 제가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셋넷 다니면서 이제 3월에 고등학교 들어가려고요. 저도 대학을 가야죠.

(2) 학습의 경로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은 제 생각에 공부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수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숙되는데 도움이 되나. 좀 지루하게 듣는 애들도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주제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해 했던 거였거든요. 만약에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일먼저 생각나는 게 곤충이에요. 곤충들이 많이 생기고..근데 제가 곤충을 징그러워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곤충을 되게 징그러워해요. 바퀴벌레 보다는 거미를 진짜 소름끼치게 무서워해요. 그냥 무서워요. 저희는 몸에 거미가 매달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산에 막 다니니까. 거미줄..그 느낌이 싫어요. 꿈을 한번 꿴데요. 이 거미가 완전 다리 하나가 손가락 두 개 합한 것만큼 이렇게 큰 거미들이 갑자기 양손에 매달려서 징글징글 한 거예요. 충격 받았어요. 놀라서 깬어요.

요즘에 영어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 번 해보려고요. 영어로만 수업하는 확연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생긴대요. 국어랑 영어수업도 영어로 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고등학교 가면 영어 완전 장난 아니래요. 애들이 완전 초등학교부터 영어로 공부해서 ..벌써부터 걱정 되요..근데요..외국 사람들 말로는 한국말이 더 어렵대요.제 생각에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영어랑 많이 비교해 봤거든요. 영어가 쉬워요.

셋넷 학교는 꼭 북한 같아요. 어찌 보면..너무 북한 애들만 있어서..분위기가 남한 일반학교랑 너무 틀리잖아요. 물론 재미있고 그런 건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 못나갈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 공부하면..어린애들은 되도록 거기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학교에서 나와서요 셋넷학교 다니니까요 갑자기 남한 애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판 세상 같고..좀 그렇더라고요..갑자기 거기서 막 북한말 나오고 북한 사투리 나오고 안 나오던 말이 다 나오고..나이 들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어린애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벽이 없어요. 일반학교는 되게 많이 딱딱한데.. 나이 들수록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셋넷이 더 좋을 수도 있죠.판 대안학교는 안 가봤어요.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한때는 되게 열광적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래요 다니긴 다니는데..

제가요 암기과목을 정말 싫어하거든요..수학이고 국어고 다 좋은데, 점점 국어가 싫어져요. 좀 막연하잖아요. 좀 딱 떨어지지 않고..끓고 맷고가 정확한 거 그런 게 좋은데..

(3) 정체성과 자신감의 변화

학교에서 항상 시달리다가 요즘에 집에서 쉬니까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더

힘들어요.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제가 워낙 새벽부터 날뛰고 그래서..집이 멀거든요..근데 저보다 먼 사람 있어요. 포천에서 다니는..두 시간 정도 걸린대요..지하철에 버스에 막 타고 다닌대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와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집까지 2분정도 거리였거든요. 근데 30분부터 시작이면 30분에 집에서 나가요.

방학이니까 요즘에 여기저기 수련회 캠프 같은거 많아요..다른 애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시설에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들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8월에..저 쉼터에 있거든요..거기에서 8월에 어디 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9월에 간대요. 춘천에 무슨 섬 있는데 간다더라고요. 그 섬 되게 예쁘대요.. 예쁘고.. 제가 기억력이 좀 없어요.. 근데 저는 수영 잘해요. 그냥 막 다해요..원래 수영장 가면 물을 많이 먹어요..저는 많이는 안 먹어요. 근데 예전에 흙탕물 같은데 들어갔다 물 많이 먹었거든요..그때 정말..

요즘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갑자기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하루 종일 자고.

저희는 뭐든지 다 잘 먹는데..양식은 거의 못 먹겠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먹어봐서 그런 것 같아서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준기예요..참에 볼 때부터 좋았어요..딴 애들은 다 모르겠어요..딴 애들은 보면 여자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좋아요.

여행 많이는 안다녔어요. 서울에서 서울랜드 정도 가보고.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해본 적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주변 언니들은 아르바이트 많이 해요.

이제 학교가기 시작하면은 고생이 시작이에요. 집에 있는 게 그래도 나아요. 저는 (셋넷)학교에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 다니고..검정고시 된 것 같아요..그게 60점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평균이 60넘으면 된대요. 아무리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난다해도 합격 된 거겠죠. 그것도 합격 못 하면 쪽팔리죠. 고졸도 아니고 고입인데..

(4) 앞으로의 구상과 전망

10년 후에는 별로 생각 안 해봤고요....40, 50년 후에는 생각 해봤어요..저는 결혼 늦게 할 거예요.. 애는 생각 안하고 저만 생각 했거든요. 적어도 어떤 위치에서 안정적하게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뭘지는 몰라요. 전 항상 확실한 게 없어요. 늘 바뀌기 때문에..

저는 원래 집에서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원래 독신주의 이런 거 강해

요. 만약 아빠 있었어도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 나온 거예요. 고집이 원래 세요..저도 대학을 가야죠. 계획은 그래요. 대학 가기로..근데 일단 대학은 간다 했는데, 제가 많이 바뀌요 시시때때로..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법대 아니면 정치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정치계..뭔가 좀 일을 하고 싶어요. 좀 염치없게 꿈은 커요. 예전에 변호사 같은 거 생각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별로 큰일을 못해요. 제 생각에는..법을 바꾸고..바꿀 거야 많죠..저는요, 여기 중심이 아니고 북한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통일되면 거기로 가서 거기서 일하려고요. 일단은 김일성, 체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바꾸고..거기에서 함북도에서 살았어요. 거기까지 김정일 힘이 다 미쳐요. 만약에 저랑 누구랑 말한다면 누가 스파이 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상대방을 못 믿어요. 말 잘못했다가 신고당하면 감방가요. 대신 신고 한 사람은 돈 받고..그런 거 싫어요. 근데 제가 외우는 거를 잘 못하는데 법전도 외우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만 해도 고민 되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그거 외에 지금 찾고 있어요..또 제가 미용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제 동생 머리 제가 깎아 줬는데 요 엄청 좋아했어요.

2. 진로탐색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사례)

(1) 인문학(人文學)이란 무엇인가?

주제: 사람과 동물, 무엇이 다른가?

일시: 2008. 05. 13

인문학(人文學)이란 무엇인가?

人: 인간이란 무엇인가?

人間, 時間, 空間

文: 글자, 문자

인간은 언제부터 글자를 만들었을까? 왜 글자가 필요했을까?

➡ 사람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상업적 목적(거래기록), 행정적 목적(군대징집, 세금), 종교적 목적 등을 위해

동양문화권은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붓글씨 수련 등)

‘어눌하다’= 言内(말을 안에 넣어둔다)

文이라는 것은 다듬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그렇다면 “다듬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 인간에게 있어 거친 것을 다듬는 것이 文

너무 다듬으면? 적당히 해야 호감. 인문학은 자기를 다듬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

자기를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혼자 있을 때나 남과 같이 있을 때

인문학은 사람에 대해 쓴 글들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다듬는 학문. 흔히 문사철(文使哲)이라고 하는 문학, 역사, 철학 등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문

인문학을 하는 목적은 자기를 잘 알아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 시대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할 것이 많은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번학기 인문학 프로그램의 목적은 나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

정성이란?

➔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흔히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을 하는데 인간이 짐승만도 못할 때는 언제이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 동물은 배움이 없다.

인간이 성희롱, 강간, 바람피우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욕하는데 실제 짐승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잔인한가?

➔ 진짜 잔인한 것은 자기들끼리 죽이는 것. 침팬지, 호랑이, 사자 등

동물들은 감정이 있을까? 개미는 감정이 있을까?

➔ 있다: 새끼를 지극하게 돌본다

➔ 없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뇌의 크기에서 온다. 뇌가 발달할수록 몸에서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뇌가 클수록 감정이 많아진다.

“가슴이 출렁 거린다”는 표현 역시 머리가 느껴서 가슴으로 전달하는 것

인간의 복잡한 감정 중에 동물도 가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슬픔이요. 강아지 새끼 죽으면 울어요.

맞아요. 소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새도 자기 새끼가 차에 치이니까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울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두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그 감정이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동물이 확실하게 갖는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표정을 보면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죠. 물론 개미 같은 것이 표정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기는 힘들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동물에게 두려움이 왜 필요할까요?

자기가 잡혀 먹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오래 살아남겠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자기보호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간혹 인간 중에서도 뇌를 잘못 다쳐 감정이 모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두려움이 없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 사자, 호랑이, 코끼리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도 야생에서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의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포유류에 속하는데 포유류는 아시다시피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입니다. 이들의 새끼는 오랫동안 어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인간의 아기는 더 오랜 기간 어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죠. 그만큼 자연계에서는 생존의 확률이 적어요. 또한 인간은 몸집에 비해 가장 약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나마 손과 입이 가장 강하지만 그것 역시 다른 동물과 직접적으로 붙었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지금 여기서 손톱 갖고 싸워서 강아지나 고양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학생들: 아니요) 네 없을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야생에서는 살아남을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도 머리(뇌)가 있어 문명을 건설하고 살아남은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가정해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 죽은척해요. 나무에 올라가요. 동물 같은데 들어가요) 그럼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호랑이가 밖에 있으면 어떻게 쫓을까요? (학생들: 불 피웁니다. 돌 집어던져요. 떡 쥐요(웃음)...) 중요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집어 던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정확하게 목표로 한 대상을 돌을 던져 맞힐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학생들: 아...) 이것이 가능해서 인간이 자연에서 그나마 선택될 수 있었던 거죠. 왜 다른 동물은 이것을 못할까요? (학생들: 손가락에 근육이 없어서요) 뇌가 발달하지 못해 손가락 조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른지 잠깐 봅시다. (인간과 침팬지 사진) 무엇이 다른가요? (학생들: 털이요. (웃음)...) 그렇습니다. 인간은 특정 부위에만 털이 있지요? 반면에 침팬지는 온몸에 털이 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왜 털이 없을까요? (학생들:)땀을 흘리기 때문이죠. 그럼 인간은 왜 땀을 흘릴까요? 체온 조절을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언제 땀이 많이 났을까요? 사냥을 할 때였을 겁니다. 화살을 맞은 동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일단 화살을 쏘고 긴 거리를 추격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마라톤을 해야 했는데 이때 땀이 남으로써 몸의 열기를 식힐 수가 있었죠. 인간의 신체 비율상 유난히 큰 것이 있죠, 뭐죠? (학생들: 머리요.)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 머리가 굉장히 큼니다. 성장하면서 신체가 4배정도 크는 것에 비해 머리는 거의 다자서 나오는 거죠. 왜 생일을 ‘귀 빠진 날’ 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머리가 워낙 커서 귀만 엄마 몸에서 빠져 나오면 나 나온 거라는 의미에서 생일을 귀빠진 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인간의 뇌는 침팬지의 3배정도라고 합니다. 침팬지 뇌 용량이 500cc 정도이고 인간은 1500cc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왜 터지는 걸까요? (학생들: 뇌를 안 써서요. 운동을 안해서요.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그림에서 보면 인간의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네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것을 대뇌피질이라고 합니다. 뇌의 다른 부분들이 이미 그 기능을 갖고 채워져서 나오는 반면 이것은 인간이 배워서 채워 넣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 무엇을 얼마나 배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양이 같은 동물로 실험을 해봤는데 태어나자마자 눈을 가리고 성장시키면 뇌의 시각 세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 장님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능력을 관장하는 세포는 10배까지 언어자극을 받지 못하면 퇴화되어 평생 언어를 배우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본능에 조금의 학습을 더해 생존하는 반면 인간

은 다른 동물보다 학습으로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이는 결국 인간은 제대로 많이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 저 그림의 물음표가 뭐예요?) 저건 인간의 미간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조절하는데 저 전두엽을 다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보시다시피 전두엽이 굉장히 작죠. 질문을 갖고 보는 것과 질문 없이 보는 것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영사기 소리)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를 선택하는 것도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유난히 많은 감정이 무엇일까요? 기쁨일 것입니다. 웃을 때 소리 내는 동물은 별로 없습니다. 울 때 소리 내는 동물은 가끔 있죠. 그렇지만 기쁠 때 소리 내는 동물은 드뭅니다. 그만큼 인간은 기쁨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물이고 그것이 없으면 쉽게 지루함, 권태를 느끼죠.

그럼 좋지 않은 감정 중에 인간에게 유난히 많은 감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 불편이요. 양심이요. 배신이요. 화내는 거요)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수치심이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 너무 자주 쓰는 말 중에 “쪽 팔린다” 하죠? 수치심을 느끼는 강아지 봤어요? 다른 강아지 부러워하는 강아지 봤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물은 없어요. 그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봤어요? (학생들: 네) 간혹 있죠. 그게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엇에서 기뻐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뇌가 크고 학습을 통해 채워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인간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인간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이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 다음시간 과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에 대한 각자의 에세이 쓰기.

[참여관찰]

10시 수업에 맞춰 30분전부터 학생들이 하나 둘 등교한다. 실내화를 갈아 신고 교실로 들어가기 전 핸드폰을 정해진 탁자위에 놓는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낯설어하며 눈치를 보는 학생들도 있고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한다. 고입검정고시 결과 발표 날이라 그런지 수업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 들뜬 것 같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와 조교들 소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한다. 은지씨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는데 남학생들이 환호하며 좋아한다. 유학을 앞둔 나와 종수씨의 소개에 솔깃해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느껴진다. 강사의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을 한다. 다소 장난스럽게 대꾸하는 몇몇 발랄한 여학생들이 분위기를 사로잡는다. 그에 비해 남학생들은 과묵하고 외부에서 온 두 여학생은 이런 분위기를 불편해한다. 간혹 학생들의 어처구니없는 대답에 조용히 화를 내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처음 듣는 스타일의 강의에 관심을 보인다. 수업이 1시간이 지나가자 조금씩 지루해한다. 검정고시 결과가 지금쯤 나왔을 거라는 생각에 초조하게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는 시간. 차례로 줄을 서 먹을 만큼 밥과 국, 반찬을 덜어와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에 상을 펴고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 틈에 끼어 밥을 먹는데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 간에 나이차가 많이 나고 한 살 차이라도 각듯이 존대를 한다. 먹은 그릇을 각자 설거지해야한다며 친절하게 알려주고 학생들이 먼저 일어선다.

(2)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주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일시: 2008. 05. 20

인트로(지난 시간 강의관련)

동물이 자연의 변화를 먼저 안다_ 코끼리/두꺼비, 개구리(중국 지진)/쥐(태풍)

오늘 주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새대가리라고 함부로 욕하면 안돼요.” _철새의 이동과 관련된 이야기 “알면 피로운 것. 알면 불행해질 거 같은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남들이 나에 대해 많은 얘기들도 했을 테고…”

학생“죽은 다음에. 암 같은 거요.”“죽는 날짜요.”

“인생이요. 내 능력의 한계, 적성… 또 성장 판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대상은 무엇일까?

_ 날씨, 건강, 마음, 사회 등

날씨_ 날씨정보회사는 이벤트 회사, 무역회사(냉장고, 에어컨, 아이스크림 등)에 정보를 판다.

건강_ 건강 상태를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다.

몸이 잘못되었는데 통증이란 신호를 안 주는 것이 암이다.

몸이 주는 신호, 건강 정보로 대표적인 것이 대변과 소변이다.

똥의 색깔, 농도, 굵기, 길이, 냄새, 횡수 등으로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학생 호응도 높아짐)

마음_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인 행동, 눈빛, 말투, 표정 등은 말보다 중요한 몸의 언어

“말하고 표정하고 어떤 것을 믿나요?” “표정ियो.”

문자메시지, 이모티콘의 오해 사례

“여러분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 얼마 만에 와야 씹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3분ियो”

문자메시지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학생 호응도 높아짐)

이제 그만 헤어지자/방금 보낸 거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잘못 보냈다

인간의 표정은 태어나서 한 달 뒤부터 가능

표정을 숨겨야 하는 직업(스튜어디스, 간호사, 연예인)일수록 스트레스가 많다.

사회_“사회에 대해서 알면 팔자 고칠만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로또요.”

“사회에 대해 이런 걸 알면 나의 삶이 정말 좋아지겠다, 행복해지겠다 싶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직업ियो”

빠르게 변하는 한국, 3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직업은?

_극장 간판, 버스 차장

컴퓨터 때문에 사라진 직업은?

_타이피스트, 은행 창구 직원들(ATM기 대체)

30년 전에 없다가 지금 생긴 직업은?

_이벤트회사, 컴퓨터 관련 직업, 애견 관련 사업

왜 역사를 봐야 할까?

_역사를 알면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그려볼 수 있

다. _역사의 중요성

“나의 몸과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알고 세상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알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이예요.”

사회의 흐름(트렌드)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말고도 하나 더 한다면 자연, 기후의 변화 같은 것. 예전에는 신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 지금도 우리나라 무당 20만 명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잘못 알아서 큰 코 다치는 것?

_사고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

[조모임]

팀별로 세 명의 조교 인터뷰 후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대답. 한 사람에게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그 사람들을 설명해줄 것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방식, 내용 관찰.

[참여관찰]

나를 인터뷰한 학생들: L, M, N, O

L와 M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서인지 N이나 O에 비해 소극적이고 눈치를 본다. 나이가 가장 많은 O(29세)는 내가 녹음기로 수업을 녹음하는 것을 보더니 약간 화를 내며 꺼달라고 한다. 곧이어 나이를 물어보고 내가 자신보다 두 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윤정쌤”이라고 호칭한다. 가족 사항, 학교, 연애여부 등을 물어보더니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 O와 L, M은 입을 다문다. N이 나의 유학 계획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며 학비와 학교, 전공 등 질문을 한다. 특히 적지 않은 나이에 미혼으로 유학을 간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자신도 늦은 나이로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보며 힘을 얻는다며 반가워한다. N은 공대(전문대)를 나와 컴퓨터 관련 기술 등을 배워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공부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하기에 고민이 많다고 하며 나의 유학비용과 장학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다. L과 M이 질문을 하지 않자 이런 기회를 잘 살려 ‘학습’하지 못한다며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며 나무라기도 한다. 매우 진지하다. 이런 방식

으로 관계맺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맥’과 ‘정보’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학생들에게 훈계한다. 어린 여학생들은 나의 연애와 쇼핑, 화장, 옷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과 대조된다.

전체 질문과 답변 시간, 다른 조들도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오고가고 남 자조교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이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호기심 이상의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없는 듯하다. 이것이 낯선 이 에 대한 경계인지 무관심인지 잘 모르겠다. 강사에 대한 태도나 질문의 수 준이나 방식에서 볼 때 수업내용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있어 하지만 딱히 무언가를 배우거나 공부한다는 느낌 없이 재미있게 논다는 생각이 지배적 인 것 같다.

(3) 인간의 뇌, 기억력, 그리고 역사

주제: 인간의 뇌, 기억력, 그리고 역사

일시: 2008. 05. 27

[수업전 강사 공지]

장난스럽게 쉬는 시간에 농담하듯이 대답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진지하게 수 업 참여 부탁

머리가 좋다는 의미

➔ 뭘 잘한다? ➔ 공부를 잘 한다

➔ 생각이 깊다

➔ 박지성은 머리가 좋은가 ? ➔ 좋다/나쁘다.

➔ 운동선수는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다.

➔ 특별히 축구는 정해진 것이 없기에 창조력 필요. 동시에 신경 써야 할 것 이 많기 때문.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것(흔히 우리가 공부와 관련해서)의 의미와는 다름

지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공간

음악 : 음악작곡, 연상능력(음악을 듣고 기억하는 것)

언어 :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포함

수학

신체지능

대인관계 지능 : EQ,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파악함

성찰 : 자기를 잘 이해하는 지능

➔ 상당부분은 기억력과 관계. 기억력이 좋은 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흔히들 인식

➔ 학자마다 여러 방법으로 분류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기억력이 좋다.

➔ 인간은 뇌에 걸리는 질병이 많다.

한국인이 잘 걸리는 질병

1. 압

2. 뇌질환 ➔ 뇌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그래서 발병 전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상 징후가 생김(평소에 하던 일을 잘 하지 못한다던지 등등)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과 뇌경색의 차이는?

1) 혈관이 터지는 것 : 뇌출혈

2)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있는 것 : 뇌경색

* 뇌는 약 20초 동안 피가 흐르지 않으면 기능정지

➔ 3,4분 정도 지속되면 뇌사 -> 재생하지 못함

➔ 뇌가 이상이 생기면 신체 언어적 기능이 평소보다 떨어짐

치매

➔ 원인이 너무 많음 100가지 이상.

➔ 뇌세포가 죽음. 치료약이 없고 속도를 늦추는 약밖에 없음

➔ 치매 초기 증세 (최근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전일은 기억)

*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 건망증은 기억을 잊은 것을 인지, 치매는 인지하지 못함

* 기억

➔ 이것이 모이면 역사가 된다.

집단의 기억은 곧 역사

➔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

ex) 영화 'Final Cut'

줄거리 ➔ 사람이 태어날 때 뇌에 무언가를 심어 그 사람이 본 모든 것을 기록. 그 사람이 죽은 후 그것을 꺼내서 1시간짜리로 편집해서 1년 후 추모회에서 상영. 편집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짐. 주인공은 그것을 편집하는 사람으로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게 편집.

➔ 역사도 위의 영화와 같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도 누군가의 기록(편집)에 의해서 기록됨

➔ 역사를 집필할 때 어떠한 가치가 들어감

➔ 무수한 사건들이 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다시 역사학자가 재배치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질문 : 조선시대와 지금은 매우 다르다. 만약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 한국 사회에 오게 된다면 무엇에 충격을 받을까?

➔ 조선시대는 연대 상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이지만, 현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 1500년경에는 한반도 전체 인구는 약 1000만, 조선건국 초 서울 인구는 약 5만 명

➔ 20세기에 인구가 갑자기 늘었던 이유에는 의학이 발달(장수와 태아사망률이 낮아짐)과 인구 환경 위생의 개선 등이 중요한 원인

[조별로 토론]

우리가 만드는 인류역사 10대사건/뉴스

➔ 인간의 삶의 변화시킨 10가지 중요사건 발명 뭐든지 상관없음

[조별토론 참여관찰]

구성원: P, Q, L, M, N

O가 아파서 결석을 하고 N은 토론 시간에 뒤늦게 들어온다. 새롭게 P와

Q가 왔다. 지난 시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수줍은 듯 귀찮은 듯 처음에는 말이 없던 P가 시간이 갈수록 아이디어를 내고 수업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한 N은 한동안 분위기만 살핀다. L와 M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토론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각자가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보라는 말에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린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론이 잘 안 되는 걸 느꼈는지 Q와 P, N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이야기를 한다. 토론의 주제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반적인 세계사나 인류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더 이상 사고의 진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정상적인 한국 학교의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대화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판단. 토론을 이끄는 주체가 없어 자연스럽게 조교가 간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듯 쉽게 입을 못 떤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노출이 조금 있는 옷을 입고 온 M. 그녀의 수업에 별 관심 없는 듯한 태도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듯하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듯한 L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노아의 방주 등)을 인류10대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N 등과 언쟁을 한다. 탈북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는 참으로 다른 면면을 보이는 아이들의 차이가 갈수록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 조에서 나온 인류 10대 사건: 1.도구사용(철기, 금속, 청동기 등이 중요했을 거라는 의견 부분) 2.시계 3.산업혁명 4.세계대전 5.인터넷 6.종이 사용 7.아파트 8.나침반 9.전기 10.지도제작

11.비행기 12.화약 13.신(교회)

세 조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 정리

불, 언어, 문자, 정착과 농경, 바퀴 등의 도구 사용, 시계, 나침반, 인쇄술, 통신 기기, 화약, 전쟁, 자연재해 등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 설명. 한 조에서 ‘셋넷학교 창립’이 나오기도 함. 각자의 인생에서 볼 때 이도 중요할 수 있음.

[다음시간 숙제]

5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있을까에 대한 에세이 쓰기

(4) 50년 뒤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주제: 50년 뒤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일시: 2008.06.03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 중국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차지할까?

➔ 13, 14, 15번째 정도(남북한, 조선족, 교포 등등...)

말이 없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실험1]

5명 학생이 나와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말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만으로 내용 전달하기

➔ X, U, S, V, Y 나와서 U가 텍스트 읽고 나머지 사람에게 차례로 내용 전달. U가 계속 어렵다고 투덜거리다 못하겠다고 들어가고 N이 대신 나와 전달. N의 표정과 몸짓에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 다섯 명까지 전달하기 힘들어 셋으로 줄임

*전달 문장: “호랑이가 오니까 불을 피워서 내쫓자”

➔ 다시 세 사람이 나와 다른 문장으로 실험.

*전달 문장: “눈이 내리니까 토끼 잡으러 가자”

말이 안 통할 때 답답한 상황 경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아닌 몸짓으로 소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 화났을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 본인의 가슴을 보여 줄때

[실험2]

5-6명이 나란히 앉아 첫 사람이 책 반 페이지 정도(자전거 도둑)를 읽고 컷속 말로 뒷사람에게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이 들은 내용을 다시 글로 적기

➔ 원래 내용과는 매우 달라진 마지막 주자의 내용을 듣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한다.

소문이라는 것이 날 때 좋은 말이 많이 날까, 나쁜 말이 많이 날까?

➔ 대부분 사람은 남의 약점, 나쁜 것을 더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실험3]

다섯 가지 정도의 사진을 앞에 놓고 각자가 하나씩 선택해 자세히 보고 자리로 돌아가 옆 사람에게 설명하면 들은 사람은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기.

➔ 원래 사진과 매우 다른 학생들의 그림에 웃음.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 거의 모두 “아니요”)

➔ 맹인 음악가는 있어도 화가는 거의 없다.

눈이 먼 것과 귀가 안 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답답할까?

➔ 눈이 안 보이는 것. 인간은 보는 것을 통해 외부와 소통가능하며 인간이 얻는 정보의 80%는 거의 눈으로 얻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힘들 것임.

[비디오 시청] 맹인 화가

➔ 어떤 감각을 통해 그가 그림을 그리는지 관찰하기: 눈보다 예민한 손. 손으로 만져보고 대상을 그리고 물감도 손끝으로 만져보고 구별. 인간의 또 하나의 감각기관인 손. 인간의 대뇌피질은 인간의 머리와 손의 감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손의 감각은 뛰어나다고 한다.

화가의 손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예민했을까?

➔ 아마도 훈련을 통해 가능했을 것.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인간의 뇌는 비어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곳을 손의 발달로 채웠을 것이다. 고양이 태어나자마자 눈을 가려놓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풀어주면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 역시 눈이 문제가 아니라 뇌와 연결되는 신경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각기관도 뇌와 얼마나 연결이 잘되고 발달 하느냐 달려있다.

인간 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말하기와 손으로 하는 동작들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손이 없으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다른 동물들 중에 인간만큼 손을 쓰는 동물이 있을까? 인간의 다섯 손가락 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때 가장 치명적인 손가락은 무엇일까? 엄지. 엄지손가락 쓰지 않고 단추 풀기 가능할까?

휴대폰 관련하여 인간의 미래 예측

세상에 전화는 몇 대나 있을까?

→ 세계인구 60억 중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인구는 많아야 30억. 적게는 20억 정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반은 한 번도 전화를 사용해보지 못한 것. 왜? 가난하해서. 인공위성에서 밤에 지구 사진을 찍으면 반짝이는 곳이 있고 까만 곳이 있는데 서울은 대표적으로 반짝이는 지역이고 북한은 깜깜(아이들 웃음). 남한의 에너지 사용량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 10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산다면 한 사람당 몇 명의 하인이 필요할까?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 올 때 타는 버스의 속도로 말을 타고 온다면 말 몇 마리가 필요할까? → 자동차 한대가 300마력 정도 되니 말 300마리...

아침에 본 대번치리는?

수세식 화장실이 변을 처리하는 속도로 인간이 그것을 치운다면?

엘리베이터 하나를 인간이 움직이려면 몇 명이 그것을 당겨야할까?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이용해 기계를 부리는 오늘날 인간이 누리는 편리.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석유에서 오는데 석유 값이 오르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시간 토론 숙제] 문자 메시지가 1초에 3000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국은 휴대폰 사용도가 높다. 10년 뒤 휴대폰은 어떻게 달라질까?

[참여관찰]

→ 두 번째 실험에서 첫 주자였던 R은 책 내용 자체가 이해 가지 않는다고 불평이 심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계속해서 불만이다. 수업 시간 내내 Y 옆에서 문구용 칼을 열었다 닫았다하는데 매우 위협적인 표정이다. 자신의 불만을 그렇게 표출하는 듯. 매우 위험해보여 내가 칼을 넣으라고 하자 억지로 치운다. Y나 옆의 다른

여학생들을 매우 거칠게 대하고 말이 험하다. 여학생들은 그런 R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다.

➔ M은 수업 내내 다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속삭이다 결국 강사의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지적받은 5분이 지나면 다시 딴 짓이다.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조별 토론시간에도 가장 문제가 있는 학생이다. 셋넷학교 담임에게 상담을 해야 할 것 같다.

➔ 세 번의 실험이 모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인데 몇몇을 제외하고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마지막 실험에서 지원자가 없자 Z가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해야지”라며 억지로 손을 든다. Z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 성품인 것 같다.

➔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많이 엎드려 잔다. 건강이 나쁘기도 하고 집중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다. 늘 수업에 열심히 Y까지 잔다.

➔ 세 번째 실험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 역할을 했던 M은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며 “펼리는 대로 그렸다”며 애써 원본과 다른 그림을 변명한다. 그녀의 그간의 수업태도로 보았을 때 귀찮아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체험인 것 같다.

➔ 사진이나 상황, 읽은 내용 등을 설명하는 학생들의 언어가 전반적으로 매우 조잡하고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만큼 표현력이 부족하다.

(5) 10년 뒤에 휴대폰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주제: 10년 뒤에 휴대폰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일시: 2008.06.10

*토의 내용

10년 후 핸드폰은..

- 컴퓨터 자판이 없어지고 손을 되도록 안 쓰고 모든 일이 처리되도록 변할 것이다.(주제가 핸드폰 임에도 컴퓨터 이야기를 많이 한다. 두 가지 모두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두 개가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듯하다.)

- 렌즈처럼 눈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기계가 발달 되면서 점차 신체의 일부처럼 변화할 것이다.
- 컴퓨터를 많이 해도 눈이 안 아프도록 개발을 할 것이다.
- 시계처럼 차는 휴대폰/자기가 알아서 작동하는 휴대폰
- 휴대폰 자체가 없어지고 이어폰 등으로 간소화 될 것이다.
-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능도 잘 모른다.
- 서비스가 더 발전해서 부가세 등이 없어질 것이다.
- 요금 자체가 없어지고 공짜로 사용하게 되면 좋겠다.
- 초기에 가입할 때 목돈을 내고 그 이후로 사용 할 때는 요금을 안내도록 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 가족요금제
- 국제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참여관찰]

➡ 이들에게 있어 현재 휴대폰 사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요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 연구자가 기존에 접했던 탈북 청소년들의 실상과는 달리 (탈북 청소년들은 핸드폰 등 첨단기기에 매우 집착하며, 최신기종을 사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한다. 이들은 통화량도 엄청나게 많으며 따라서 핸드폰요금도 이들의 수입 수준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나온다.) 이들은 비교적 알뜰하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한 달 핸드폰 요금도 최대 4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새 기종으로 핸드폰을 바꾸거나, 핸드폰 교체의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과 너무도 상이하여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그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이들이 한국에 체류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와 가족들과 함께 사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보는 것이 유의미해 보인다.

➡ 실제로 우리그룹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핸드폰 요금과 그 관리에 대해 부모님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다. S의 경우 한 달에 2만원의 정액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2만원까지는 부

모님이 내주고 그 이상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V의 경우 온 가족이 현재 핸드폰을 갖고 있으며, 영국에 있을 때부터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해 왔지만, 역시 요금이 많이 나오면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V의 가족이 영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생들은 모두 요금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10년 뒤 핸드폰의 변화에 대하여 주로 기계자체보다는 요금제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뭔가 부담하게 요금을 내고 있다는 식으로 핸드폰 요금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고 말하였다.

➡ 남학생들의 경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하거나, 가족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가족들과의 의존도가 높으며, 이미 자립할 수 있는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수준의 사회성과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 W의 경우 셋넷에 온지 얼마 안 된 아이처럼 보인다. 수업에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흥미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남한에 온지는 꽤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항상 기운이 없어 보이고 졸고 있는 W에게 어제 뭘 했길래 그러냐면 W는 대답을 안 하고(평소에도 말을 잘 안한다)친구들이 ‘재는 맨날 게임을 한다.’던가, ‘여자친구 때문에 그러냐 봐요’ 등의 말을 한다.

(6) 길과 교통수단, 이동과 이주

주제: 길과 교통수단, 이동과 이주

일시: 2008.06.17

말을 타고 달리니...

Q: 부산에서 말 타고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

전쟁과 승마기술의 연관성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과 인력이 동원되었을까?

이스터 섬의 미스터리. 헛된 과시욕에 스스로의 삶을 파멸시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예시?

Q: 로마시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A: 신이요. 신화요.

[비디오] 알제리 팀가르 유적: 로마인들이 가졌던 도시건설의 기술과 원리

비디오 시청 후 학생들의 요청으로 휴식시간(10시 50분경)

로마와 관련된 영어 속담.

Rome was not built in a day.

All roads lead to Rome.

At Rome, do as Rome does.

옹겨 적고 다음시간까지 외워오라는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 불평 “안 그래도 숙제 많아요.”(칠판을 보고 옹겨 적는 속도가 매우 느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들 대부분이 단어가 아니라 알파벳 하나하나 단위로 옹겨 적는다.)

여행의 어려움: Travel=travailler=trouble

지하철 운전과 버스 운전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 단조로움, 어둠, 승객 수, 객차 수, 선로 추락사고 등의 경험 때문에 지하철이 더 어렵다고 함

[조별토론]

(N, L, O, 등등)

만약 지금보다 기름 값이 두 배, 세배 올라가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 자전거, 말, 목탄차 등-과 공공요금의 상승, 곡물 가격의 상승 등 을 이야기함. 특히 북한의 목탄차 이야기를 자세히 함.

N: 내 생각에는 세상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냥 적응해 사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전 세계에 오일쇼크 오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보면 기

름 값이 오른다고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있으니까.

(Z, X, a, Y)

Z: 기름 값이 올랐지만 아직 차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a: 기름 값이 오르면 월급도 오르지 않는가? 그러면 어차피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이다.

Y: 기름 값 때문에 교통비가 올라도 어쨌든 이용할 수밖에 없다.

X: 그러면 물건 값도 오르지 않을까?

기름 값이 오른다고 하면 차에 넣은 기름을 연상하고 그것에 국한되어 대화가 이어졌다. 그래서 기름 값과 관련된 산업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아가 지구상의 기름이 모두 소모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고 제안했다.

Z: 북한에서 살던 그대로 하면 기름 없어도 문제없다.

a: 북한에는 목탄차가 있다.

Y: 나는 산골 같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면 기름 같은 것은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a: 뭐 어떤 일을 해서든 먹고 살 것이다.

기름이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기름이 부족한 곳에서 생활했던 경험에 비추어 대화가 진행되었다. 기름 없는 세상을 그다지 현실적인 화제로 느끼지 못하는 듯 했고, 어떻게든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기름이 사라지면 당장 닥쳐올 문제(기근, 전쟁 등)와 현재 개발 중인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이 부분에서 Z와 a는 큰 관심을 보인 반면 X와 Y는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b가 참여하지 않은 탓에 다섯 명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평소 때보다 집중력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평소에 토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a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추후에 a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S, R, U, W, V)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기름을 안 쓰고 다니는 방법을 개발 할 것이다.
교통비가 올라가 버스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버스가 더 많아질 것이다.
충전 등으로 가는 대안 교통수단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명절 때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
오토바이, 자전거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다.

[참여관찰]

→ 아이들 중 U는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고 했다. 지금 기능시험만 남고 다른 시험들은 모두 통과했다고 한다. 아이들 모두 스스로 운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회가 되면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고 싶다고 했다.

→ R은 오토바이를 몰아 본 경험이 있고,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올 여름에도 자전거로 국토종단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행은 혼자 갈 것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가면 복잡하고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라고 했다.

→ W는 다른 날과는 달리 즐기고 있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화가 그리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얼버무리거나 작은 목소리로 혼자 말하듯 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했다. W의 아버지도 여러 차례 운전면허 시험을 봤지만, 매번 떨어지신다고 했다.

→ V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서 얻어 타 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V네 가족이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자전거로 묘기부리는 서커스를 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V네 집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며, 보통 남한 가정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가나 여행도 자주 가는 듯하다.)

→ S도 운전면허를 따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야기 중에 찜질방이 주제로 나오자 S는 자신은 찜질방을 싫어한다고 했다. 한번은 밤늦게 혼자 찜

질방에 갔다가 아저씨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고 했다. 그 이전까지는 짬질방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다.

[다음 시간 공지] 남북한 축구경기 관람 후 스포츠를 주제로 수업할 것임.

6월 22일 일요일 저녁 8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남북축구 국가대표팀

[참여관찰]

비가 와서 그런지 수업 시작부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수업 시작하자마자 엎드려 자는 아이도 있고 다른 공부(주로 영어) 하는 아이도 있다. 수업이 조금만 추상적이거나 학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듣거나 관심을 잃는 경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반면에 단순하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는 바로바로 반응으로 보인다. 초기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었는데 남학생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듯 보인다.

수업이 끝나고 밥 먹은 후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내 사촌이 가수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한 반응이다.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사진과 노래 등을 찾아내기도 하고, 슈퍼주니어를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진지하게 부탁하는 여학생도 있다. 특히 O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다. 방송국이나 콘서트에 데려가 가수들을 소개해 달라고 한다. 기회가 되면 그러마고 했더니 매우 기뻐하며 핸드폰을 꺼내 내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핸드폰 바탕화면의 사진이 예쁘다고 하자 다른 사진들도 보여준다. 남한의 양어머니라는 사람, 그 아주머니의 딸, 헤어진 선교사 남자친구, 자신의 사진이 있다. 전라도 어딘가에 살고 있는 양어머니의 딸은 서울서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O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정말 양어머니인지 그녀 딸의 서울 유학을 위해 맺어진 관계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헤어진 남자 친구 이야기를 물어보았지만 남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만나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려는 나를 졸졸 따라

다니고 내 옆에 붙어 앉아 내 관심을 끌려는 O. 내 손을 잡고 좋아하더니 손등에 뽀뽀를 한다. 이때 사실 나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10대 소녀도 아니고 20대 후반인 여성이 동성의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과연 그녀의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식사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학교를 나오는데 O가 문밖까지 따라 나와 인사를 한다.

(7) 스포츠와 인간

주제: 스포츠와 인간

일시: 2008.06.24

지난 일요일 우리가 갔던 상암 월드컵경기장에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약 6만6천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경기에서는 주최 측 발표 48,519명이 입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경기장을 짓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 25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은 50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암 경기장의 경우 일 년 유지비만 약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관리비가 들까요?

➔ 직원들 인건비, 잔디 구장 관리비, 전기 등 각종 공과금 등에 들겠죠. 그럼 이렇게 짓는데도 많은 돈이 들고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스타디움이 한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축구장과 다른 경기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TV에서 볼 때와 경기장에서 볼 때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스포츠와 체육의 차이: 스포츠는 규칙이 있고 경기를 해서 승자를 가리는 목적이 강한데 반해 체육은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신체 단련의 목적이 더 강함.

스포츠의 특성: 흥분과 광기. 예술이나 연애, 전쟁 등과 비슷

스포츠는 왜 사람들을 흥분시킬까?

➔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의 재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속도, 개인기, 상대적으로 많은 선수(11명), 단순한 규칙, 매번 다른 골 상황 등

경기력(경쟁력)이란 무엇일까?

➡ 기술(기술), 체력, 정신력(집중력), 조직력(team work), 감독의 작전과 선수 장악력 등

(학생들) 선생님은 어느 쪽 응원 했어요?

(김찬호) 음...마음으로 한국 팀 응원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팀 응원했어요?

(학생들) 당연히 북한이죠!

[쉬는 시간]

[설문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뢰

설문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 등을 고려해 수업 전에 강사가 설문조사의 익명성과 공익성, 그리고 설문사례비(문화상품권 20000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10명의 지원자만 받겠다고 광고. 설문참여자를 묻자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손을 듦. 각 조별로 둘러앉아 질문 내용 등 모르는 것은 보조교사들에게 물어보며 설문 작성. 대부분의 질문 의도나 내용은 쉽게 파악했지만 설문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아니오”를 했으면 그 하위 문항들은 건너뛰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도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설문내용 중에 가족의 1달 평균 수입을 묻는 질문에 혼자 사는 O가 자신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물어봐서 본인의 한 달 수입을 적으라고 했다. 일하지 않고 학교만 다니는 그녀의 한 달 수입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30여만 원, 교회에서 나오는 10만원, 병원 등의 단체에서 나오는 보조금 40여만 원 등등해서 90여만 원 정도라고 한다. 식사는 모두 학교와 교회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식비 등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수업 계속]

스포츠는 과학이다.

운동경기별 공과 기구들의 과학성에 대한 설명

스포츠 지식에 있는 보조교사의 시범 및 설명: 축구공의 5,6각형의 결합이 만들

어내는 원, 야구공의 108 매듭이 만들어내는 공의 속도와 회전력 등
탁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N과 교사의 탁구시합. 배드민턴 시범경기 등이
이어지며 각 운동 경기들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 설명
운동을 통해 키우는 힘: 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참여관찰]

함께 축구경기를 보고 와서 그런지 초반부터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물론 몇몇은 엎드려 자는 아이도 있다. 전반적으로 아이들 건강이 별로 안 좋다고 하여 피곤해 자는 아이는 굳이 깨우지 않기로 했다. 소극적이었던 남학생들의 반응이 특히 달라진 것을 느낀다. 처음 나오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남학생들이 인사도 하고 눈을 보며 웃기도 한다.

조교가 축구공과 야구공의 과학적인 설계를 설명할 때 굉장히 흥미로워 한다. 또한 자연계의 생물들을 연구하고 모방해 발전시킨 인간의 기술에 대한 예(찍찍이, 빨대, 지퍼 등)를 설명해줄 때 매우 귀 기울려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8) 인간과 지구

주제: 인간과 지구

일시: 2008.07.01

사계절 중에 여름이 좋은 사람? 겨울이 좋은 사람?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

유럽의 폭염, 사람은 왜 더우면 죽을까?

알프스의 빙하가 녹는다면 물과 함께 무엇이 떠내려 올까?

➔ 20년 만에 떠내려 온 조난객의 시체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 생태계가 모두 바뀔 것이다.

역사상 기후, 자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은 문명이나 지역은 어디일까?

➔ 폼페이

인간의 신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20C 인간의 한계를 생체실험을 통해 밝혀낸 두 나라, 일본과 독일

[토론]

인간이 지구상에서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여: M, L, O, N, c, d)

L: 동물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힘 있는 동물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다.

[비디오 시청]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20년간 인간이 찾지 않은 체르노빌

[수업 재개]

세 조의 토론 내용 발표. 다들 비슷비슷하다. 동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등등...그러나 우리 조가 왜 이런 걸 토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학자들이나 고민하면 되지”, “머리 아프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사에게 공격성 질문을 하여 이후 상상력이 인간사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설명이 이어짐.

[참여관찰]

수업시작부터 영어책을 펴놓고 딴 짓을 하던 M, c, d. M과 c의 사이에 앉아 있는 O 역시 엷드렸다 일어 났다를 반복했다. 토론 시간이 되고 아이들이 귀찮은 듯 책상을 돌리는 모습에서 이미 오늘 수업과 토론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토론 주제를 설명하고 아이들의 질문이나 대답을 유도해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다. 완전히 관심 없다는 듯 딴 짓을 하거나 입을 꼭 다물고 있는 M과 c의 태도에 다른 아이들도 조금 화가 나는 듯하다. L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N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앉아 있다. 처음 토론에 참가한 d에게 다가와 앉아 이야기해보라고 했지만 자신은 아직 이 수업이 적응이 안 된다며 좀 뒤에서 그냥 지켜보겠다고 한다. 거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난처한 내색을 하자 O가 조금 미안해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를 정하고 토론을 정리해야 하니 한마디씩 해보라고 하자 대뜸 M이 왜 이런 토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연다.

다른 것 할 공부도 많고 숙제도 많은데 자신에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고 말하라는 것이 짜증이 난다고. 이에 c 역시 M의 말에 찬성이라며 이런 건 과학자들이나 고민하면 되지 왜 자신에게 이런 걸 시키는 지 모르겠다고 다소 거칠게 표현했다. 내가 그런 생각 역시 의미 있는 말이라고 토론 결과를 발표할 때 꼭 이야기 하라고 하자 둘이 좀 의기양양해진 표정이다. 발표자를 정하자는 말에 c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N과 O, L을 지목하며 하라고 한다. N과 L 표정이 일그러진다. O와 c는 빨리 발표자를 정하고 끝내자는 심산인지 재촉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침묵이다. 보다 못한 내가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정하라고 하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c와 M이 또다시 가위바위보 하자고 나선다. 그런데 아무도 호응이 없었나 보다. 1분정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c가 아무도 가위 바위 보를 안 한다고 난리다. 답답해 죽겠단다. 그러다 O가 자기가 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학생들은 책상을 돌려 본래 자리로 가 앉았다. 그리고 수업을 재개하려고 강사가 운을 떼려는 찰라 N이 c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다.

“야, c야. 너는 그런 태도로 그러지마. 그렇게 수업 받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말하고 나가야지. 다른 사람한테 다 영향을 주잖아”

그러자 c가 흥분하며 “나중에 얘기해 줄래요? 누가 봤으면 내가 애들한테씩 친줄 알겠다? 왜 그렇게 앞뒤를 못 가려” 하며 맞받아친다.

선생님과 내가 말리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쳐다본다. 그래도 c가 계속 흥분해서 뭐라고 씩씩거리니까 갑자기 d가 소리친다.

“야, 너 뭐야? 이게 어디 콧.”

(c)“수업이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d)“야 너 말하는 거 봐봐. 싸가지가...”

(c)“함부로 지껄이지마. 아 짜증나. 넌 뭘데 사람들 앞에서 지껄이고 지랄이야. 아 짜증나...어디서 배워먹은 욕지꺼리야. 아 씨발...”

옆에 앉은 O가 c를 말리고 N과 d는 일어나 c를 칠 기세다. 결국 선생님의 강한 저지에 d가 밖으로 나가고 c는 분에 겨워 계속 소리 지르고 욕을 한다. 이에 모든 남학생들이 c를 향해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한다.

나중에 따로 N과 c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c의 수업태도와 토론시간에 보여준 태도, 그리고 나를 비롯한 소위 ‘어른’에게 대하는 태도의 거리낌 없음에 N과 d가 발끈했다. 이들이 c를 비난하는 이유는 ‘싸가지 없음’ ‘버릇없음’이다. 특히 평소 이 수업에 열심인 N이 보기에 c의 태도가 매우 못마땅한 듯 했다. 고향과 옥설이 오고가고 셋넷학교 선생님까지 문밖에 와 들여다보고 가지자 아이들 모두가 겁먹은 듯하다. 역지로 수업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뭔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적극적으로 수업에 귀를 기울인다. 이 안에 있는 나름의 질서, 특히 아이들이 “남한 사람 화” 되면서 북한에서 채득한 가치들이 남녀 성별에 차이를 두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툼을 통해 감지한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들의 중재 하에 N과 c를 화해 시켜려 했지만 오히려 싸움은 더 커지고 두 사람의 감정은 격해졌다. N의 논리는 수업이 싫으면 듣지 말지 왜 교실에 앉아 분위기 흐리며 다른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의 힘을 빠지게 하냐이고 c의 논리는 그렇더라도 N이 무슨 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훈계하냐이다. 그 와중에 N이 나에게 묻는다. 정말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내가 c나 M의 그런 태도를 꾸짖지 않고 보고만 있는지... 사실 나는 이 수업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수준을 관찰해서 보다 나은 강의를 구성해보겠다는 생각이 컸고, 또한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려고 마음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인학교 교사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대응했는데 이게 이곳 학생들에게는 낯선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식의 교육이 이들에게 이로운 것일지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다.

(9) 삶과 죽음에 대하여

주제: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일시: 2008.07.22

*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죽음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동물 중에 원숭이나 돌고래 등도 자살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인간만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 또는 조장 하는 모습을 보인다.

*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죽을 뻔 한 경험을 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전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인간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거나, 더 이상 삶에 대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초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죽을 뻔 한 경험에 대한 발표

그때의 느낌은?

-불쌍하다/ 무섭지 않았다/죄를 지었으니 죽는 게 당연하다.

(이 부분에서 모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하였다. 아이들은 대부분이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죽을 뻔 한 경험을 했거나, 죽는 모습을 봐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경험이 각 개인들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큰 경험이었거나, 큰 이슈였던 것 같다. 무엇보다 한 학생이 ‘북한에서 총살당하는 거 많이 봤어요. 별로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죽을죄를 지었으면 죽는 게 당연하죠.’라는 말을 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그 ‘죽을 짓’이란 게 식량을 훔친다던가 하는 경미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반감을 샀다. 문제의 발언을 한 학생은 셋넷학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고, 강한 반감을 드러낸 아이들은 인문학 프로그램 처음부터 수강했던 학생들 이었다. 아마도, 발표를 한 아이가 한국적인 정서에 보다 덜 동화가 되었거나,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경험이 보다 더 격렬하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존의 학생들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현재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 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있는 듯 하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그와 같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

유체이탈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 : 죽은 후 자신의 시체를 보게 됨, 그 후 긴 터널을 통과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후에 강이나 사막 같은 밝은 빛을 보게 된다. 근사체험을 했다 살아 돌아 온 사람들은 대개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세상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일주일 밖에 못산다면?

부모님을 찾아 간다/고향에 간다./잘못한 일을 사과 한다/좋은 추억을 만든다.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북섬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강태중·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김영한·박철웅·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김지연·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김영지·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김경준·김영지·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김경준·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니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Ⅲ

-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경성 전화 (02)503-3223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55-0(93330)